건축사

12

KARA JOURNAL 1970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지

뛰어난 斷熱効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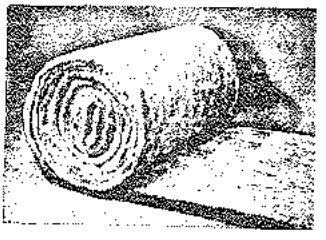
한일 화이바그라스

※ 先進各国에서 화이바그라스는 斷熱材의 대명사로 되어있읍니다.

화이바그라스는 발명특허에 빛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섬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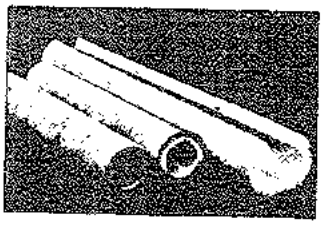
「뛰어난 保温, 保冷材」「가볍고 시공이 간단한」「타지않는 건축자재」로서 국내 최대의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한일 화이바-그라스** ————

어느 斷熱材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수준을 능가한 한일 화이바그라스는 그 「우수한 품질」「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인슈레이션 맷트

특성	용도
① 단열성이 우수하다.	① 건축물에
② 吸音, 防音	② 공장건설에
③ 불에타지 않는다.	③ 선박에
④ 가볍고 탄력성이크다.	④ 자동차,철도차량에
⑤ 시공이 간단하다.	⑤ 전기냉장고에



파이푸 카바-

설비용 pipe의 保温, 保冷用으로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保温材보다도 熱伝導率이 적어서 연료의 절약, 원가의 절감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한일유리섬유공업주식회사

HANIL FIBER GLASS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가269—11, 중앙사서함952호

Tel : 53—5479, 53—2555, 23—4088, 23—4089

따스함이 그리운 季節!

현대인의 문화주택 · 빨딩 · 공장등…
귀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난방시설에 있어서
보일러의 선택이 중요하겠읍니다

輸入完製品

●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미국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미국 ABC 자동 오일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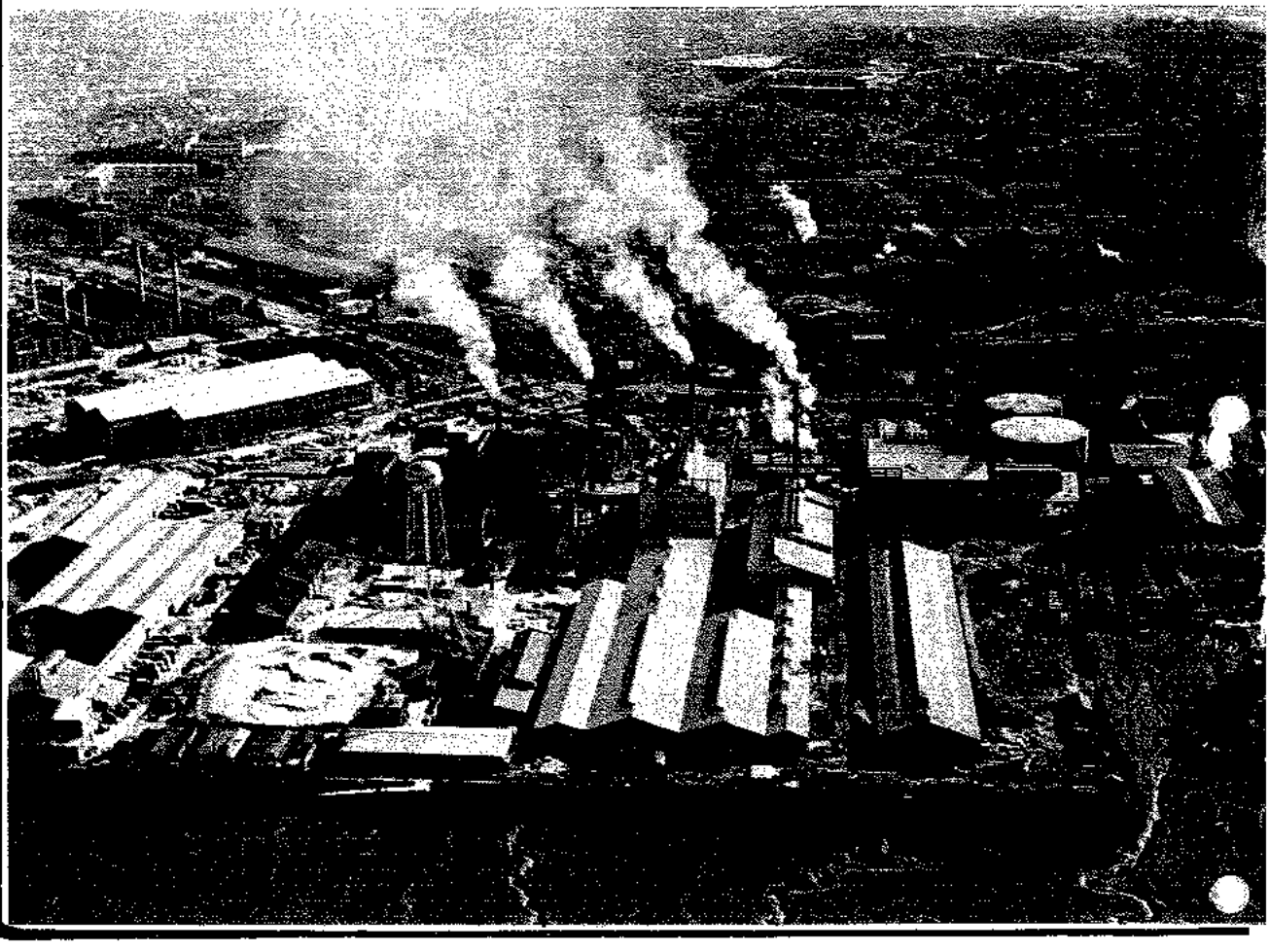
■ 설치에서 애프터 써비스까지 완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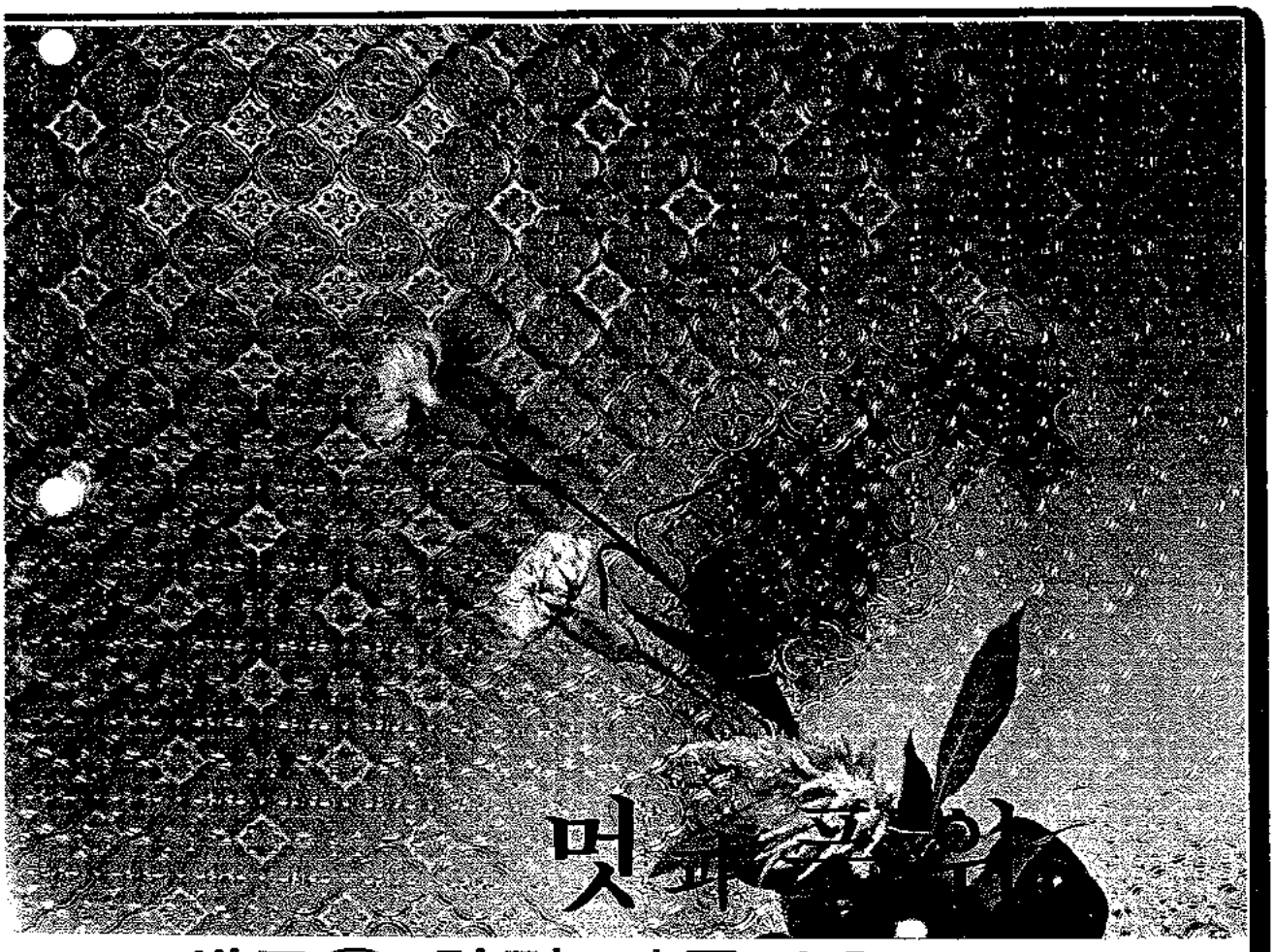
한국총대리점
三成設備工業株式會社
서울 을지로 2 가163-5(동양빨딩601호)
전화문의는 ㉓ 9696 · 9697 · 9698

ABC

유리시대의 선구자 한국유리

성실하게 연구·노력하는
유리시대의 선구자 한국유리는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봉사합니다.
유리에 대한 문제는
한국유리에 맡겨 주십시오.
이번 저희 한국유리는
美国 P. P. G가 품질을 보장하는
펜버논 유리를 생산하여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읍니다.
넓은 공간, 맑은 유리—펜버논 유리





새로운 환경, 아름다운 住宅美를 창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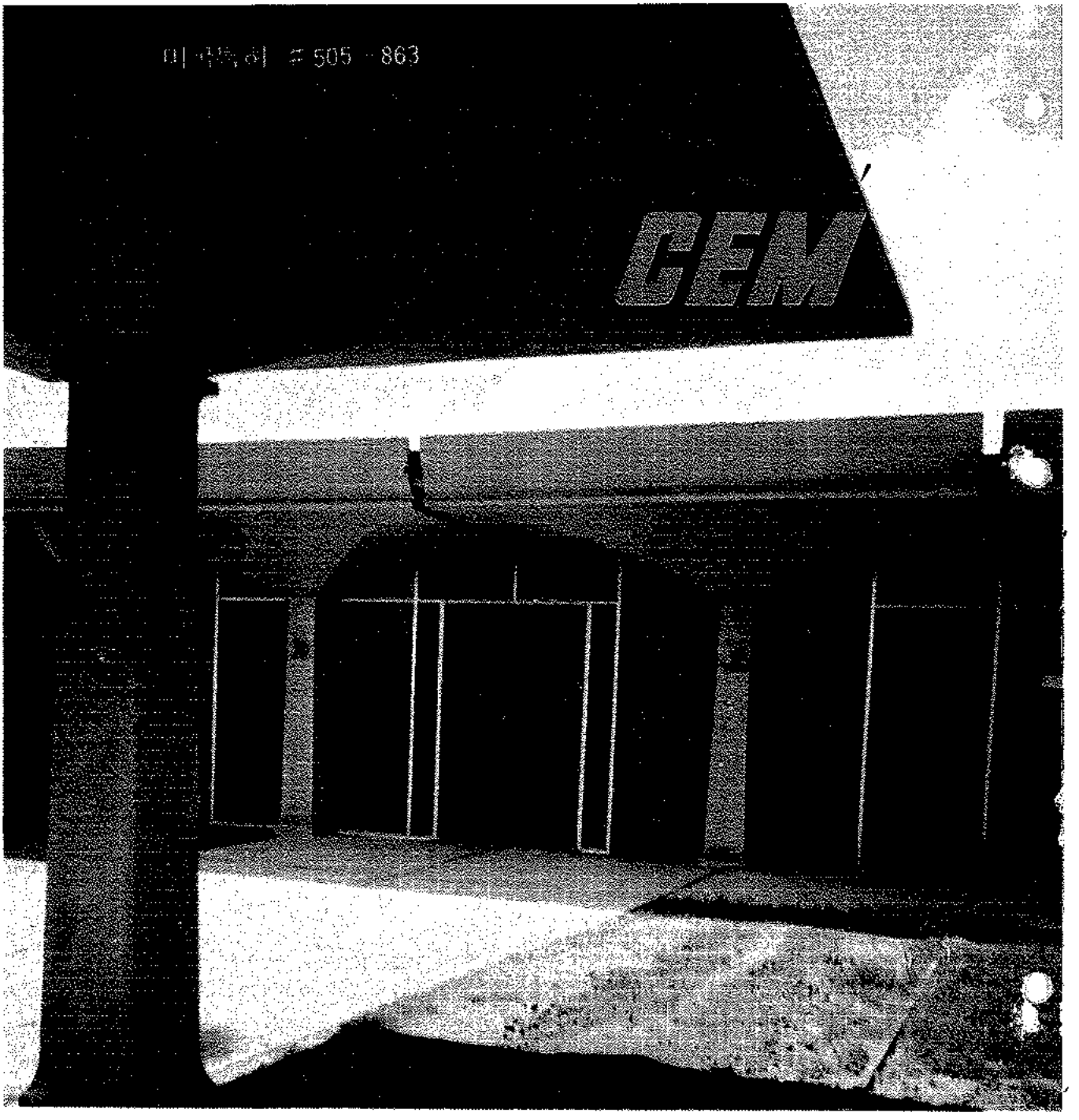
한국유리의 모든 제품은 가장 새로운 환경과 멋진분위기를 창조하여 드립니다.

◀제품안내▶

- 맑은유리 (후르꼬르식, 펜버논식)
- 무늬유리 (후로라 · 안개, 미스트라이트, 소프트펜, 모루, 솔잎, 사라사, 크로스펜, 계수나무, 철망유리)
- 관 유 리 (조명용, 의약용)
- 유리블록 (안개, 모루, 물결)
- 강화유리 (자동차용, 건축용)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 : 서울特別市 西大門区 西小門洞 75 / 電 話 : (23) 7141~45
工 場 : 仁川市 東区 萬石洞 2 / 電 話 : 仁川 (3) 0111~0119



어떠한 삘딩과 아무리 古屋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금이 가지 않으며 다양한 색채로 매끈한 혹은거친 디자인으로 새롭게 완전방수 표벽화 합니다.

※ 防水, 방화, 방음, 凍結, 結氷, 恒久性을 보장하며 쉽게 청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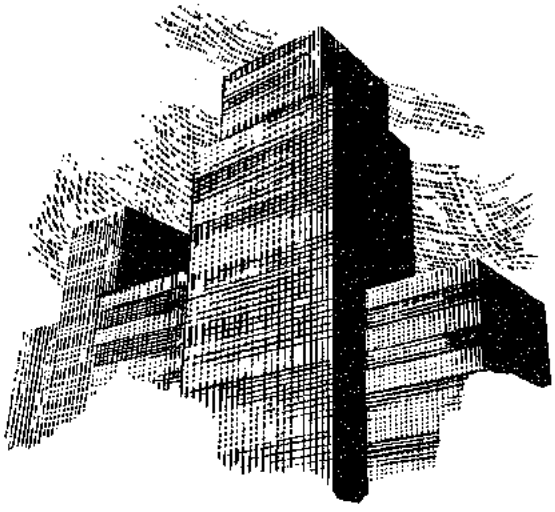
미국에서 建築業으로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ILLINOIS Rockford에 있는 U. S. DECOR-Cem inc와 동남아 특약과 기술제휴.

美덱콜－쎔韓國支社

KOREA DECOR-CEM INC.

本 社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20의 3 (성산빌딩 203호) TEL. (54) 7569

工 場 :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4의 1



現代建築 內裝의 3大 課題—
방음·방습·보온을 완전 해결한

三榮하—드보—드

무늬보—드

立体的이어 아름답고 濕氣와 소음을 防止하며 쥐가 棲息치 못하는 가장 새로운 建築 內裝材.

프린트 보—드

하—드보—드 表面에 優雅하게 塗裝된 國內最初의 新製品으로 우수한 高級內裝材.

吸音板

木材 纖維로 製造된 國內唯一의 斷熱吸音 材로써 防音이 完全하며 절대휘거나 뒤틀리지 않는 天井用 內裝材.

三榮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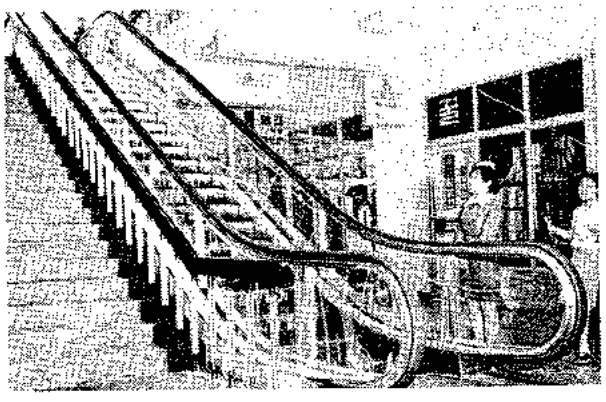
■ 서울사무소 : ☎ 26—3201～5 ■ 서울總販 ☎ 52—3006～7
서울特別市中区乙支路 3 街296

고층건물의 고속도로! 금성 에레베터

5 S특성의 금성 에레베타를 타보셨읍니까? 빠릅니다. 안전합니다. 조용합니다. ——— 제작과 설치, 설치후에도 금성 기술진의 철저한 아프터 써비스가 보장됩니다. HITACHI기술 협력으로 제작되는 ——— 금성에레베터, 에스카레이터를 선택할 분은 알고 있읍니다.

고층건물의 고속도로 5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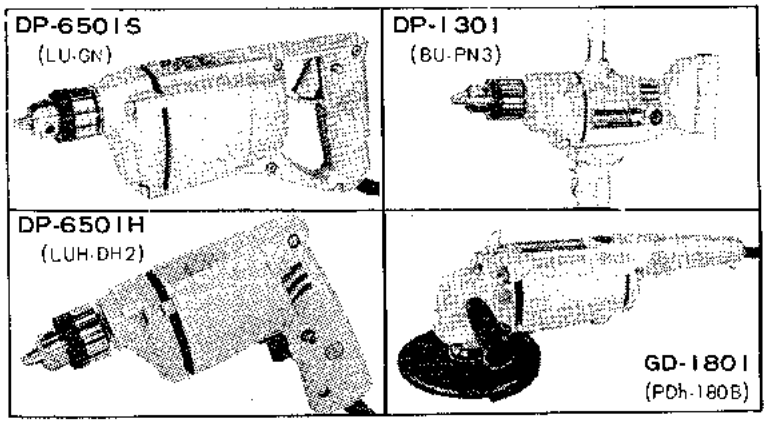
금성 에레베터 / 에스카레터



5 S란—
- SPEED(획기적인 초고속)
- STABILITY(안정된 속도 제어)
- SERVICE(철저한 아프터 써비스)
- SAFETY(높은 신뢰도)
- SILENCE(정숙한 운전)

에레베터와 에스카레터의 기종 선택, 사양검토, 교통량계산등 기술 상담실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금성 전동공구



금성은 일본 HITACHI의 기술협력으로 국내 최초로 드릴 및 그라인다등 전동공구를 생산하여 공업기계 생산업체의 작업 능률을 15배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읍니다.

■ 전국 전동공구상에서 취급합니다.

주식회사 금성사
Gold Star Co., Ltd.

연락처—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의 1
주식회사금성사 전기사업부 특판과
(74)5151, 6151 (구내) 368, 386

부산직할시동래구온천동707
특판과 주재원
(5)0151~5

부드러운 달빛을!!

밝기를 마음대로 할수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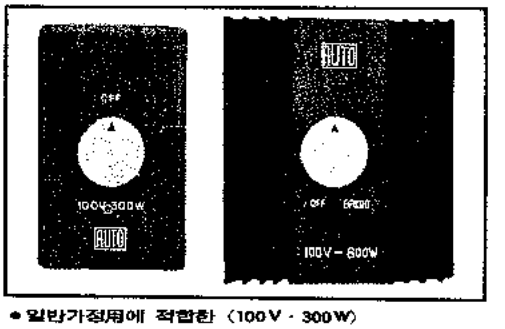
이것은 실내조명의 오랜 꿈이었읍니다.
Autolite 調光器는 이꿈을 실현하였읍니다.

■ Autolite 調光器는

선등의 밝기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전자 장치로서 외국에서는 Light Dimmer란 상품명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일반 실내조명·무대조명·호텔객실·병실·연회장 조명 등에 사용됩니다.

■ Autolite 調光器를 사용하면

보조등의 설치가 불필요 해지며 전력비를 절약할수 있는 경제적인 利点도 있읍니다.



- 일반가정用에 적합한 (100V · 300W)
- 연회장 조명에는 (100V · 800W)

※ 특수한 규격의 제품은 주문에 의하여 생산합니다.

調光器 AUTOLITE

AUTO 오토電子工業株式会社
서울시 중구 산림동 245 ㉖1630

표시허가 제374호
5C—650방열기
표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기 술 의 상 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벡타 관이음쇠

- 5C-650 RADIATOR
  5C-500 RADIATOR
- WALL RADIATOR W-7B
  (5kg/cm² 水圧試験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kg/cm² 水圧試験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읍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砿・三票煉炭
三 票 石 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8 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KARA JOURNAL

월간 「건축사」

1970

12

제 2 권 제28호

차 례

(送年의 詩) "山이 솟는다" ……(詩人) 李 烈…(2)
送 年 辭……會長 姜 奉辰…(3)
歷代會長을 찾아서……編輯部…(4)
◆지상좌담회◆
70年 建築界의 이런일 저런일 ……(6)
特 輯
住宅과 國民性 ……文學博士 任 東權…(10)
論 壇
建築士法改定案의 廢棄를 보고 ……崔 鄕…(13)
論 壇
高層建物抑制解制를 위한 나의 小考 ……(理事) 徐 廷達…(15)
건축법해설……건설부건축과장 박 우하…18
會員作品 ……(24)
冷凍工場傍熱資材의 發達史 ……(水產廳施設係長) 김 회천…(37)
르네상스와 바록크의 建築体系 ……조 건영(譯)…(42)
인터뷰코너
建築學會 洪 鵬義 會長 ……編輯部…(55)
建築界 消息 ……(56)
(會員의 發言台)
나의 提言 ……(58)
建築許可統計 및 動向 ……(建設部 제공)…(59)
建築相談 ……(建設部 제공)…(61)
建築士試驗問題……(64)
會員動靜 ……(69)
協會記事 ……(71)
編輯後記 ……(72)
(부록) 資材時勢表……(73)

편찬위원회

위원장	서	정	달
위 원	김	만	성
	김	진	일
	안	인	모
	유	경	철
	이	승	우
	이	정	덕
	이	중	문
	최	창	규
	함	정	호

(가나다 순)

山이 솟는다

詩人 李 烈

山이 솟는다.
未知의
하늘에.

山이
山이기에 솟는 거기서
굽어보는 視野
에 안겨는 낯선
얼굴 점점이 엉켜지는
風景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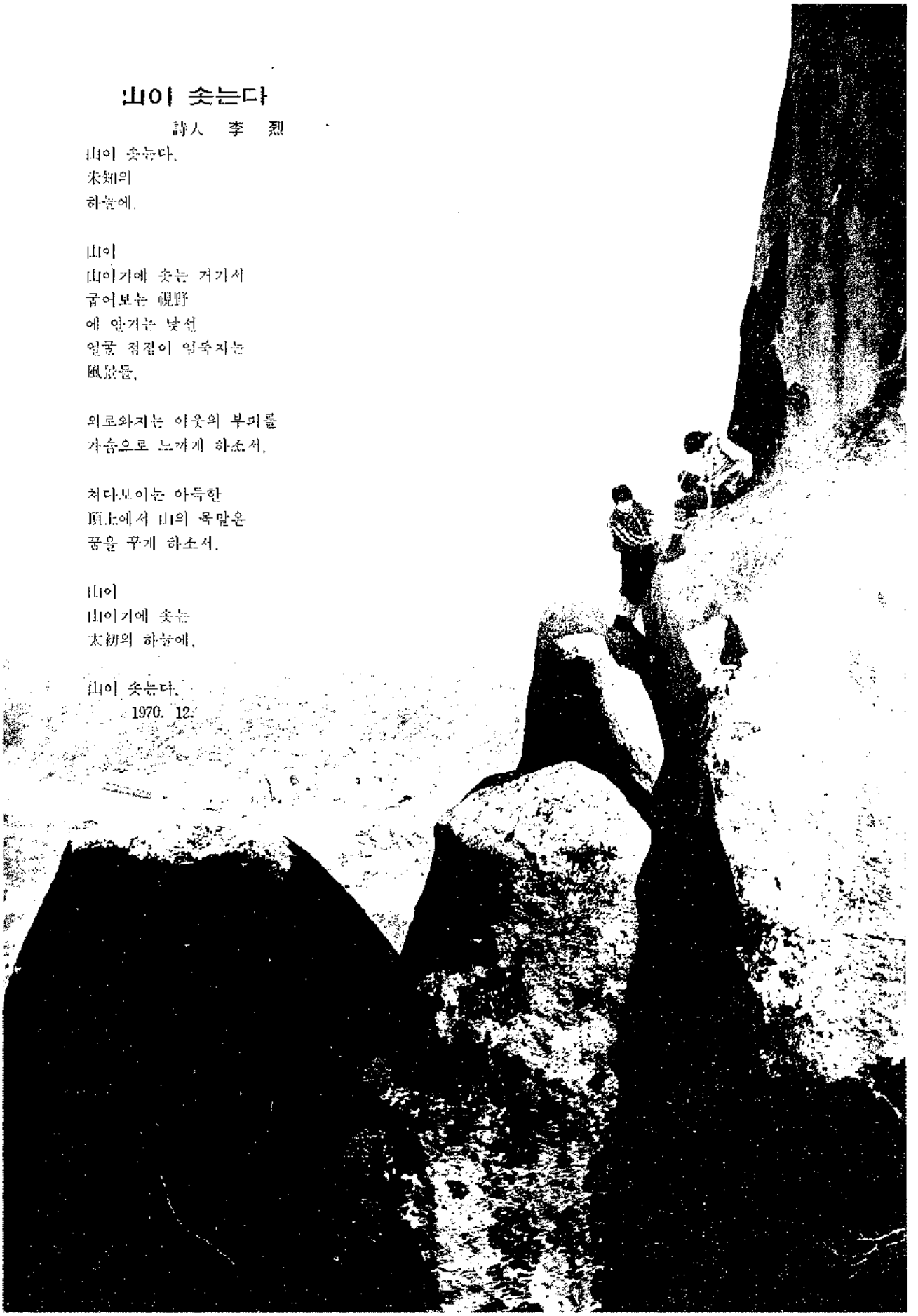
외로와지는 이웃의 부피를
가슴으로 느끼게 하소서.

처다보이는 아득한
頂上에서 山의 목말은
꿈을 꾸게 하소서.

山이
山이기에 솟는
太初의 하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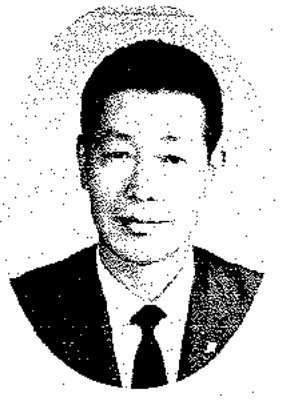
山이 솟는다.

1970. 12.



□ 송 년 사 □

경술년을 보내면서



회장 강 봉 진

돌이켜 보건데 60년 전의 경술년은 새 아침의 해가 밝으면서부터 왕궁 내에는 수심이 가득해서 신년의 기쁨을 나눌 겨를도 없었고 서울을 비롯한 경향 각지 거리에서는 일인들의 소위 "개다"짝 소리만 요란하게 딸가닥거렸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휘말려 전전긍긍,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조정을 주시할 뿐이었읍니다.

드디어 올 것은 오고야 말았으니 동년 8월 29일에는 매국노들의 손에 의하여 소위 "한일합방"이란 조약을 체결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인에게 넘겨 주어 버렸든 것입니다.

그후 60년!

금년은 바로 그 경술국치를 겪은 지 환갑이 되는 해였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욱 1910년대의 경술년은 바야흐로 우리 민족이 암흑 세계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해였음에 반하여 1970년대의 경술년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실 단계 연도임을 생각할 때 더 한층 깊은 감회를 느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대망의 70년대의 첫 해인 경술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함과 아울러 새해부터의 계획을 짜야 하겠읍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건축사협회는 협화대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많았으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대로 업무량의 감소에 따른 심한 경쟁과 수입의 격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협회는 여러가지 현안문제 해결에 서광이 비쳤으므로 새해부터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리라고 믿어 맞이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있어서도 새해부터는 호전을 가져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건축사는 조국근대화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쌍견에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소원은 깨끗이 흘려 보내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불퇴전의 용기를 갖고 조국근대화 사업에 앞장설 것을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민족중흥의 대과업달성을 목표로 출발한 70년대의 서두를 장식한 이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빌면서 송년사를 마칩니다.

故 金舜河 初代会長

12月27日 이날은 大韓建築士協会를 처음으로 이 땅에 잉태케하신 거룩한 우리 士協의 産母 金舜河 初代会長任께서 享年 66歲를 一期로 安眠하시지 4年이 되다.

韓國 建築界의 先驅者로서 황폐한 이 땅의 近代化를 위해 운명 직전까지도 온갖 心血과 정열을 쏟으며 동분서주하시었던 金舜河 会長任.

生前의 溫和하시고 인자하신 그 餘德은 建築士 全会員들의 尊敬과 推仰은 永遠한 韓國 建築界의 "심볼"이 아닐 수 없다. 生前의 功勞를 이 좁은 紙面에다 서술치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가지만 적어보면 1963年에 韓國初有의 建築士法을 制定하셨고, 또한 建築士試驗 銓衡委員으로서 第一期 第二期를 通해서 수많은 후배 建築士를 배출하셨고, 오늘날 士協의 大家族을 形成케 해 주신 그 偉業과 遺志를 이어 받들기 위하여 全会員은 高邁하신 人格과 行蹟을 더 빛내기 위해서 一致団結하고 合心해서 建築界의 發展을 위하여 盡力을 다 하는 것으로서 故人에 対한 報答의 길이며 靈前에 盟誓한 意務가 아니였던가.

12月은 우리 士協의 追慕의 달이요, 來日을 向한 보다 알찬 發進을 위해 발돋음하는 달이다.

우리 全会員은 生前의 그 厚德하신 金舜河 会長任의 얼을 받들어 서로 돕고 받들어서 大韓建築士協会의 健実한 發展을 위해 總進軍하자!

이 길만이 우리들의 意務요 또한 자랑이며 故人에 対한 거룩한 遺産이 아니겠는가!

故 金舜河会長任의 遺族으로는 未亡人 楊富子女史와 슬하에 二男五女.

長男 金浣鎬氏는 三和工務所 副所長으로 계시며, 生前에 직접 경영하시든 三六建築研究所는 協会의 編纂委員으로 수고해 주시는 劉景哲会員께서 이어 받아 盛業中이시다.

二代會長 張 起仁

영하의 차가운 12月 9日의 오후 編輯者는 乙支로 3가의 뒷골목에 자리한 大東빌딩 5층에 자리한 삼성건축설계사무소 대표 張 起仁 第二代 會長任을 찾아 뵈었던 첫 인상은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소박하시고 조용한 전형적인 學者型의 인상을 짙게 해 준다.

30여년의 建築士 경력의 보람에 대해서 하고 묻는 질문에 "글쎄요, 언제 어떻게 이런 세월이 흘렀는지 그저 하루하루 업무에 쫓겨서 뛰어다니고 보니 그 사이 30년이 되었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自意的인 業務量보다 他意的인 業務가 더 많읍니다. 고 하신다.

設計事務室에서는 9개의 제도用 冊床앞에는 9名의 젊은 補助員들의 일손이 마치 기계처럼 잠시를 멈추질 않는다. 그 중에서도 探訪者의 視線을 이끄는 곳엔 장래 女流建築家가 될 H대학 在學中이라는 아가씨다.

이곳을 거쳐간 많은 후배의 弟子들이 지금은 一家를 이룬 建築界의 人物로서 大成하고 있다고 하시며 나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이것 밖에 더 있겠느냐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士協의 會長으로 있을 当時는 아직 初創期인지라 오늘날 처럼 확고한 틀이 잡히질 않아서 會誌 発刊을 爲해 自費 負担을 하면서까지 苦心을 했는데 이젠 기반도 잡혔으니 서로 合心해서 훌륭한 잡지를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당부하신다. 그러면서 外國 잡지의 번역을 무작정 掲載하는 것은 좀 삼가해 줘야겠어요. 뭔가 독창적이고 個性美가 있어야겠는데 앞으론 여러분들께서 서로 單合하고 協力만 한다면 그 만큼 협회의 発展은 클 것입니다고 하신다.

슬하엔 五男妹中 맏딸은 시집을 가고 나머지는 아직 學校에 在學中이라신다. 협회를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텐데요. 인자스런 웃음을 지을 뿐이시다.

三代會長 金 在哲

우리 建築士協會는 文化団体가 아닌 어디까지나 法人団体인 만큼 文化的이며 學術的인 것 보다는 実務的이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協會 기관지의 편집방법도 이랬다 저랬다 그 양식을 자꾸 변경치 말고 한가지의 編輯企劃을 세워서 일관된 統一性이 있어야겠어요. 會誌는 어디까지나 우리 會員들이 참여해서 他意的이 아닌 自意的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編輯内容에 있어서도 앞으론 이런 것을 揭載해야 되지 않을가 봅니다.

첫째로 建築의 의장에 관한 것.

둘째로 建築의 資料와 구조에 관한 것.

세째로 工學과 力學에 관한 것.

네째로 건축법 관계

다섯째로 工事監理 관계

여섯째로 건축관계에 관한 제반 기사를 우리의 會誌는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編輯計劃과 原稿는 그 内容別로 권위자로 구성된 主審委員과 副審委員에게 검토시켜서 揭載되어야 할 것 알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사」誌는 해적판이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外國서적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 싣지 말자는 거에요. 우리 건축사들은 대부분이 건축전문잡지를 구입해서 보고 있는 만큼 二重으로 보는 결과도 있어요. 우리 會誌의 질적 向上을 위해서도 이런 점은 좀 시정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곶은 것은 會員作品인데 모두 너무 천편일율적인 것 같애요.

그리고 本部와 支部의 권익과 옹호와 発展을 위해서 自体强化가 必要하겠지요. 너무 建築法에 얽매어서 能力과 責任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建築士는 1급이니 2급이니 하여 그 어떤 배타 정신을 助長해 주고있는 결과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어요.

四代會長 姜 明求

滿一年余日을 建築士協會에 몸담아 在來的인 格式을 떠나서 무엇인가 実質的으로 士協을 위하여 흐뭇하고 보람된 結実을 남기고 싶은 意慾을 다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느낄 뿐입니다.

지난번 「건축사」誌에서 본인은 士協은 果断性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임을 하였읍니다만 우리들의 協會가 우리들의 発展과 生命線을 위하여 한국 뿐 아니라 東洋에서 선도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대한건축사 협회가 되도록 우리 全會員은 合心해서 우리들의 協會인 母体를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建築士, 建築家는 單稱名詞가 아닙니다. 建築士란 나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建築士 全般의 複稱名詞이기 때문에 다른 建築士의 잘못도 우리들의 잘못으로 社會에선 인정함으로 우리 회원은 더욱 協會의 発展을 위하여 各自의 品位向上에 더 한층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多幸히 새로 受任되신 姜 奉辰 會長은 協會 운영에 많은 경험과 오늘의 우리 協會에 영향을 미치게 한 모든 문제점을 구별하고 細分하는 眼目과 自己를 버리고 多數에게 奉仕할 줄 아는 年令으로 참된 意見과 個的인 利權을 떠나 全般的인 福利를 위한 제안의 교환이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길로써 先任會長들의 諮問機関設置는 역시 体質改善의 하나로 첫 進路를 굳건히 만들었으며 새 協會 會長団의 友誼와 交流로 建築界 全般의 向上과 事務處의 地盤을 强化 함으로서 業務의 研究発展과 中立地帶를 形成시킬 수 있으므로서 過去보다 좀 수월히 体質改善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方向을 設定하고 果敢性 있는 改善으로 풍족한 발전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 본 글월은 前月 姜明求 會長任의 이임사 중에서 紙面에 맞추어 要約된 말씀입니다)

◆지상좌담회◆

70년 건축계의 이런일 저런일

1970의 경술년은 온통 사고 투성이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큰 화제의 사건들이 빈번한데 대하여 건축계에서도 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읍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추려서 경술년의 회고를 더듬어 봅니다. (編輯者 註)

◆半島朝鮮 아케이트建物의 火災事件

解答者 **車 景 淳**(半島朝鮮아케이트設計擔當者)

1970年頭正月 17日에 발생된 火災는 同 建物內의 여러 商店을 불태워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뿐만 아니라 既存R.C構造의 建物에도 처량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同 火災의 原因은 隣接建築工事場(新建物)에 마련된 경비원 헛간에서 잠자고 있던 人夫의 不注意로 피워놓고 있던 石油난로를 잠결에 거더차서 넘어뜨렸는데 이로 인해서 흘러나온 石油에 引火가 되어 번지는 불길이 隣接된 同아케이트의 窓을 불태워 침입한 화염이 아케이트內에 쌓아놓은 각종 섬유류等 여러가지 商品에도 불이 붙어 고요한 겨울밤에 저렇듯 무서운 災難을 초래시켰던 것이다. 뒤늦게 火災를 알아낸 消防署에서는 급히 현장에 出動했으나 꼭 닫힌 샷타를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당황한 한편 차디찬 겨울밤의 수도물은 호스에서 얼어붙어 噴射가 잘 되지 않았다. 특히나 隣接한 골목길은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어 不得已 小公洞 大路에서 호스를 끌어 鎭火作業을 하게 되었다.

이 火災의 結果로서 推定되는 問題點을 檢討해 본다면

1)아무리 耐火構造의 R.C 建物이라도 採光유리창에서 불길을 뿜으며 被壞浸入되는 불길은 막을 길이 없으며,

2) 耐火構造의 建物안에 쌓놓은 섬유류等 여러 物件에 따라 延燒되는 火災는 窮極的으로 建物內의 모든 物件을 燒火시키며 及己也는 建物自体에도 莫大한 損傷을 준다.

3) 百貨店等에 使用되는 샷타等 閉門은 有事時에 금방 열어줄 수 있는 장치와 人員의 配定없이는 이러한 火災時의 消火作業에 커다란 支障을 준다.

4) 이러한 百貨店等에는 스프링쿨라 等의 防火設備가 없이는 災難을 막을 길이 없다.

5) 同 아케이트 火災의 慘狀을 調査하여 본 結果는 500℃에서 1000℃ 以上되는 高熱度가 철근콘크리트 構造物 깊숙히 전번되여 建物의 치명적인 損傷을 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特記할 것은 콘크리트被服이 엷은 床版等 피해가 더욱 심하였다.

6) 既存 아케이트建物內에는 2個所의 中間防火샷타가 있으나 商品이 가로 막혀서 샷타를 내리지 못하여 防火샷타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였다.

7) 天井內 換氣닥트 및 埋込電線等으로 火焰이 遠距離까지 延燒되였으므로 이러한 點을 設計時에 有意할 것으로 안다.

8) 이러한 現況의 建物은 서울市內에는 不知其數이며 建築事業을 專擔하는 여러 會員은 勿論 當局에서도 앞으로 硏究課題가 되어야 마땅할 것임을 强調한다.

耐火建築物防止에 對한 參考事項을 말씀드리면,

1) 콘크리트被服을 普通以上 可能하면 5 cm 以上

을 要한다.

2) 天井內 닥트等은 中間에 차단 시설을 할것.

3) 天井等은 不燃材料를 使用할 것.

4) 防火샷타는 電氣自動式으로 할 것.

5) 隣接建物의 窓에는 반드시 防火샷타를 設置할 것.

◆國展에서 建築部門이 除外된데 대하여

해답자 崔 島 壹

문교부는 1956년 제 5 회 국전때부터 건축부문이 신설되었다. 뭇 건축인들과 지성있는 국민은 문교부의 처사에 박수를 보냈다. 문공부가 국전을 문교부로 부터 이관하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그전부터 있던 신인예술상제도가 없어졌다. 우리는 놀랐고 젊은 건축학도들은 공식 공모전이라고는 오직 국전 뿐이었는데 문공부가 국전에서 건축부문 마저 제외시키므로서 발표의 기회을 잃게 되었다(1970년도). 이러한 처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始初는 文公部가 하는 新人藝術展에서 國展에 包含되어 있는 美術, 建築, 寫眞이 除外된다고 했다. 그것은 수긍이 가는 있어었는데 그후 新人藝術展 全部가 없어지고 곧 이어 國展에서도 建築部門이 除外되었다는 것은 文公部處事에 理解하기 곤라하다. 그래서 建築家協會에서는 젊은이들의 공모전으로 가난한 經濟條件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建築學徒들의 要請에 依하여 協會展으로 新人建築展을 마련했다. 이처럼 文公部의 文化政策을 立案하는 者들의 沒知覺과 여기에 呼應 내지 同調하는 他部門 藝術人들의 無知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수 밖에 없다.

요는 "建築이 藝術이냐, 아니냐"에 있다. 古代로 부터의 文化史를 들처보거나 現在 各先進國 에서의 建築文化에 對한 政策이나 國民들의 理解度로 보아도 알 것이다. 文公部의 官公吏들이나 他部門 藝術人들이 建築이란 오직 人間의 生活道具程度로 알고 있으니 寒心한 일이다.

始初 國展에 建築이 包含되었을 時는 快哉를 불렀다. 그러나 每年 國展의 建築部門은 他部門에比해 빈약했다는 評이다. 이것은 建築人들의 參與意識이 不足한 責任도 있겠지만 出品數量이 적다는 것은 他部門보다 作品當 所要되는 時間, 經費, 作業量 및 人員等이 他部門에 比較할수 없으리만치 莫大하다는 것을 모르는 말이고 內容이나 質的인 問題에서는 他部門보다 뒤떨어진 일이 없다고 본다면 그런 誤識이 除外의 理由가 될수는 없다. 要는 國展을 左右하는 몇몇 要人들의 建築에 對한 無識이 除外된 큰 原因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러면 建築界는 이 問題를 어찌할 것인가? 建築家協會가 當局에 몇번 Action을 取했으나 別無消息이다. 그러면 建築人들은 가만있을 것인가. 建築文化發展은 우리들이 할일이니 만큼 當局과 關係없이 建築人끼리 國展보다 더 훌륭한 建築展을 마련하는 일뿐이다. 方法은 있을 것이다. 即 三個協會가 協力해서 汎建築人들이 모여서 一大 建築展을 國展을 능가할만한 建築公募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當局에게 政策面에서나 經濟面에서의 支援을 바랄 것도 없고 他部門 藝術人들을 說得할 必要도 없고 오직 우리끼리 우리들의 일을 하면 될 것이다.

◆ 卧牛아파트 事件과 그以后에 對해서

해답자 정 만선

70년 4월8일 새벽 6시 4분경 대동건설의 날림공사로 인해 15棟의 5층 건물의 네 기둥에 19‰ 철근 7個를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 – 5개 밖에 넣질 않았기 때문에 중상 38名 사망 32名이

라는 끔직한 도괴 사건을 도발하고 말았다. 아직도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사항으로 세부적인 면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자. ……

그런데 이 비극의 터가 불과 7개월여 만에 서울市內의 27個 地區 401棟의 市民아파트 보강상태와 환경조성 等에 대한 우열을 가름하는 「아파트」競進大會에서 一等도 아닌 特等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흐뭇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1月26日의 이 競進大會의 發表를 듣기 위해 同아파트의 어떤 주민은 직장에 결근까지 하면서 심사결과를 초조히 기다렸으며, 麻生아파트가 1등도 아닌 特等을 차지했다는 發表에 주민들은 왔!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들 주민들에겐 정말 감격스러웠고 경사 스러웠으리라!

주민의 어떤이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하루빨리 이곳을 헤어나가야 겠다는 집념뿐이었어요. 길에서 친구를 만나도 麻生아파트에 산다는 말을 못했어요. 또 어떤때는 시골서 친척이 올라왔을 때는 제울곳이 없어 난처했어요. 아파트에는 한사코 들어 가지 않겠다지 뭡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 자리에 오늘의 영광된 위치를 차지하는데는 숫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아파트 참사에 크게 뉘우친 마포구청 직원들이 주야없이 보강공사에 심혈을 기우렸고 심지어 새로 부임한 韓鍾燮 구청장은 아예 천막을 치고 밤낮으로 붙어 살았다는 것이다. 그 어떤날은 억수같이 쏟아내리는 비를 사흘동안 꼬박맞으면서 현장감독을 하다가 그만 졸도까지 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는등 이로 인해서 官民의 誼가 크게 뭉쳐져 오늘의 결실을 갖어온 原動力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괴후엔 그냥 가져라해도 싫다할만큼 시세가폭락했던 것이 요즘은 90万원 이상을 홋가하며, 3.1지구 아파트 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지층 상가는 150万원 이상이라고 하며 TV는 약 200대 가량으로 4집에 1대꼴이며 전화는 교환전화로 120대가 가설되여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화제는 지면상 생략키로 할 수 밖에 없다.

◆工事監理 實施에 對해서

해답자 한 창/진

工事監理 實施에 對한 意見

우리가 著作하는 設計意圖를 具顯시킬 수 있고 示方書와 契約條件에 合致된 工事施工을 期할 수 있다는 觀點에서 切實히 바라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責任과 負擔이라고 할수 있다.

安易한 適當主義는 뜻밖의 結果를 招來할 수 있을 것이다. 施工者의 빈축을 살수도 있고 建築主의 不信을 가져오게 할수도 있다.

監理者는 이 兩者間에서 公正하게 그 協助者도 되고 성실한 相談役도 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아무튼 重要한 問題는 工事監理의 實施가 하나의 强制法規라는 image를 벗어나서 大衆이 그것을 바라고 하나의 當然條件이 될만큼 理解와 信賴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全的으로 우리의 할탓에 屬한다.

…現行 工事監理 實施에 對한 要望事項

첫째, 完全한 設計圖의 著作과 內譯書明細 및 內容에 對한 徹底한 검토가 基本이고 確實한 示方書와 契約條件이 그 公證이다. 契約時의 監理者의 協力은 重要하다.

둘째, 監理者는 單純한 간섭에 끝이는 간섭자가 아니고 施工者의 가장 가까운 協助者로서 工事의 指導를 겸해야 한다. 不斷의 硏究와 關心을 기우릴 義務를 가지며 施工主의 信賴를 얻어야 하는것은 勿論 施工主를 理解할수 있어야 한다.

셋째, 監理者에게 주어진 것은 職能上의 權限이지 權力은 아니다.

權力의 부여로 생각하는 것은 危險하다. 감정을 介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公平한 지도자이며 相談役이어야 한다.

넷째, 施工過程에서 多少의 變更은 關聯 法規上 基本的으로 違法이 되지 않은 限 監理者의 裁量이 許容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不幸하도 야기될수 있는 技術上의 見解差나 問議, 監理者의 횡포나 不實 또는 監理포기 등에로 비져지는 極限狀態 監理期間延長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야릇한 문제들을 解決해줄 수 있는 소청위원회랄까, 심판위원회 같은 감리지도 기구의 設置가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監理實施 以後의 業務量

設計業務와 別途로 一種의 기능자가 必要로 되었으며, 제대로의 監理業務를 施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機構가 必要할 것이다. 큰 現物 두개를 감당하자면 두개의 팀과 機構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이만저만의 業務量이 아니다.

◆高層建物 火災에 關하여

해답자 羅 相 振

今年들어서 發生했던 世運商街와 三一路 빌딩의 火災事件은 그것이 비록 큰 피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던져주는 問題點들로 因하여 建築界는 저널리즘의 통박한 공격을 면할 수 없었다.

대저 高層建物을 經濟的 社會的 要求에 依해 생기는 치밀히 계산된 必要惡的인 空間秩序로 보지 않고 어떤 부동산 投企나 센세이션으로 보는 CLIENT도 그렇거니와 거기 뇌동하여 CLIENT나 社會에 대하여 피부적인 만족만을 던져주는 建築家들도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高層建物의 만 問題點들은 차치하기로 하자. 적어도 高層建物의 火災에 關한한 우리들은 物理的 正確性을 가져야 한다. 正確性은 義務이지 美德이 아닐것이다. 적어도 建築家라면 우리는 正確性이란 義務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라. 正確性이란 그 義務마저도 放棄된채 온통 CHAOS 속에 방황하고만 있는 것이다. 建築家들은 그들의 作品으로 社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市民의 生命과 財産이 관계되는 火災에 관한한 한 市民으로서도 우리들의 市民社會에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高層建物의 火災에 관한 問題點의 核心은 우리 社會의 高層建物에 對한 短見과 建築家의 無責任에 있다 할것이다.

우리 社會의 短見이란 즉 設備費 對 全建築費의 RATIO를 낮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의 底邊은 겉치장만 적당히 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과 土地의 生産性보다 더 높은 生産性을 기대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安全性을 높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만한 高價의 設備費를 投資해서도 企業的 價値가 있는 建物을 세울만큼의 經濟的 배경과 企業精神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거나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없는 高層建物計劃은 必然的으로 낮은 설비비를 가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생적 시설과 安全性이 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建築家의 무책임이란 이런 諸事實들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無責任한 設計를 해주는 行爲인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社會的 短見을 깨우쳐야 하는 것도 建築家들의 使命이고, 建築家들의 無責任 이란 그 原因이야 어디있던 우리 時代와 社會를 탓하기 前에 우리 모두가 깊은 自省이 있어야 할것이다.

住宅과 國民性

任 東 權(서라벌 예술대학장)

人類가 山野를 헤매면서 짐승을 잡고 生活하던 때에는 住宅을 갖을 필요도 없었거니와 또 一定한 住宅을 갖을 수도 없었다. 季節을 따라 移動해야 하고 짐승이 많은 곳을 찾아 다니며 野營을 하면서 生活을 하였으니 이러한 時代에는 住宅이란 생각도 못했다.

사람이 따 먹을 수 있는 果木이 많은 곳이 발견되면 그 곳에 임시로 머물러 있다가 果實을 다 먹으면 다시 새로운 곳 즉, 짐승이 있거나 果實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가야만 生存이 可能했으니 한 곳에서만 住宅을 마련하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는 住宅이나 家具는 生存하는데 不可欠한 가장 最少限度의 것이 필요했을 뿐이고 오늘날 같은 住宅이란 개념은 없었다.

그러나 人類의 智慧가 發達하고 能力이 생겨서 農耕으로 充分한 食糧을 마련할 수 있는 方法이 마련됨에 따라 流浪을 버리고 一定한 곳에 定着하여 住宅을 갖게 되었다. 짐승을 쫓아다니고 季節을 따라 流浪하면서 生活할 적에는 簡易한 집이 必要했지마는 한 곳에 定着해서 農事를 짓게 되자 형편이 달라지게 되었다.

農耕生活을 위해서 住宅을 마련하려면 原始社會에서 필요로했던 寢室과 炊事를 위주로 하는 것 외에 穀物을 저장하는 창고와 器具를 간수하는 부속건물과 家畜을 위한 畜舍까지 지어야 했으니 규모가 커지고 살림의 程度에 따라 여러층의 住宅의 종류가 생기게 되었다.

家屋의 樣式은 풍토에서도 影響을 받았다. 雨量이 적고 많음이라든가 寒暑의 差에 따라서 資材와 位置構造를 달리하게 되었다. 비가 많은 地方에서는 지붕의 傾斜度가 다르고 추운 地方에서는 壁이 두껍고 더운 地方에서는 窓이 크고 많다. 이러한 現象은 風土에 의해서 家屋의 樣式이 特徵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韓民族은 「農者天下之大本」으로 삼는 農耕民族이다. 따라서 農耕生活에 알맞는 家屋을 마련하고 살아왔다. 또 韓民族은 큰 差가 없는 비슷한 風土的條件下에서 살아왔다. 그 結果에 있어 住宅樣式도 비슷한 形態로 나타났다. 農事로 얻은 짚으로 지붕을 하고 山에서 많이 生産되는 松木으로 建築材로 썼으며 西北風을 막기 위해서 山의 南이나 東南쪽에 집터를 잡고 南向으로 집을 지었다. 이러한 一般性은 바로 國民生活, 國民性과 關係를 갖는다.

住宅은 터를 잡고, 方向을 定하며 建築하고 그 속에서 사는데 있어 家具 裝飾, 衣服과 娛樂 및 慣習은 國民生活의 特徵을 나타나게 된다.

韓國에서는 집터를 잡고 方向을 定하는데 風水思想이 作用했다. 藏風得水에서 온 말인바 天父地母思想에 根據를 두고 大地의 生産力에 着眼하여 旺盛한 地氣의 德을 받고 하는 方術의 하나이다. 即 大地에는 地氣가 있으니 地氣가 集中하여 地力이 旺盛한 곳을 擇하여 陰宅이나 陽基를 마련하므로서 地德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것이 所謂 明堂이다.

집을 明堂자리에 지으면 發福한다는 생각은 過去에 一般的인 思考方式이었다. 人間의 運命을 스스로의 힘이나 努力으로 解決하려고 들지 않고 明堂을 찾아 집터를 잡고, 묘자리를 잡으므로 解決하려는 것이다. 風水가 經濟地理와 關係가 있어서 藏風하여 溫和한 곳은 生活하기가 좋고 또 河川이 있어 水利에 便하며 現實的으로 生活이 潤澤한 것이니 科學的인 根據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것을 지나치게 믿고 明堂을 찾으려는 생각에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집을 지을 때에 坐向을 본다. 즉 어느 쪽을 向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問題를 檢討한다. 近來에 都市에서는 이미 定해진 道路를 감안해서 坐向을 定할 수밖에 없지만 農山村에서는 太陽을 向해서 南向을 잡는 것이 一般的이나 在來의 慣習에 따라 民族的인 思考가 加해진다. 여기에는 風水的인 생각도 作用하지마는 家主의 四柱나 地形 또는 年月에 따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定한다. 또 사람이 出入하는 大門의 方向이 家運과 關聯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農山村에서 이미 마련된 大門을 막고 새 方向으로 大門을 내는 수가 있으니 이런 例는 大門의 向이 나빠서 家運이 좋지 못하거나 惡運 또는 厄이 있다고 믿는데서 그렇게 하

는 것이다. 生活의 便宜에 의해서가 아니고 俗信에서 하는 것도 오랜 國民生活 속에서 빚어진 것이다.

집터를 잡고 坐向이 決定되면 建築에 들어 가는데, 집을 짓기 시작하기 앞서 地神을 慰安하고 告하는 儀式이 있다.

아니미즘 (Animism)에 의하면 万物에는 神이 있다고 하는바, 大地에도 여러 神이 있어서 山을 맡고 있는 여러 山神이 있고 집터를 맡고 있는 地神인 터주(基主)가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는 터주에게 아무게가 집을 짓겠다고 告하는 地鎭祭를 지낸다. 터주에 알림도 없이 役事를 하면 터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禍를 입거나 家運에 厄이 있어 發福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新築에 앞서 터주를 慰安하고 祭祀하는 民俗이 생긴 것이다.

韓國民家의 樣式은 ㄱ字집 ㄷ字집 一字집 겹집 等 몇가지 形態가 있으나 主屋은 안房 大廳마루 건넌방 부엌이 있고 때로는 골房과 다락과 사랑房이 붙는 수가 있다. 附屬建築으로서 畜舍, 庫間 뒷間 等이 있기 마련이다. 地方에 따라 또는 生活程度에 따라서 多數의 差異는 있으나 一般的으로 이와 같은 構造가 마련 되고 있다.

家屋안에는 여러 神들이 坐定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大門을 들어서면 門神이 出入을 단속하고 있으며, 대들보에는 成造神이 있어 家屋안에 있는 神中에서 主神役을 맡고 있으며, 아궁이에는 竈王神, 庫間에는 業主가 있고 便所에는 정지鬼가 있다. 이밖에도 장독대, 마당, 부엌, 畜舍에 제각기 맡고 있는 雜神들이 있다고 傳한다.

年初에 吉日을 擇해서 安宅을 지내고 또 十月에 主로 午日을 擇해서 고사를 하는 것은 諸家神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家運의 隆盛을 祈願하는 것이다.

조왕神은 아궁이에 坐定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뚜막에 걸터앉는 것은 禁忌되어 있다. 조왕신이 섣달 중순을 지나 하늘에 올라가서 玉皇上帝께 집안에서 一年동안 發生한 일을 모조리 報告하고 그믐날 내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惡行을 저지른 사람은 조왕神의 입이 벌려지지 않아서 報告를 하지 못하도록 아궁이에 갯엿을 바르는 수가 있다.

庫間이나 노적가리에 있다는 業主는 財産神이다. 業이 있으면 財産이 維持되고 더 나아가서는 늘어난다. 그러나 業이 나가면 따라서 財産도 줄고 때로는 破産을 하게 되어 敗家를 한다는 것이다. 業은 쪽제비, 배암, 두꺼비 等이 神体가 되는 일이 많으니 이러할 때에 그 動物을 죽이는 것은 곧 業이 없어지는 것이니 업을 죽이는 것은 禁忌 되어 있다.

장독대 근처의 土石은 함부로 役事를 하지 않는다. 장독대는 不淨해야 하고 神聖한 곳으로 神域처럼 여겨지고 있다. 平地보다는 조금 높게 마련하며 不潔한 것의 接近을 禁하고 淸水를 올려 精誠을 보인다.

안房이나 또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房에는 産神이 標示되어 있다. 産神은 俗稱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는바 子息이 있고 없고, 또는 순산하고 난산하고 하는 것은 모두 産神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富貴多男한 것을 理想으로 삼았던 옛 사람들은 多男하고 壽長하기를 삼신할머니께 간절히 빌었던 것이다.

房안에서 人生의 吉凶을 占치는 方法도 있었다. 아침에 거미가 天井에서 내려오면 吉兆이고 그와 反對로 저녁에 거미가 내려오면 凶兆로 여기고 있다. 아침에 東쪽에서 까치가 울면 科擧에 及第할 徵兆이니 吉兆이다. 이러한 俗信도 住宅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福德房영감들이 집사려 온 사람에게 「東向大門에 南向판의 좋은 집」이 있다고 말을 흔히 한다.서울의 平民의 典型的 家屋이 ㄷ字 型인데서 하는 말이다. 南向은 太陽을 向해서 있기 때문에 늘 햇볕이 있어 雜病이 없어 衛生的이라고 하거니와 그 것보다도 南向일 때 大門이 東向이면 可하나 西向이면 敗家의 징조라고 해석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南向판의 東向大門일 때에 主婦가 부엌에서 주걱으로 솥에서 밥을 퍼는 姿勢는 大門밖에 있는 福을 긁어드리는 姿勢이니 吉한 것이고, 그와 反對로 西向大門일 때에는 主婦의 주걱 손질이 마치 집안의 福을 門밖으로 퍼내는 格이 되므로 사람들이 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南向판 집일 때에는 東向大門이어야 하지 西向大門은 敗家之兆가 된다.

ㄷ字型의 집이 南向판일 때에는 장독대의 位置가 집 뒤가 아니고 집앞 마당에 있어야 한다. 空間의 처리 보다는 ㄹ字型이 된다는 民俗信仰에서 그렇게 解釋되고 있다.

韓國의 家庭에서는 불씨를 꺼치지 않고 잘 간직하는 慣習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라이타가 있고, 값이 싼 성냥이 얼마든지 있어서 불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으나 그러한 것이 없어서 부시돌로 불을 살

여야 하던 時代에 있어서는 불씨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으니 主婦는 불씨를 간수하는 任務를 맡아야 했다. 며느리가 불씨를 잘 못해서 꺼뜨리면 이웃에 가서 얻어와야 했으니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그러한 慣習에서 요즈음 서울에서도 移徙가는 사람이 煉炭불을 가지고 가는 것은 煉炭불이 사르기 어렵다는 것보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간다는 데에서 福이 連結된다는 俗信에 의한 것이다.

溫突은 韓國家屋의 特徵이다. 溫突이 山의 樹木을 없애고 山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經濟的으로 피해를 주었거니와 身体的으로도 缺陷을 주었다.

溫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을 때보다 발을 개고 앉을 때가 많다. 무릎을 꿇면 바닥이 딱딱하니 바로 절리고 아파서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발을 개고 앉는 姿勢를 取하게 된다. 그 結果에 허리가 굽고, 일어서면 무릎이 붙지않고 벌어지며, 걸을 때에 발끝이 밖으로 나오는 八字걸음이 된다.

溫突은 우리의 生活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우리는 溫突에서 자라고 生活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溫突文化를 形成하고 溫突生活이 주는 國民性을 지니게 되었다.

便器로 쓰는 요강은 뒷간을 멀리 짓고 溫突에 사는 生活의 副產物이며 韓服은 溫突房에 알맞는 衣服이다. 洋服은 발을 개고 溫突房에 앉기에는 不便하다. 치마나 바지는 폭이 넓어서 앉기에 便하다. 韓服이 非生活的이란 비난은 듣지만 溫突房生活에는 적격이다. 衣藏 門匣 반다지도 좁은 房의 家具로서 알맞다. 溫突房은 保溫때문에 넓지 못하니 좁은 스페스를 活用하고 裝飾하기에 적당한 家具가 考案된 것이다.

溫突房이기에 장판을 해야 했고 오래 쓰기 위해서 콩댐을 하였으니 壁紙와 天井紙의 圖案도 古典的인 情趣를 풍기게 되었다. 장판房 아랫목에 보료를 깔거나 아니면 大廳에 花紋席을 깔고 伽倻琴을 타는 것은 韓國의 멋중에도 멋이니 壁에는 四君子나 書画가 걸려 있어야 한다. 伽倻琴과 書画는 音樂과 美術의 調和를 이루어 藝術性을 보여주었으니 韓國住宅의 고요하고 悠長한 雰圍氣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붕과 부연의 느린 曲線은 서둘지 않는 沈着性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따뜻한 溫突房에 모여드는데서 韓國家庭의 人情어린 情緖가 形成되었다. 大家族을 連結시키는 家族制度와 어른을 尊敬하는 長幼秩序도 溫突房의 雰圍氣 속에서 더욱 자랐던 것이다.

溫突房은 乾燥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登箋불을 켜놓던 時代에는 더욱 乾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房안에는 숭늉그릇이 있고 겨울밤에도 차거운 동침이 국물을 마시게 된다. 윷놀이나 종경도놀이에 밤이 깊었을 때에는 냉수 또는 동침이 국물로, 목을 축인다. 윷놀이와 종경도놀이도 溫突房에 알맞는 娛樂이다.

中國人의 住宅은 窓이 작아서 房이 어둡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둠컴컴한 房이 들어가면 「中國홋떡집 같다」는 말을 한다. 房이 어둔 것처럼 中國人들은 自己의 마음속은 남에게 밝히려들지 않는다. 그러나 韓國의 住宅은 光明을 向해서 窓을 내고 窓에서 밖을 내다본다. 窓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은 속을 시원하게 하고 또 窓을 通해서 속을 보여도 거리낌이 없게 여기고 있다.

窓이나 大廳 또는 뜰에서 훤히 트인 앞을 내다보는 것은 사람의 度量을 크게 한다. 窓을 열고도 하늘을 볼수 없는 것은 大自然과의 接觸이 막혀있고 갇혀서 살게 되니 사람의 됨됨도 옹색해진다. 그런 意味에서 볼 때에 農家의 훤히 트인 住宅은 비록 文明의 惠澤은 못받고 있으나 自然을 滿喫하고 있으며 요즈음의 都市의 住宅처럼 窓門을 열면 장독이나 앞집 담으로 가린 住宅에서 成長하는 것은 사람의 度量이 옹색해질 可能性이 있어 再檢討해야할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집에서 산다. 제집이건 남의 집이건 집을 지니고 있다. 집에서 生活을 營爲하고 중요한 일들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子息을 낳고 기르고, 家庭을 꾸미고, 일을 構想하고 대개가 집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집에는 情이 있고 저녁이 되면 나갔던 사람도 집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집에서 사는 동안에 내 意思에 따라 집을 改造하고 새로 設計하고 創作함도 있으나 집에서 사는 동안 그 構造의 影響을 받고 있다.

안房은 內室이니 主로 婦女子가 쓰고 뜰아래 사랑房은 男性과 來客을 爲해서 使用되며, 같은 房에서도 따뜻한 아래목은 어른을 위한 곳으로 여기는等 民俗性이 成立되고 國民全体의 생각이 集約되어 國民性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住宅이 단순히 우리가 起居하는 곳으로 使用될 뿐 아니라 國民性形成에 作用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住宅을 지을 때에 現實의 問題만을 解決할 것이 아니라 未來의 問題, 未來의 國民性形成을 十分檢討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建築士法 改正案의 廢棄를 보고

崔 鄕

全國의 建築設計를 法에 依해 專担하고 있는 建築士의 權益擁護와 親睦 그리고 技術的質的 向上을 研究檢討해서 보다 優秀作品을 著作해서, 國家에 이바지하여 建築主의 慾求를 充足시킨다는 大命題下에 特別法에 依해 設立된 大韓建築士協會의 存廢의 運命을 판가름 하는 建築士法中 改正法律案 國會建設委員會 與黨幹事인 柳光鉉議員外 23名의 이름으로 發議 國會에 上程하게되자 同改正案의 妥当性을 主張하는 側과 이는 時機尚早라고 主張하는 側面에 異見을 露呈시키면서 甲論乙駁, 한때에는 建築界의 分裂의 憂慮까지 사게한바 있었으나 이번 國會會期中에 通過를 보지못하며 自動廢棄 됨으로서 모든 論爭은一段落을 보았다.

그間의 經偉를 더듬어 보면 提案者인 柳光鉉議員은 現行建築士法中 第22條에 明文化되어 있는 (設計圖書의 登錄) 建築士協會의 會員이 著作한 設計圖書는 建築士 協會에 登錄을 받은 후가 아니면 行事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 條項이 立法精神에 違背될 뿐만 아니라 東西古今에 없는 惡法이라고 指摘 全文削除를 改正案의 主要骨字로 하고 있는데 提案 理由로서는 現行建築士의 資格을 所定의 學歷을 가진者로서 一定한 期間동안 實務한 經驗을 가진者만이 國家考試에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國家考試에 合格한 者만이 該当建築設計를 할 수 있도록 規制하고 있음으로 建築士의 資格을 가진者가 設計한 圖書는 어디에 登錄을 할 必要조차 없이 行使하여야 된다는 点과 또한 協會 會員이 著作한 設計圖書를 協會에 登錄하지 않으면 行事할 수 없도록 規制하면 서울이나 道廳所在地에서는 傘下支部가 있어서 登錄하는데 있어서 큰 不便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른지 모르나 地方의 경우 市郡所在地에는 支部가 없음으로 設計圖書를 登錄하기 위하여 道廳所在地 등 建築士協會가 設置된 곳을 다녀와야 됨으로 時間的 또는 事務簡素化에 逆行한다고 하여 提案한 것이다.

더우기 柳議員은 이 法案을 國會에 提案 하기에 앞서 所屬政黨인 共和黨 政策委員會에 同改正案을 提示하여 檢討를 加하는 節次를 밟은바도 있는데 이때 共和黨에서는 이 改政案에 對한 一般의 衆論을 把握하기 위하여 建築界 3個團体에 對해서도 意見을 聽取한바 있는데 그中에서도 建築學會에서는 口頭提言에서나 또는 公文으로서 同法 第22條는 마땅히 削除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建築家協會側도 削除하는 것이 좋다는 方向으로 意見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建築士協會側은 建築統計를 위해서나 會員의 團束을 위해서 必要하다는 式으로 大義名分이 서지않는 理由를 들어서 反對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界內에서도 意見이 엇갈리게 되어 꼭 있어야된다는 必要性에 對한 絶對的인 名分이 서지 않게되자 黨으로서는 이 改正案이 理由있다고 간주하고 國會의 提案을 認定하며 柳議員은 5月29日 國會建設委員會 同僚議員인 車亨根議員등 23名의 同意를 얻어서 國會에 提出 建設委員會가 同30日字로 接受하여 審議에 着手하였던 것이다.

前記한바와 같은 經路를 거쳐서 同改正案이 國會에 上程하게 되자 同條項의 削除를 歡迎하는 側에서는 提案議員은 勿論 各界 要路에 對하여 激勵

와 聲援을 보내면서 이번 會期內에 通過를 바랐던 것이며 反對하는 建築士協會側은 이를 沮止하기위하여 안간힘을 다한바 있으나 守勢에 몰리면서 不利한 位置에 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改政案의 支持側이 優勢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때에는 4月8日 새벽6시 서울市에서 庶民아파트로 建立한 卧牛 아파트가 崩壞하면서 아파트 入住者 15世帶 70名中 死亡 32名 負傷38名이라는 建築史上 보기드문 不祥事의 發生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水原 市民會館의 崩壞 仁川驛前建物의 倒壞등으로 建築施工에 徹底를 期해야 하겠다는 衆論이 高潮되어 있을 때이며 建築士의 無資格 無免許者들이 設計 또는 施工監理 를 하고 있어 事故發生에 警鍾을 울리고 있는 때인지라 同法改正案의 審議에 있어서 愼重을 期해야 된다는 輿論이 높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6月 臨時國會에서는 同改正案의 審議를 一段保留하고 9月 定期國會에서 다루도록 하였던 것인데 이번 會期에서 國會建設 委員會는 7代 國會에서의 事實上 마지막 會期라는 点에서 徹底한 國政監査를 期하는데 專念하였고 그후는71年度 예산審議過程에서 難產에難產을 거듭한 나머지 이에 많은 時間을 빼앗기고나니 一般案件 審議에는 時間에 쫓기게되었다.

그中에서도 河川法 建設業法 測量法 公營住宅法등 改正法律案에 對하여서는 與野가 異見없이 法律審議小委에서나 常任委員會에서 通過시켰으나國策遂行에 있어서 利害와 見解를 달리하는 都市計劃法과 土地收用法改正案 그리고 議員發議인 道路法中 改正法律案에 對해서는 與野가 끈질긴 協商努力을 한 바 있으나 結局合意를 보지못함 으로서 一般案件審議의 時間을 完全히 빼앗기고 만것이다.

또한 建築士法改正案은 黨部, 建設委의 柳光鉉 車亨根, 韓泰日, 金炯一議員등 거의 常設的이었던 法律審議小委에 廻付시킨바 있었으나 提案議員은 法案審議에 提案發言만 할 수 있고 審議權을 주지 않는다는 委員會 運營方針에 따라 別途 法律審議小委인 李賢宰 李重載, 崔翊圭 議員등의 班에서 審議하게 된바 있는데 이 小委는 12月18日 會議에서 廢棄의 決定을 내림으로써 事實上 廢棄된 것이다. 常任委員會에는 時間關係로 上程도 못하여 7代國會의 事實上閉幕을 뜻하는 12月24日 國會의 終幕으로 一段落을 지었다.

特히 國會法上으로 보아 一事不再理原則에 依하여 同一會期內에 廢棄한 案條은 다시 上程시킬 수 없으며 7代國會가 끝나면 밀린 案件은 自動的으로 廢棄되도록 되어있어 事實上 完全히 廢棄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와같은 주어진 與件으로서도 同法案의 改正案은 廢棄되었지만은 側面에서의 作用도 度外視할수 없었다는 事實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同改正案의 審議를 俎上에 놓은 막바지에서, 建築士協會側은 姜奉辰會長을 中心으로한 任員陳 全員이 이 改正案의 通過를 沮止하기 위하여 强力한 對策을 講究하고 妥当性있는 理由를 提示하여 注目을 끌게한 바도 있는데 그 中에서도 現在 우리나라는 建築士의 絶對不足을 느끼고 있으며 特히 建築許可를 担当한 行政官署의 關係官마저 有資格者가 不足하다는 實情을·강안하여 볼 때, 建築士協會는 보다 健全한 建築을 위하여서는 圖書登錄制를 利用하여 建築物의 安全度등을 檢討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外에도 無免許建築士 또는 似而非建築士들의 不法違法 非違등을 막기위하여서는 圖書登錄制의 存續 없이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强力反論을 展開하여 立法府에서도 現時点에서는 이와같은 制度의 必要性을 認定하기에 이른것이다.

그러나 國會의 輿論은 提案者였던 柳光鉉議員을 비롯하여 與野의 議員들이 異口同聲으로 이번에建築士法案 22條의 削除는 廢棄시키지만은 이 條項이 惡用되어서는 안될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條項을 活用해서 建築設計의 万全을 期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이와같이 波瀾万丈의 "코스"를 달리면서 注目을 끌어오든 建築士法 改正에 對한 論爭은 廢棄되어 一段落을 지었는데 이로써 이問題가 建築界에 있어서 다시 再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지금에 있어서는 過去를 잊어 버리고 衆論에 따르는 民主方式을 各自가 수긍하고 앞으로는 建築界의 發展을 위하여 大同團結해야 될 좋은 契機를 마련했다고나 보아야 할 것이다.

特히 여기서 附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建築設計가 一般과의 直接的인 關係를 맺고 있는 以上 建築士들은 一般의 期待에 어긋남이 없도록 副應하는데서만이 支持를 받을 수 있다는 事實도 銘心하기바라면서 建築士法 改正案의 廢棄를 무엇보다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社團法人 韓國建設問題 硏究所長)

論壇

高層建物 抑制解制를 위한 나의 小考

徐 廷 達 (大韓建築士協会 理事)

1. 人口의 都市 集中으로

政府의 一, 二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과 아울러 계속 三次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本人은 当局에서 都心地 建築物 抑制策에 対해서 그 解制方案을 다음 몇가지의 事由를 들어 설명하고져 한다.

지금 우리의 首都 서울은 해마다 40萬名의 人口가 늘어나는 過密過大都市로서 변모해 가고 있다.

政府는 지난 十月 一日을 기준으로 実施한 우리나라 總人口 및 住宅調査의 暫定集計한 結果 總人口数는 3천1백46만9백94명으로 밝혀졌고, 또한 家口数는 5백85만7천9백43으로 나타났다.

이 暫定集計에 의하면 十年前에 비해서 人口는 25.9%, 家口는 33.8%로 各各 增加하고 있다.

또 서울과 釜山의 人口가 7백39만으로 總人口의 23.5%를 차지하는 都市人口의 急增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서울의 人口는 十年前인 60年에 2백44만5천4백2명이었던 것이 10年後인 今年 十月一日 現在 一·二五倍나 되는 5백50만9천9백93명으로 急增한 것은 世界에서도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폭발적인 增加率이라고 한다.

世界 一백40個國中에서도 4째번에 属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都市의 人口急增 추세와는 달리 穀倉地帶인 全南北을 비롯한 忠南北, 慶南 等地의 人口는 66年부터 暫次的으로 減少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農民들이 農土를 등지고 서울과 釜山等地의 大都市로 移住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政治, 經濟, 文化의 中心地인 서울을 除外한 모든 地方都市가 각기 뚜렷한 個性이 없는 3次産業위주의 소비도시겸 複合都市로 發達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都市가 비슷할바엔 기왕이면 서울에 가서 지겟벌이라도 하는 것이 더낫다는 일반적인 通念과 出世를 하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는가 서울에서 아무리 못산다해도 시골보다는 잘 든다는 等의 現実이 이와 같은 人口增加의 原因이 되고 있다.

2. 無住宅家口를 위해서

이와같이 都市人口 急增으로 因해서 住宅難 의 극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現況을 보면 全体家口数는 60年의 4백37만7천9백73家口에서 70年 十月一日 現在로 5백85만7천9백43 家口로 늘어났고 家口当 平均 人員数는 5.71名에서 5.37名으로 減少해졌다.

이는 大家族制度로 부터 該家族化하여가는 경향의 原因으로 간주하고 있다.

全國的으로 市都別의 十年 동안의 家口現況은 全部 增加했으며 서울의 경우 44만6천8백74家口에 不過했던 것이 70年 十月一日 現在로는 1백9만1천15家口로 二倍以上이나 急增하고 있는 것이다.

全國의 總家口数는 5백85만7천9백43 家口에 비해 總住宅数는 4백43만9천8백45棟이므로 無住宅家口数가 무려 1백49만2천家口나 된다는 結果가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적으로 住宅難의 심각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서울은 住宅数가 59만3천3백70棟에 家口数가 1백9만1천15家口에 비해서 無住宅家口가 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이 人口의 都市急增化의 현상을 감안해서 좁은 収容面積이나마 空間의 善用으로 因한 建築物抑制는 解制되여야 하지 않을가 한다.

3. 近代都市의 美觀点에서

十一月 二十六日은 서울市가 特別市로 昇格한지 스물 네 돐이 되는 날이다.

서울이 解放 후 特別市로 昇格될 때의 人口는 불과 90만 1천名이던 것이 그로부터 24年이 지난 지금의 서울은 5백50만名으로 東洋에서 第二位요 世界에서 第十位의 큰 都市로 發展했다.

首都 서울의 이와 같은 急激한 發展은 우리 國力의 充実을 상징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의 이러한 發展은 실은 人口의 폭발적 팽창이 가져온 기형적인 發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市는 人口로 보면 世界 第十位라는 큰 都市이지만 近代都市로서의 제반 機能과 施設이 잘 갖추어진 都市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先進國에 비하면 그 施設面이 너무 落後해 있으며 눈만 약간 쌓여도 交通의 혼잡과 그 機能이 마비상태가 되고하니 말이다.

이렇듯 우리의 首都 서울이 國際的 文化都市로서 自負하기엔 아직도 建設의 여지가 너무나 無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最近 世紀的인 建築學者이며, 美國建築界의 大家인 MIT 建築大學長인 벨루스키씨는 途中 우리의 首都 서울이 世界的인 大都市로서 크게 發展할 수 있는 훌륭한 因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統計表◇

'66~'70 人口動態現況表

	1966	1970	'66対比
全 國	29,159,640	31,460,994	+ 7.5%
서 울	3,793,280	5,509,993	+45.3%
부 산	1,426,019	1,878,785	+31.8%
경기도	3,102,325	3,361,730	+ 8.4%
강원도	1,831,185	1,873,908	+ 2.3%
경 북	4,472,895	4,564,572	+ 2.1%
제주도	337,052	365,307	+ 8.4%
충 북	1,548,821	1,483,153	− 4.2%
충 남	2,902,941	2,863,686	− 1.3%
전 북	2,521,207	2,433,819	− 5.4%
전 남	4,048,769	4,009,236	− 0.9%
경 남	3,718,371	3,116,805	− 1.8%

※위의 人口 動態로서 서울과 부산 等 都市의 人口가 急增한 反面 農村에는 減少함을 알 수 있다.

家口의 構成內容

구 분	家 口 数	住 家 口	同居家口및 非住宅家口
全 國	5,857,943	4,366,242	1,491,701
서 울	1,091,015	582,906	508,109
부 산	371,922	207,381	164,541
경 기	641,281	474,454	166,827
강 원	352,493	281,808	70,685
충 북	262,184	223,647	38,537
충 남	500,267	426,462	73,805
전 북	427,332	360,092	67,240
전 남	703,932	593,682	110,250
경 북	850,301	655,192	195,109
경 남	574,219	490,721	83,498
제 주	82,997	69,897	13,100

※同居家口는 한 住宅內에 세든 家口이며 非住宅家口는 住宅以外의 居処(상가, 판자집 등)에 사는 家口임.

住宅一覽表

区分 / 市都別	總計	住宅 現住	数 空家
全 國	4,439,845	4,366,242	73,603
서 울	593,370	582,906	10,464
부 산	212,596	207,381	5,215
경 기	482,925	474,454	8,471
강 원	287,523	281,808	5,715
충 북	228,256	223,647	4,609
충 남	432,569	426,462	6,107
전 북	365,519	360,092	5,427
전 남	599,768	593,682	6,086
경 북	668,158	655,192	12,966
경 남	497,811	490,721	7,090
제 주	71,350	69,897	1,453

※空家는 建築中인 住宅이 包含되어 있음.

家口数 現況表

	1960	家口当人員	1966	家口当人員	1970	家口当人員
全 國	4,377,973	5.71	5,132,910	5.68	5,857,943	5.37
서 울	446,874	5.47	725,130	5.23	1,091,015	5.05
부 산	211,101	5.51	272,730	5.23	731,922	5.05
경 기	493,060	5.57	553,860	5.60	641,281	5.24
강 원	308,088	5.31	318,060	5.76	352,493	5.32
충 북	231,844	5.91	262,930	5.89	262,184	5.66
충 남	415,790	6.08	484,620	5.99	500,267	5.72
전 북	409,667	5.85	421,970	5.97	427,332	5.70
전 남	605,558	5.87	671,770	6.03	703,932	5.70
경 북	667,864	5.76	784,130	5.70	850,301	5.37
경 남	523,819	5.76	563,850	5.63	574,219	5.43
제 주	64,308	4.38	73,860	4.56	82,997	4.40

※위의 家口数 現況表로서 家口数의 人員이 점점 減少된 것은 大家族制度로 부터 핵가족화하여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4. 建築資材業의 育成을 위해서

祖國近代化作業인 一, 二次 經濟開發計劃의 成功과 三次經濟開發計劃의 出發인 現時点에서 都心地의 建築物抑制策으로 因한 그 영향으로 國内 資材生産에도 종전의 復興一路에 있든 國内産業은 飛躍的인 建設의 發展相에 고무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며 널리 國際市場開拓을 위해서 안간힘을 경주해 오는 建材産業에 큰 타격을 助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十一月 十日 当局에 建議한 項目은

一. 國内生産品인 建材는 거의 過剩狀態下에 있음.

二. 建築에 使用되는 建材의 量은 적은 것으로 物価를 자극할 程度는 못되는 点.

三. 서울市 都心地 一帶에 対한 建築許可抑制措処는 実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実情으로 그 例로서

㉮ 用途目的変更으로 建築을 할 우려가 크다.

㉯ 都市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하지 못하고 있다.

㉰ 現代都市美化에 큰 支障을 招來케 하고 있다.

㉱ 國民의 基本权인 私有財産权이 侵害되고 있다.

㉲ 一部地域의 建築抑制만으로는 都市人口 集中防止策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 勤勞者의 勞動增大에 支障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理由로서 当局에 建議를 했다.

지금 서울市는 江南地域開發, 副都心建設, 都心地美觀地區建設計劃 等을 推進하고있다. 当局은 보다 積極性있는 計劃으로서 人口의 분산과 旧都心地가 안고있는 불결스런 낡은 헌옷들을 걷어 치우고 無限한 空間의 善用으로 無住宅國民에겐 내 집을 갖는 기쁨과 더불어 모든 産業發展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各 分野에 걸쳐 調和있는 政策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바랄 뿐이다.

※統計表는 經濟企劃院 一九七〇年 總人口 및 住宅調査暫定報告에 依함.)

이지음 우리의 首都 서울은 一見 규모면이나 空間造型面에서 볼 때 많은 進展을 보고 있는 것은 事実이나 그와 反面 都市空間의 視覺的 불결도 대응적으로 助長되여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와같이 都市의 空間이 視覺的인 均衡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히려 市民들은 視覺的 내지 心理的인 面에서 그 어떤 不安과 혼란을 助長할 우려도 없진 않을 것이다.

이런 関点에서 볼때 建築士는 아름다운 庭園을 가꾸는 庭園師 처럼 쓸모있는 建築物을 세워서 都市의 開發을 積極化하여 均衡的인 都市의 美를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首都 서울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都市의 空間을 점유한 군데군데의 高層建物의 雜立으로 말미암아 市民들의 視覺的인 不安과 心理的인 不安意識에서 하루속히 解除시켜야 할 것이다.

빼죽 빼죽 집만 높다랗게 올려 세울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庭園모양 均衡美가 있는 서울, 그 규모도 크면서 視覺的으로나 心理的으로나 安定되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民族의 首都, 우리의 서울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当局의 建物抑制策에 対한 배려는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여기 저기 콘크리트의 흉물스러운 어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괴이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는듯한 요즘의 서울의 모습이 하루속히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서 國際的文化都市로서의 위풍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建築法解說

박우하 (건설부건축과장)

第 2 章 建築物의 垈地, 構造 및 建築設備

法第 9 條 (垈地의 安全等)

① 垈地는 排水에 支障이 있거나 이와 隣接하는 道路面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垈地內의 排水에 支障이 없거나 建築物의 用途上 防濕의 必要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湿한 土地, 出水와 憂慮가 많은 土地 또는 廛埃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埋立된 土地에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盛土, 地盤의 改良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垈地에는 雨水 및 汚水를 排出하거나 処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下水管, 下水溝 또는 溜水탱크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을 하여야 한다.

④ 損潰의 憂慮가 있는 土地에 垈地를 造成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擁壁을 設置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 1 項은 道路, 建築物의 垈地 및 垈地內의 建築物의 地盤面의 높이의 相対的関係에 対해서 第 2 項, 第 3 項은 垈地의 盛土, 排水等의 施設에 対해서 第 4 項은 擁壁의 設置 기타 安全을 위한 措置에 対해서 原則的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27條 (下水管等의 材料)

法第 9 條第 3 項에 規定하는 下水管, 下水溝 기타 이와 類似한 施設은 耐水材料 또는 鑄鐵로 만들어야 된다.

法第10條 (構造耐力)

① 建築物은 自重, 積載荷重, 積雪, 風圧, 土圧, 水圧, 地震 기타 衝撃에 対하여 安全한 構造를 가져야 한다.

② 第 5 條第 2 号 및 第 3 号에 該当하는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構造計算에 依하여 構造의 安全性을 確認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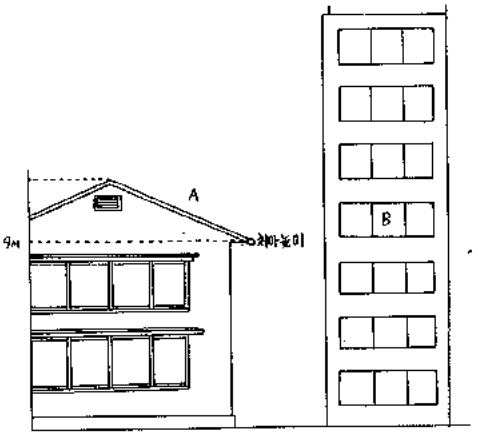
第 1 項은 建築物의 構造는 予想되는 荷重 및 外力에 対해서 安全하지 않으면 안될 原則을 規定한 것이다. 第 2 項은 法第 5 條第 2 号, 第 3 号에 該当하는

(a) 延面積이 3 百平方미터 以上이거나 3 層以上인 木造의 建築物

(b) 延面積이 2 百平方미터 以上이거나 2 層以上인 木造以外의 建築物에 対하여는 建築할 때에는 반듯이 構造計算에 依하여 構造의 安全性을 確認하여야 한다.

法第11條 (大規模 建築物의 主要構造部)

① 높이 13미터以上 또는 처마의 높이가 9 미터以上이거나 延面積이 3 千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지붕을 除外한다)는 木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높이 13미터以上 또는 처마 높이 9 미터以上의 建築物은 主要構造部(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石造, 煉瓦造, 콩크리트부록造, 無筋콩크리트造 기타 이와 類似한 構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特別한 補强을 함으로서 構造計算에 依하여 그 構造의 安全이 確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項은 平時 또는 非常時에 있어서 建築物이 받은 災害는, 火災, 震災, 기타 많은 種類가 있다. 이들 災害에 依해서 生기는 建築物自体의 被害및 附近에 미치는 損害의 程度는 建築物의 높이 또는 크기에 따라서 甚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 各種의 災害에 対한 抵抗性도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의 構造方法의 種類에 따라 많은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主要部分의 構造의 種類와 許容할 수 있는 높이 또는 크기의 關係를 規定한 것이다.

A, 木造 또는 主要構造部(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가 石造, 煉瓦造, 콩크리트부록造, 無筋콩크리트造等의 建築物.

B; 鐵筋, 鐵骨콩크리트造 또는 木造 以外의 構造로서 特別한 補强을 하여, 構造計算上 安全한 建築物.

第2項은 特히 地震, 기타의 震動, 衝擊에 対한 構造耐力上의 必要로부터 第1項의 要求에 附加된 規定으로서 但書의 規定에 依한 補强을 하지 않을 때에는 組積造와 같은 構造 또는 無筋콩크리트造를 禁하고 있다. 이 項에서는 延面積의 限度는 規定하고 있지 않다.

法第12條(防火地区外의 区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

① 市長, 郡守는 防火地区外의 市街地로서 防火上 特히 必要한 때에는 区域을 指定公告하고 当該地域 안에서의 建築物 構造를 制限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規模, 用途및 構造制限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項은 市長, 郡守가 防火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防火地区外에서 区域을 指定公告하며 建築物의 構造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第2項은 建築物의 規模, 用途 및 構造制限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大統領令으로 規定하도록 委任하고 있다.

令第91條(防火地區外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等)

① 防火地區外의 市街地로서 市長, 郡守가 防火上 特히 필요하여 法第12條第1항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한 區域內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亭子類의 建築物 또는 延面積 10平方미터未滿의 倉庫,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
2. 木造建築物의 外壁中 延燒할 憂慮가 있는 部分의 壁은 延燒를 防止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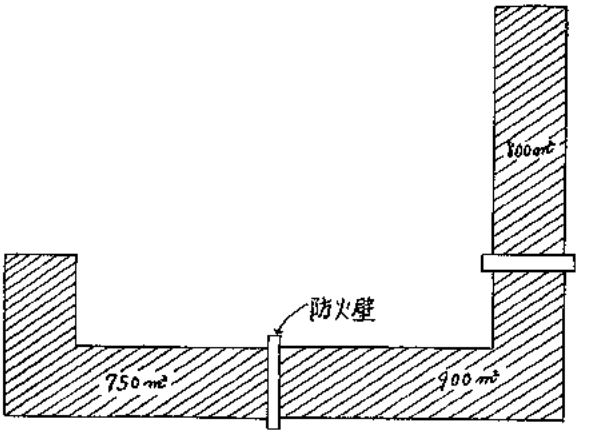
② 法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區域內에 있는 木造의 特殊建築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当하는 것은 그 外壁 및 처마의 延燒할 憂慮가 있는 部分을 防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1. 學校,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集會場, 市場, 公衆의 用에 供하는 浴湯 또는 車庫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
2. 百貨店, 共同住宅, 寄宿舍, 病院 또는 倉庫의 用에 供하는 2層以上의 建築物로서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面積의 合計가 200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

③ 法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區域內에 있는 木造의 特殊建築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当하는 것은 그 壁 및 天井(天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室內에 面하는 部分은 防火構造로 하거나 不燃材料, 木毛세멘트板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防火塗料로 塗裝하여야 한다.

1. 劇場, 映画館, 演藝場 또는 集會場의 用에 供하는 것으로서 容席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平方미터 이상인 建築物.
2. 共同住宅, 寄宿舍 또는 病院의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
3. 車庫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

防火地區外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으로서 市長, 郡守는 防火地區外의 市街地로서 防火上 特히 必要하여 指定한 區域안에서 建築物의 構造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大規模인 木造建築物의 防火壁

法第15條(大規模의 木造建築物의 外壁 等)

延面積이 千平方미터 以上인 木造의 建築物은 그 外壁 및 처마밑의 延燒의 憂慮가 있는 部分을 防火構造로 하고 그 지붕은 不燃材料로 하여야 한다.

法第16條(防火壁)

延面積이 千平方미터 以上인 建築物은 防火壁으로서 區劃하되 各區劃의 延面積은 千平方미터 未滿이어야 한다. 다만, 建築物의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이거나 不燃材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第17條(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

다음 各號의 1에 該当하는 特殊建築物은 그 主要構造部를 耐火構造로 하여야 한다. 다만, 延面積이 50平方미터 未滿인 單層의 附屬建築物로서 外壁 및 처마밑 面을 防火構造로 한것 또는 舞台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劇場, 映画館, 演藝場 또는 集會場의 用에 供하는 것으로서 그 客席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2百平方미터(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千平方미터) 以上인것.
2. 建築物의 2層을 病院, 共同住宅, 寄宿舍, 旅館 또는 倉庫의 用에 供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4百平方미터 以上인것.
3. 建築物의 3層以上의 層을 學校, 病院, 劇場, 映画館, 演藝場, 觀覽場, 集會場, 共同住宅, 寄宿舍 또는 旅館의 用에 供하는것.
4. 建築物의 3層以上의 層을 百貨店, 市場, 展覽會場, 舞蹈場, 遊技場 또는 倉庫의 用에 供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2百平方미터 以上인것.
5. 車庫의 用에 供하는 것으로서 그 用에 供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30平方미터 以上인것.

이 條文은 特殊建築物의 用途의 大部分에 対해서 그 用途의 種類, 層数 또는 바닥面積等을 規制하여 各條件에 對해서 耐火構造로 建築物을 建築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令第28條(構造計算의 原則)

① 建築物의 構造設計에 있어서는 그 構造의 種別에 따라 기둥, 보, 바닥, 벽 等을 有効하게 配置하여 建築物 全体가 이에 作用하는 自重, 積載荷重,, 積雪, 風圧, 土圧, 水圧 및 地震 기타의 震動 또는 衝擊에 対하여 均等하게 構造耐力上 安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인 壁은 建築物의 用途上 支障이 없는限 建築物에 作用하는 水平力에 抵抗하도록 均衡있게 配置하여야 한다.

③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는 使用上 支障이 되는 変形이 생기지 아니할 剛性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 建築物의 基礎는 그의 地盤의 不同沈下 또는 凍上에 対하여 構造耐力上 安全하게 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構造計劃上 基本原則을 記述한 것으로서 第1項은 기둥, 보, 바닥, 壁의 配置에 対해서 構造別(木造, 鉄筋콩크리트造)로 適應한 配置를 하여야 할것이고 따라서 構造에 適合한 構造部材를 配置하여 構造物 全体가 各 部分과 均等하게 하여 安全性을 가질 수 있는 構造로 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壁은 그 配置, 構造方法에 따라서 建築物에 커다란 水平耐力을 附與하는 効力을 갖는 것으로, 第2項에 있어서는 이러한 効力을 發揮시키기 위하여는 各部의 水平力에 抵抗하도록 均衡있게 配置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第3項은 構造部材는 適當한 剛性을 가질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4項은 基礎에 対해서 不同沈下 또는 凍上에 対하여 注意를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地中에 包含되여 있는 水分이 0°C以下로 되면 凍結하여 土壤容積을 增大시키므로 建物의 基礎를 破壞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各地方의 凍結深度는 다음 表의 程度로 보아 基礎를 設計하여야 할것이다.

地 名	凍結深度(m)	地 名	凍結深度(m)
江 陵	0.90	全 州	0.60
서 울	1.00	蔚 山	0.50
仁 川	0.60	光 州	0.50
鬱 陵 島	0.40	釜 山	0.60
秋 風 嶺	0.80	木 浦	0.40
浦 項	0.80	麗 水	0.40
大 邱	0.80	濟 州	0.30

令第29條(構造部材의 耐久)

①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에 使用되는 木材로서 벽돌, 콩크리트, 흙 기타 이와 類似한 抱水性의 物体에 接하는 部分(心壁 또는 흙벽에 接하는 部

分을 除外한다)에는 防腐塗料를 塗布하거나 이와 同等以上의 効果를 가진 防腐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建築物의 壁으로 直接흙과 接하는 部分은 門, 담, 광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에 있어서의 경우를 除外하고 耐水材料로 만들어야 한다.
③ 建築物의 基礎에 나무말뚝을 使用할 때에는 그 나무말뚝은 單層木造 建築物에 使用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常水面下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木造部分의 防腐에 対한 問題는 耐久上 重要한 要素로서 이 條文에는 防腐措置에 対한 規定이다.
나무말뚝은 常水面以下에 있도록 하면 永久히 腐飾하지 아니한다.

令第30條(摩損의 防止)

建築物의 構造部分으로 特히 摩損의 憂慮가 많은 것에 対하여는 이를 防止할 수 있는 材料를 使用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構造部分의 摩損에 있어서 斷面의 減少를 가져오면 그만큼 構造耐力은 低下된다. 階段, 驛의 改札口 等과 같이 摩損의 憂慮가 많은 部分은 摩損되지 않은 材料로 만들거나 또는 이를 防止할 수 있는 材料로서 保護를 하여야 한다.

令第31條(帳壁 및 지붕, 개와 等의 緊結)

① 帳壁은 骨構에 緊結하여야 한다.
② 개와는 처마 및 박공에 있어서는 2열이상을 장마다,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지붕面 5장마다 1장씩을 銅線, 鉄線 및 못 等으로 蓋板에 緊結하거나 이와 同等의 効力을 가진 方法으로 미끌어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 建築物에 붙이는 裝飾石, 테레캇다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은 볼트, 꺽쇠 기타의 鉄物로 骨構 또는 壁에 緊結하여야 한다.
地震 또는 暴風時에 개와等이 떨어져 人畜에 危害를 주는 일이 많은 것이다. 이 條文은 이러한 事態를 防止하기 위하여 帳壁의 到壞 또는 개와의 떨어질 憂慮가 있는 것의 緊結措置를 規定한 것이다.
帳壁이란 外部로부터 커다란 "힘"을 받을 수 있게 計劃되어 있지 않다.
即 카텐, 쉴인 것이다.

令第32條(適用範圍)

이 節의 規定은 木造의 建築物 또는 木造와 組積造 기타 構造와를 併用하는 建築物의 木造의 構造部分에 이를 適用한다. 다만, 亭子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 또는 延面積이 10平方미터 이내의 광倉庫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에 對하여는 예외로 한다.
構造部分이란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을 말하는 것이며 構造体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欠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例를 들면 석가래, 蓋板(지붕널),. 天井과 같은 部分은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은 아니다.
이 條文은 그 適用範圍를 亭子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 또는 延面積이 10平方미터 以內의 광, 倉庫 等의 小規模인 建築物은 除外하는 規定이다.

令第33條(木材)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에 使用하는 木材의 品質은 마디, 썩정이, 纖維의 傾斜, 죽等에 依한 耐力上의 缺点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木材는 耐力에 커다란 影響을 미칠 欠点이 없는 것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解体한 建築物의 古材를 使用할 때에는 構造耐力上 欠点이 없는가를 充分히 確認한 後에 使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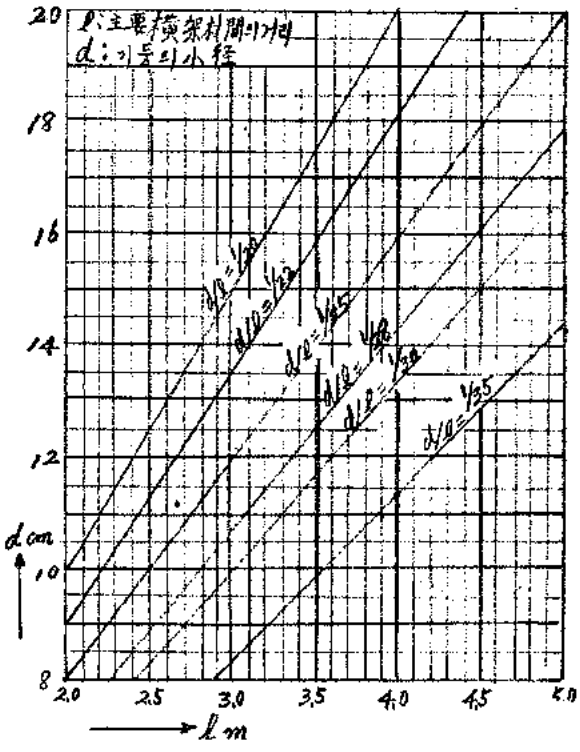
令第34條(土台)

① 構造耐力上 主要한 기둥으로서 最下層에 使用하는 것의 下部에는 土台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을 基礎에 緊結하였을 때 또는 單層의 建築物로서 밑둥잡이를 使用하였을 時에는 例外로 한다.
② 土台는 基礎에 緊結하여야 한다. 다만, 單層의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平方미터 以內의 것에 対하여는 例外로 한다.
不同沈下 및 地震力, 風圧力에 対하여 기둥의 相対水平変位의 防止上 土台를 設置하는 것을 原則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는 복도의 기둥과 같이 下部에 鉄物로 밑둥잡이로 基礎에 緊結하였을 때와 單層建築物로서 밑둥잡이를 하였을 때에는 同等程度의 効果가 있다고 認定한다.
第2項은 單層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平方미터 以內의 것에 対하여는 반드시 緊結을 要하지 않은 規定이다. 이 緩和規定은 地震, 暴風時를 考慮하면 建築場所 및 建物의 輕重에 따라 土台는 基礎에 緊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令第35條(기둥의 小彷)

① 構造耐力上 主要한 기둥의 小径은 이에 接着하는 土台, 밑둥잡이, 층도리, 보, 도리 기타의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인 横架材의 相互間의 垂直距離에 對하여는 다음의 表의 比率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 기둥		스팬相互間隔이 10미터 以上의 기둥 또는 學校, 病院, 劇場, 映画舘, 演藝舘, 觀覽場, 公會堂, 集會場, 百貨店, 公衆浴湯이나 寄宿舍의 用途에 쓰이는 建物의 기둥			左欄以外의 기둥		
		最上層또는層數1인建築物의 기둥	最上層의 直下層의 기둥	기타의層의 기둥	最上層또는層數가1인建築物기둥	最上層또는下層의 기둥	기타層의기둥
(1)	第76條第3項의規定에依하여 多雪区域에 있어서 建築物또는 木骨벽돌造, 木骨石造, 흙벽造 기타 이와類似한 壁의 重量이特別히 큰 建築物의 경우	22분의 1	20분의 1	18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20분의 1
(2)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붕을 金屬板, 石板, 石綿板, 木板 기타 이와類似한 輕量材料로덮은 建築物의경우	30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35분의 1	30분의 1	25분의 1
(3)	(1) 및(2)에該当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분의 1	2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25분의 1	22분의 1



●主要横架材間의 距離와 기둥의 小徑

② 層数가 2以上의 建築物에 있어서 모서리 기둥 또는 이에 準하는 기둥은 통채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接合部를 통채기둥과 同等以上의 耐力을 가지도록 補强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建物의 剛性, 防腐等에 對해서는 計算을 하여 기둥材의 크기를 定하는 일은 通常하고 있지 않다. 기둥의 径이 적은 것은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條文에는 使用할 기둥材의 最小径을 스팬의 크기 또는 多数人을 収容하는 建築物과 그렇지 않은 建築物과 用途上大別하여 規定하고 있다.

令第36條(보 等의 横架材)

보, 도리 기타의 横架材에 그 中央部附近의 下側을 파내거나 缺損을 만들어 耐力上 支障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보, 도리 等 横架材의 中央部附近의 下側은 通常 引張側으로서 파내거나, 缺損이 있으면 耐力의 低下를 갖어오는 것이다. 그럼으로 耐力上支障을 갖어오지 않도록 하는 規定이다.

令第37條(가새 및 그의 맞춤)

① 引張力을 負擔하는 가새에는 이에 接하는 기둥

의 5분의 1以上의 断面積을 가지는 木材 또는 지름 9미리미터以上의 鉄筋이나 이와 同等以上의 强度를 가진 기타의 鉄材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 圧縮力을 負擔하는 가새에는 이에 接하는 기둥의 3분의 1以上의 断面積을 가진 木材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耐力을 가진 材料를 使用하여야 한다.

③ 가새는 그 端部를 기둥과 보 기타의 横架材와의 맞춤에 接近하여 볼트, 꺽쇠, 못 기타의 鉄物로 緊結하여야 한다.

④ 가새는 파내거나 缺損을 만들어 耐力上 支障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가새는 木造建築物에 耐震力, 耐風力을 附與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役割을 하는 部材이다. 이러한 가새가 보, 기둥等의 各部의 接合이 重要한 것이다. 第1項 第2項에는 引張力 또는 圧縮力을 負擔하는 가새材의 断面의 크기를 規定하고 第3項에 있어서는 가새端部와 기둥과 横架材와의 맞춤에 接近하여 引張力 또는 圧縮力에 依하여 分離되지 않도록 볼트, 꺽쇠, 못等 適当한 鉄物로서 緊結할 것을 規定한 것이다.

令第38條(構造耐力上 必要한 骨構 等)

① 構造耐力上 重要한 壁, 기둥 및 横架材를 木造로하는 建築物에 있어서는 모든 方向의 水平力에 対하여 安全하도록 各層의 스팬方向 및 도리方向에 各各 壁 또는 가새를 넣은 骨構를 均衡있게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대, 버팀기둥 또는 버팀壁이 있어서 構造耐力上 支障이 없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使用하고 지붕틀에는 空間 가새를 設置하여야 한다.

前條에 있어서는 가새材의 치수, 맞춤에 対하여 規定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새를 어느程度 넣으면 좋은가를 規定하고 있다.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使用하여 建築物이 一体的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第1項第2項에 規定하고 있다.

令第39條(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이음 또는 맞춤)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 꺽쇠, 비녀장 기타 이와 類似한 것에 依한 構造方法으로서 그 部分의 局部應力을 傳達하도록 緊結하여야 한다.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이음, 맞춤에 欠陷이 있을時는 所定의 耐力을 確保할 수 없다. 따라서 볼트조임, 꺽쇠를 박거나 기타 비녀장等 特殊鐵物로 補强하여 같은 効力을 갖일 수 있는 構法으로서 그 部分에 일어나는 應力을 完全히 傳達할 수 있도록 緊結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令第40條(外壁内部의 防腐措置)

木造의 外壁의 全部 또는 一部가 鐵網몰탈칠, 붙임돌造 기타 骨造가 腐蝕하기 쉬운 構造인때에는 그 部分의 下地에 防水紙를 使用하고 그 위에 地面으로부터 1미터 以内에 있는 部分의 기둥, 가새 및 土台에는 크레오소트 기타의 防腐劑를 塗布하여야 한다. 다만, 그 部分의 壁의 内部에 通氣되는 構造로 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防火構造로서 外壁을 鐵網몰탈칠等으로한 部分의 軸部의 木材는 腐飾하기 쉬우므로 그 바탕에 防水紙를 使用할 것은 勿論이고 가장 썩기쉬운 部分인 地面부터 높이 1미터 以下에 있는 部分의 主要構造部材에는 防腐劑를 塗布할 것을 原則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令第41條(붙임돌 等)

① 붙임돌(붙임기와 類似한 것을 包含한다) 로서 木造의 骨構를 씌우는 構造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地面으로부터 1미터以内의 部分을 除外하고 5센티미터 以下로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建築物의 붙임돌의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은 것은 꺽쇠, 銅線 기타 이와 類似한 腐飾하기 힘든 鐵物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骨構에 緊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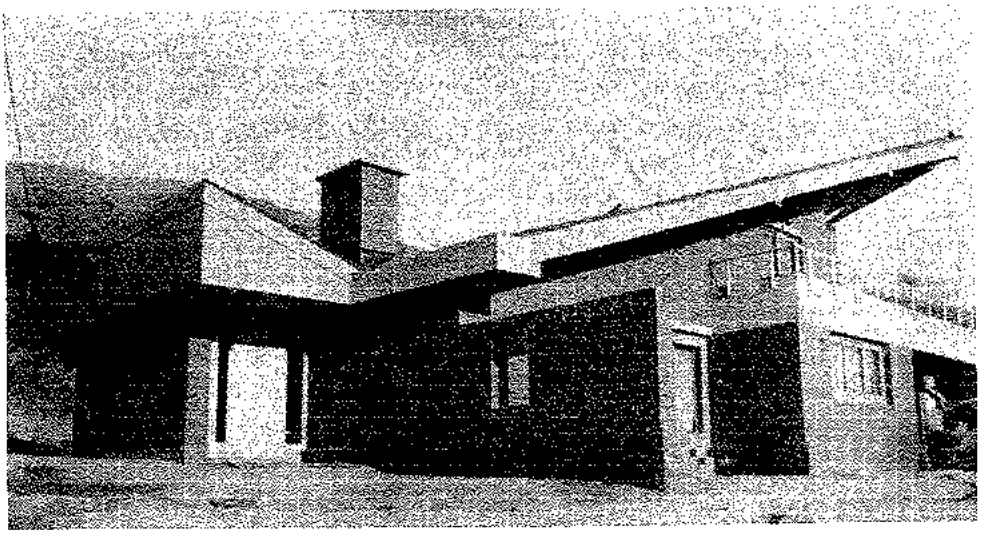
木造의 骨構를 씌우는 石構造(붙임돌)等은 構造上 荷重을 負擔하는 것은 木造의 骨構로서 붙임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무겁게 되어 耐震上 不利한 構造가 된다. 또는 돌붙임은 地震에 依하여 떠러져 危險이 큰것으로서 그 붙임돌의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은 것은 꺽쇠, 銅線, 못等으로서 骨構에 充分히 緊結하여야 하고 돌붙임의 두께는 5센티미터 以下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令第42條(適用範圍)

① 이 節의 規定은 벽돌造, 石造, 콩크리트부록造 기타의 組積造의 建築物 또는 組積造와 木造 기타의 構造와를 併用하는 建築物의 組積造의 構造部分에 適用한다. 다만, 鐵筋 또는 鐵骨로 補强된 部分으로서 構造計算 또는 実驗에 依하여 이 節의 規定에 適合한 것과 同等 以上의 耐力을 가진다고 確認된 것에 対하여는 例外로 한다.

L氏 주택

설계 : 鄕建築



梨花大學뒤 奉元寺옆 언덕위의 岱地. 남쪽으로 멀리 漢江에 바라다 보이는 넓은 視野속에 섰을 때, 이 집의 아이디어는 瞬間的으로 머리속에 굳어졌다.

岱地에서 본 경치가 좋은 방향이 남쪽이었다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그대로 방들을 배치하면 그만이니까. 正方形의 종이를 対角線으로 접어 두변을 땅에 平行하게 固定시키고, 한쪽의 対角線 모퉁이를 남쪽을 向해 높이 쳐들어, 높아진 室內空間에 2층部分이 마련된다.

그러나 고민은 그 뒤에온다.

正方形속에 各機能을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의 中心에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우산살 모양의 「브레이싱」이 지붕을 받든다. 이 構造는 그대로 露出되어 居室의 이메지를 創造한다. 空間의 性格을 돋보이기 위해 후로링 天障과, 회반죽벽의 단순한 재료로 꾸몄다.

오랫동안 만들어 보고 싶었던 空間이다.

대지 서대문구 봉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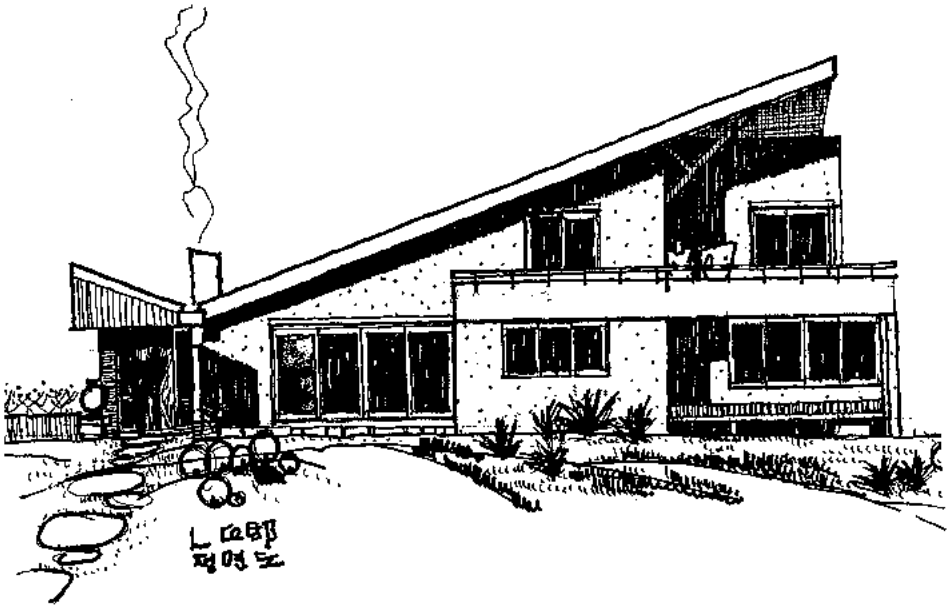
면적 1층 6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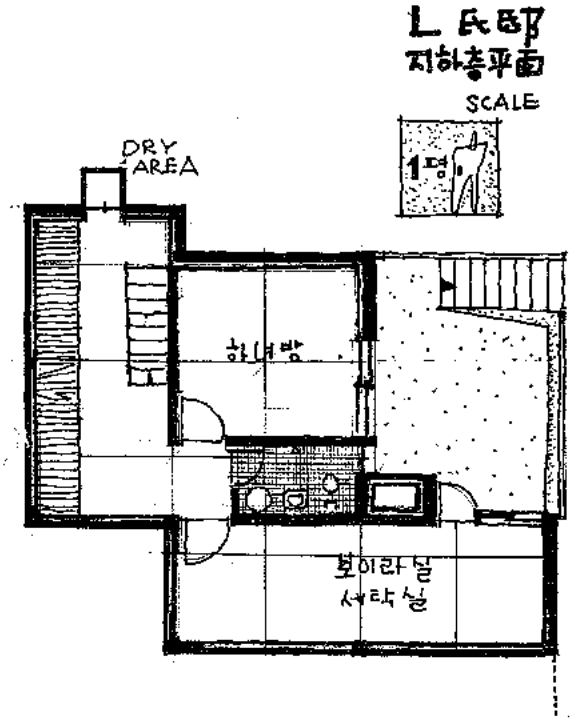
2층 1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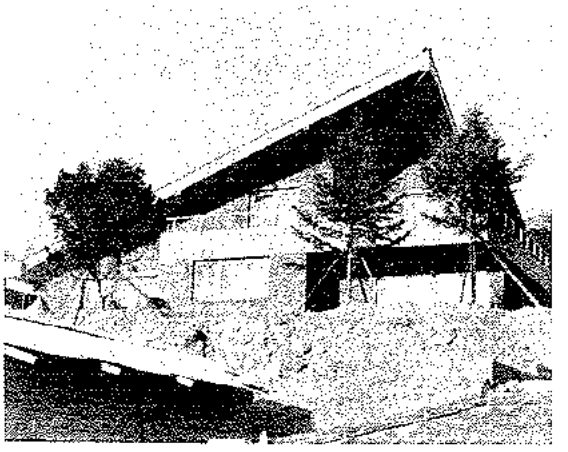
지하 15평 계 9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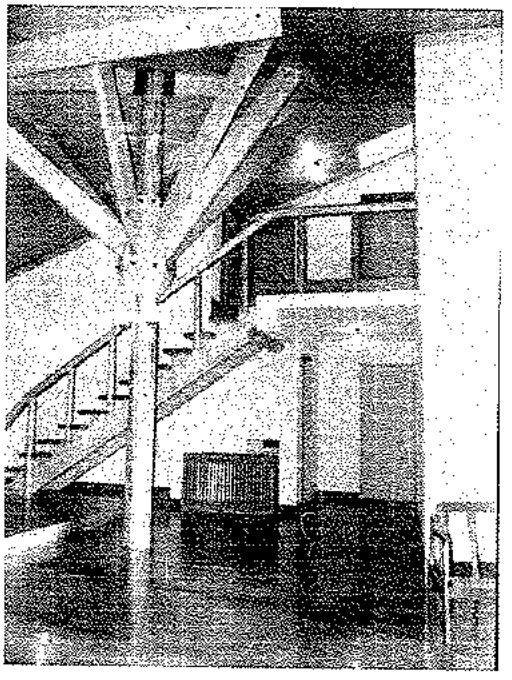
외벽 : 붉은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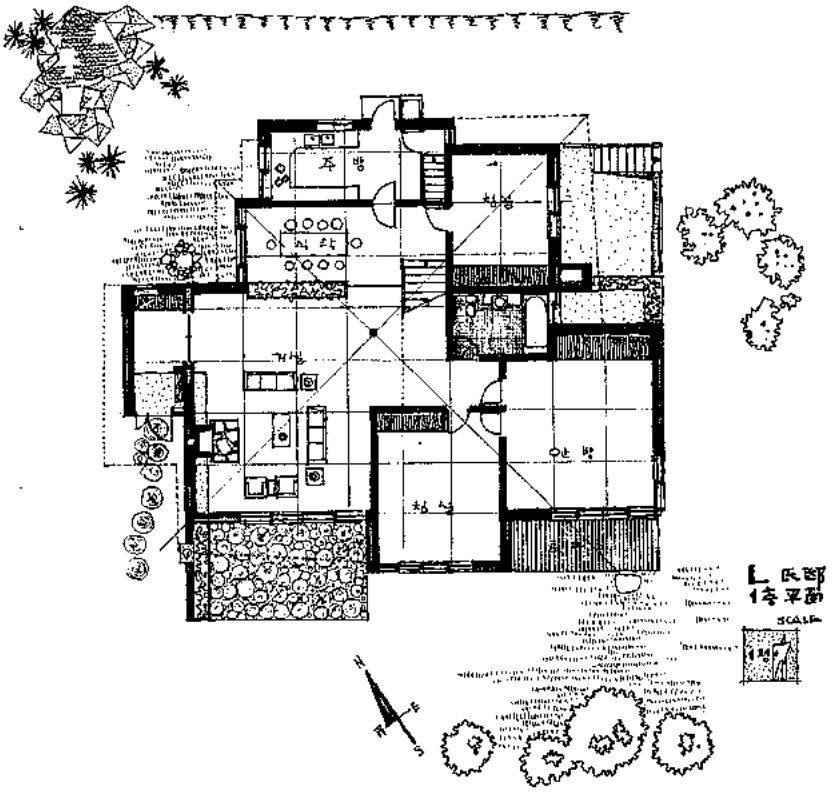
지붕 : 스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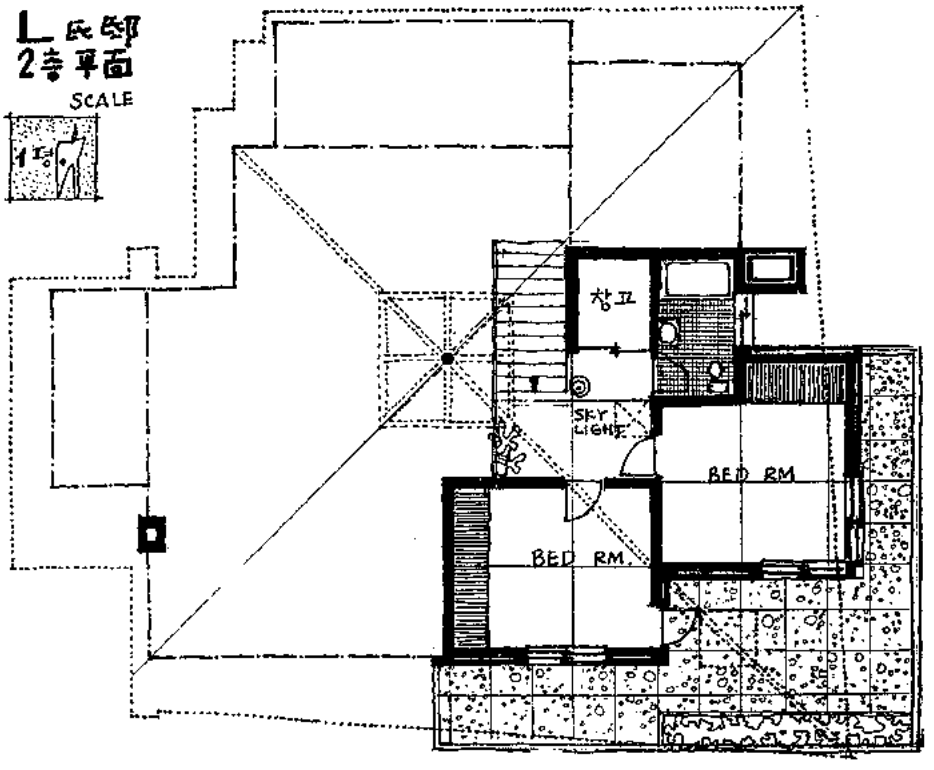



L 氏邸
지하층平面
SCALE
1평
DRY AREA
하녀방
보이라실
세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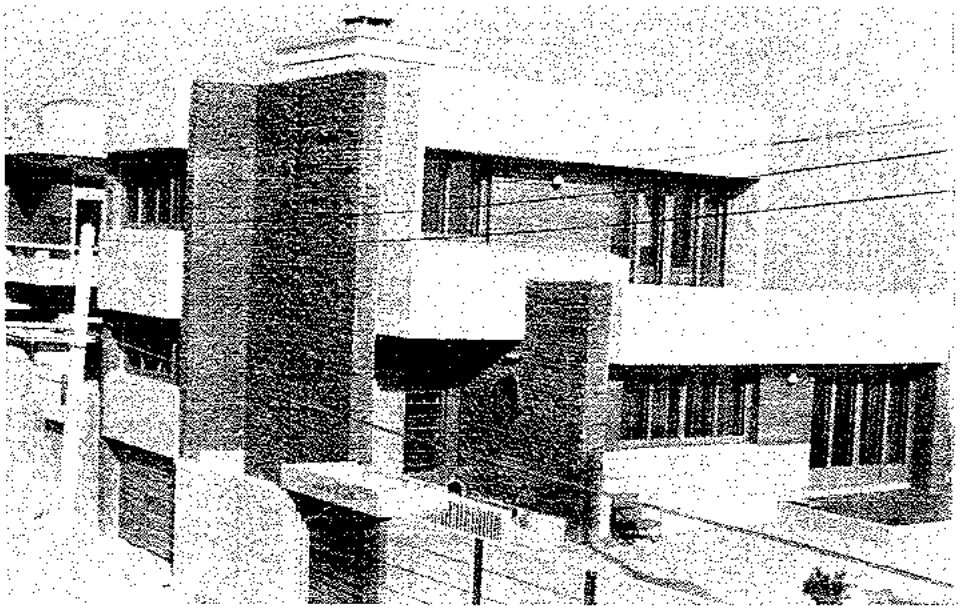



L 氏邸
1층 平面
SCALE
1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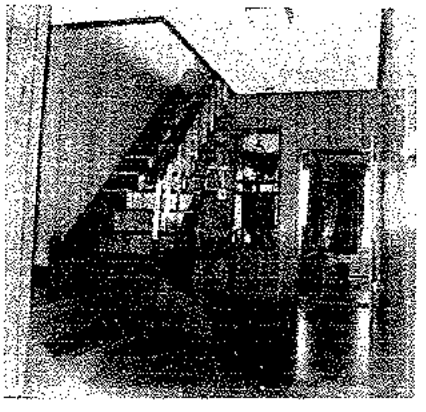

L 氏邸
2층 平面
SCALE
1평
창고
SKY LIGHT
BED RM
BED 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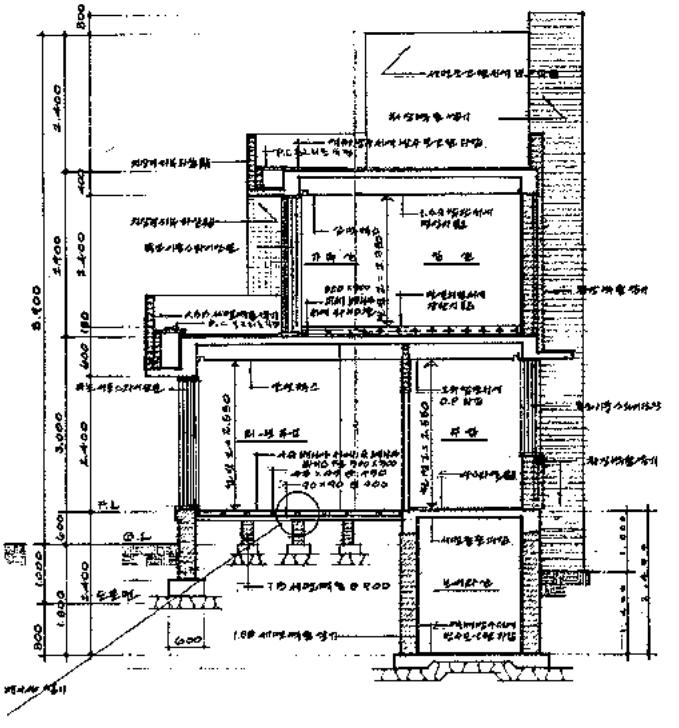
설계 : 三元社建築設計事務所

H씨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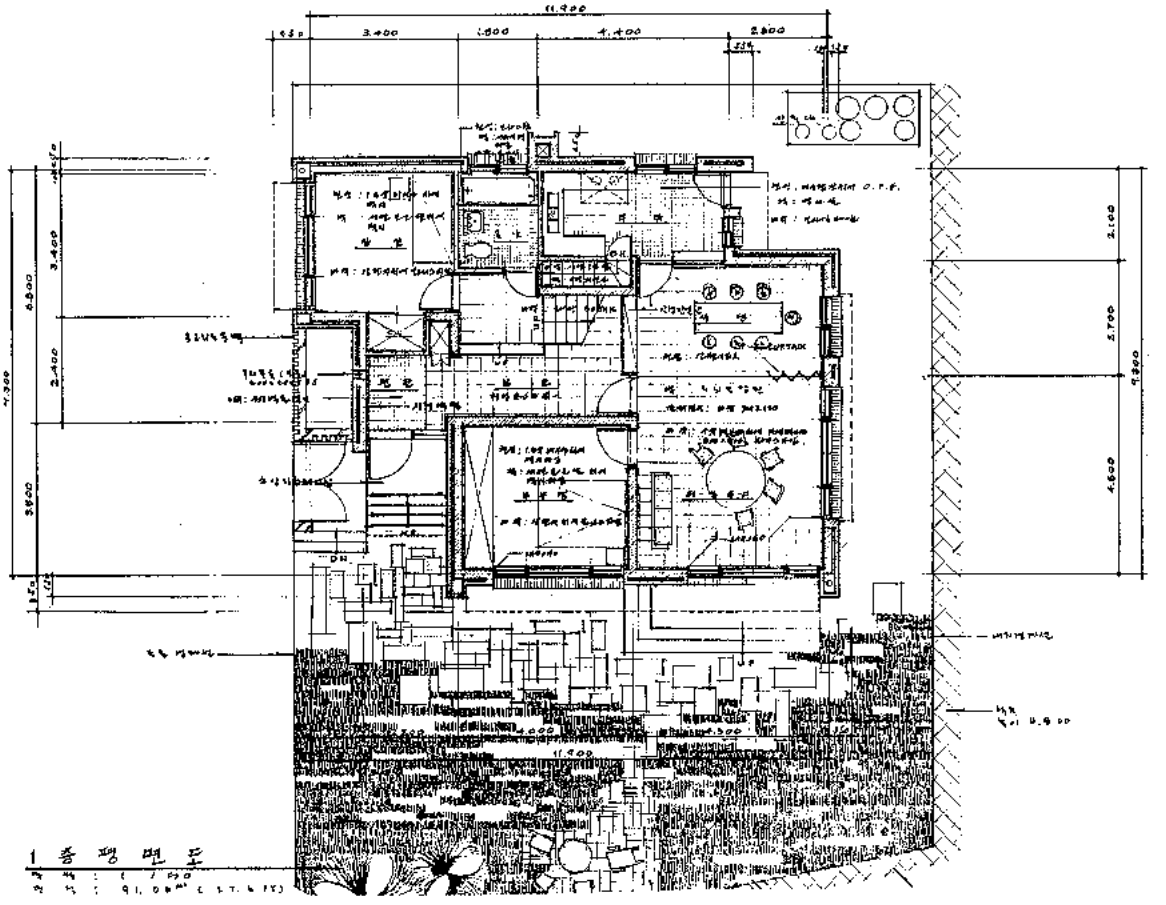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정능
대지면적 : 290M² (87평)
면　　적 : 1층　91.06M²
　　2층　61.59M²
　　옥상층　3.24〃
　　지하실 29.88〃
　　185.77M² (56평)
구　　조 : 벽돌조, CONCRETE SLAB
설　　비 : 5,600,000원 (평당 100,000원)
　　직영 공사
설　　계 : 三元社 建築設計事務所
감　　리 : 三元社 建築設計事務所
　　담당기사 · 정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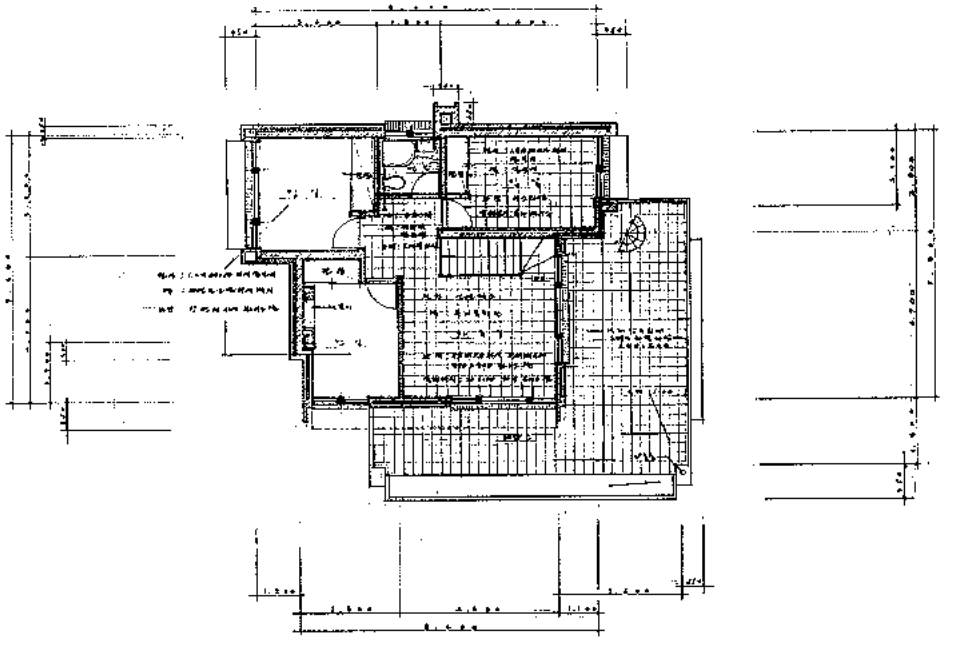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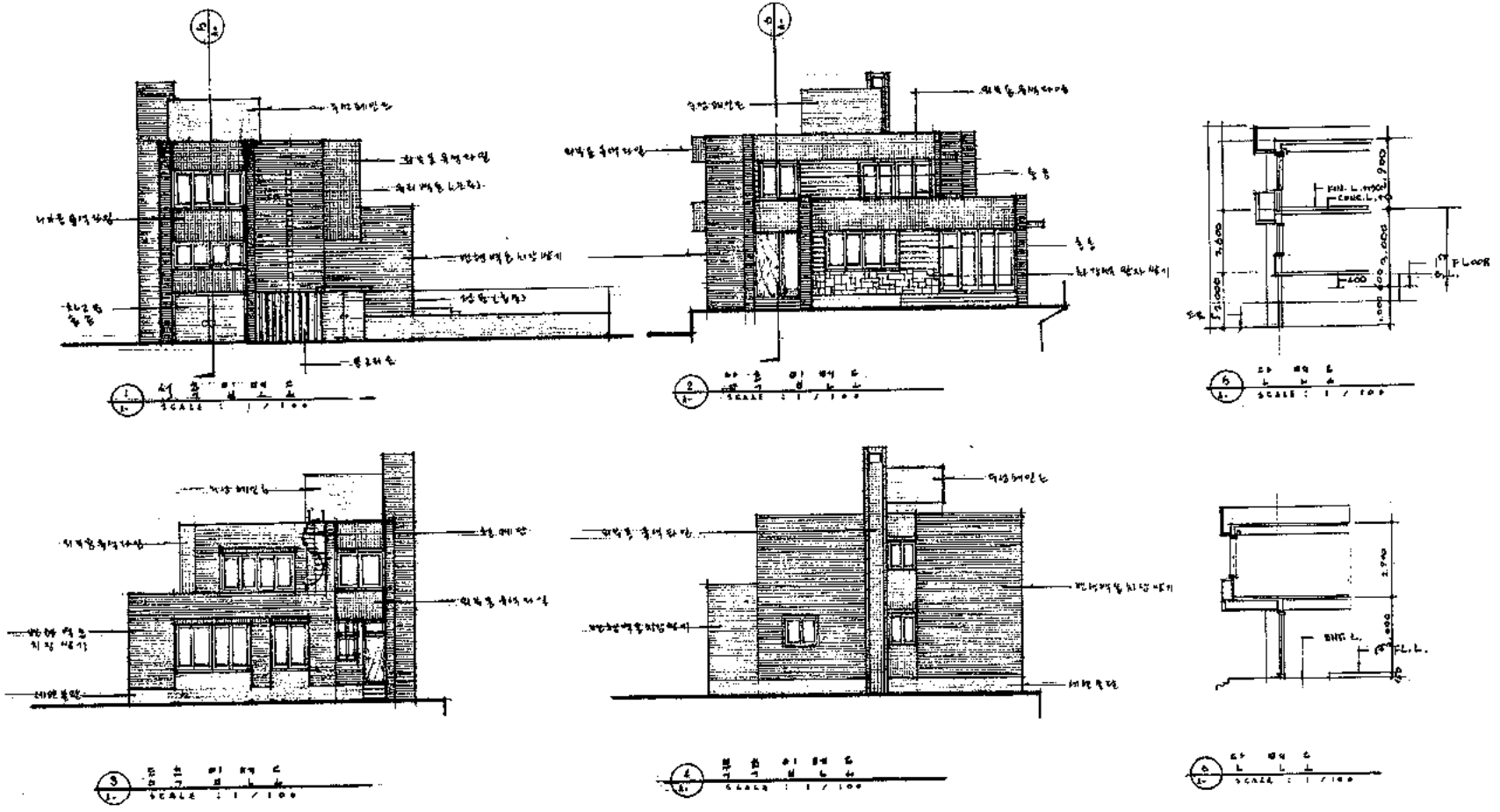


단면도
축적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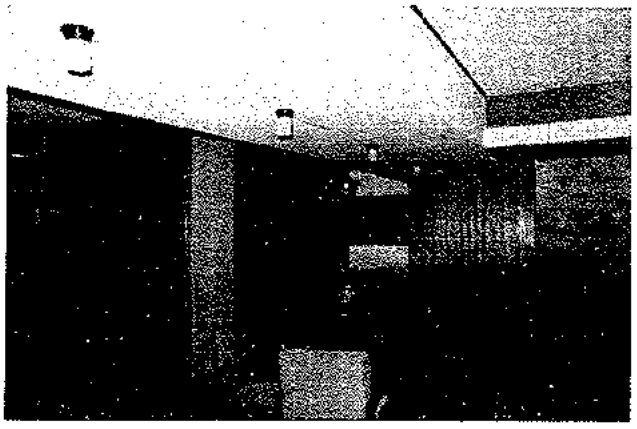


1 종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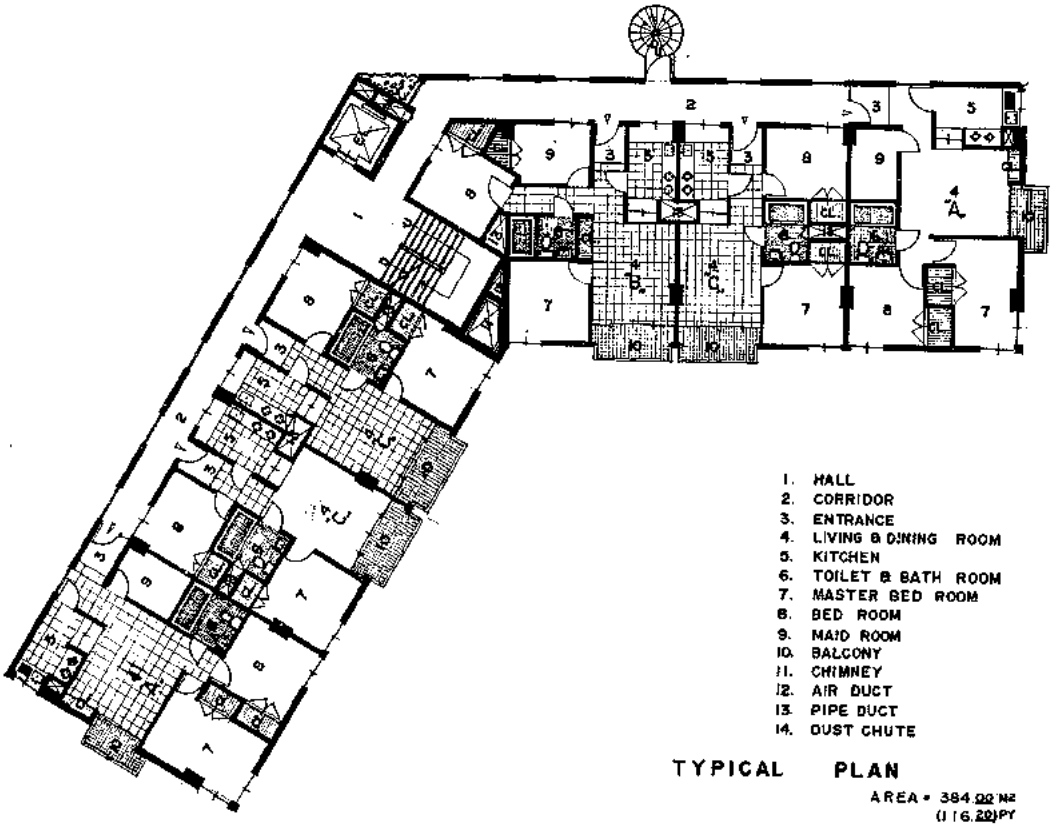



SCALE : 1 / 100
SCALE : 1 / 100
SCALE : 1 / 100
SCALE : 1 / 100
SCALE : 1 / 100
SCALE : 1 / 100
FLOOR
FL.L.

효창아파트 ---------- 설계; 범아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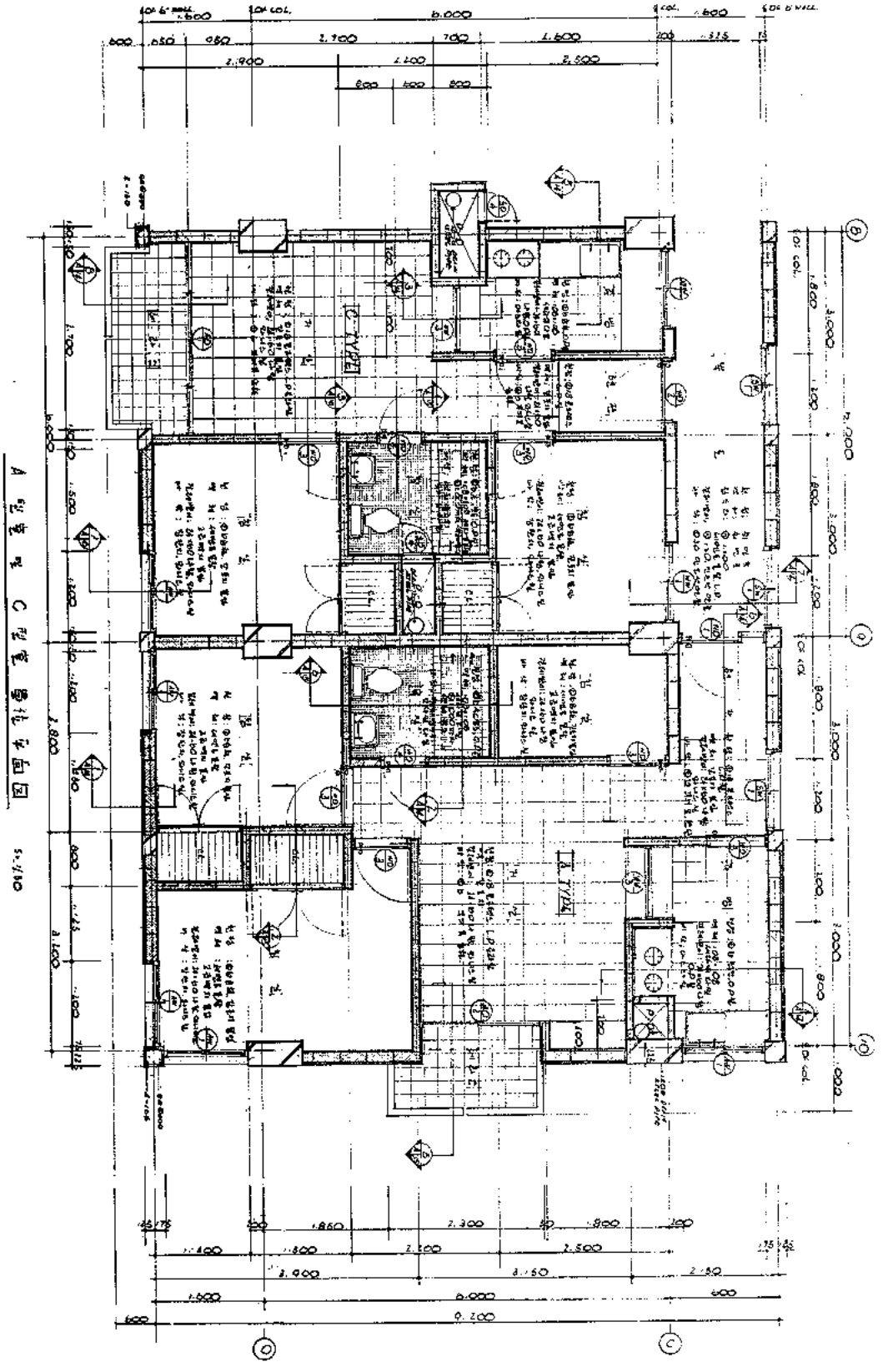
담　　당; 김 영범, 박 의식
구　　조; 이 재엽
전　　기; 송 항수
위생난방; 이 광우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 번지 495호
건축개요; 지하 1層, 지상 11層, 옥상층2層 철근 콩크리트 라멘조
건축면적; 1 층 31578M²
기준층 384.0　384.00M²
연면적 4,377.96M²
주요용도; 대여아파트 (외국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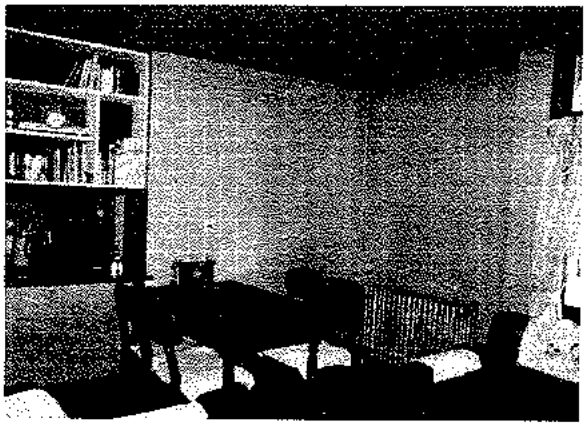
1. HALL
2. CORRIDOR
3. ENTRANCE
4. LIVING & DINING ROOM
5. KITCHEN
6. TOILET & BATH ROOM
7. MASTER BED ROOM
8. BED ROOM
9. MAID ROOM
10. BALCONY
11. CHIMNEY
12. AIR DUCT
13. PIPE DUCT
14. DUST CH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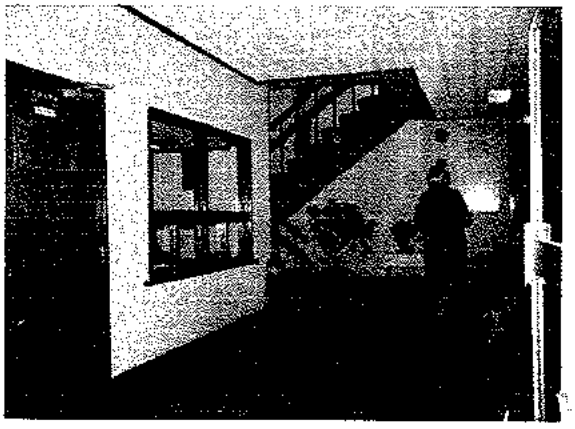
TYPICA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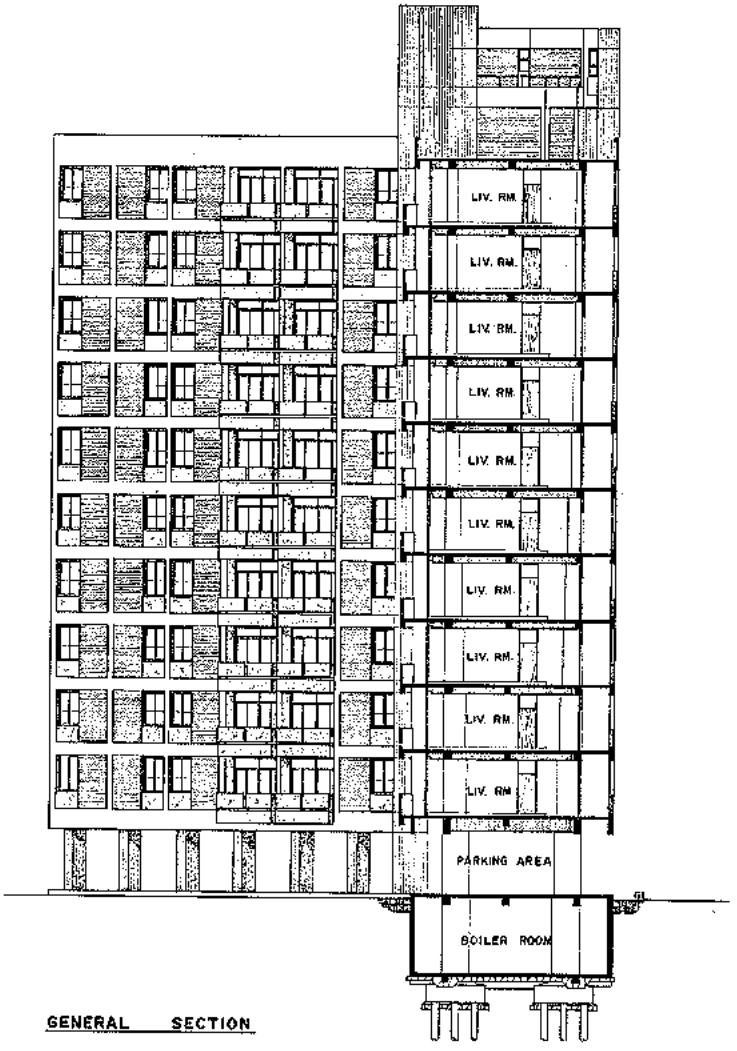
AREA = 384.00 M2
(116.20)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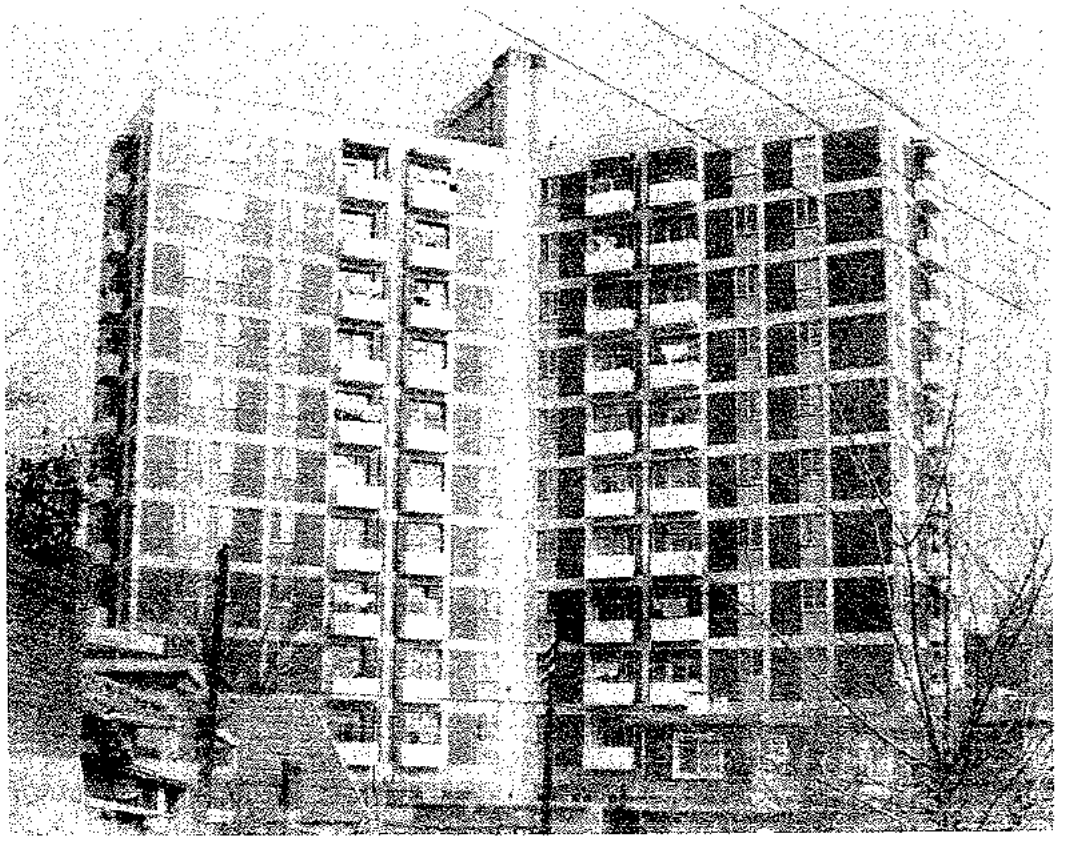
A型室 C型室 墨抗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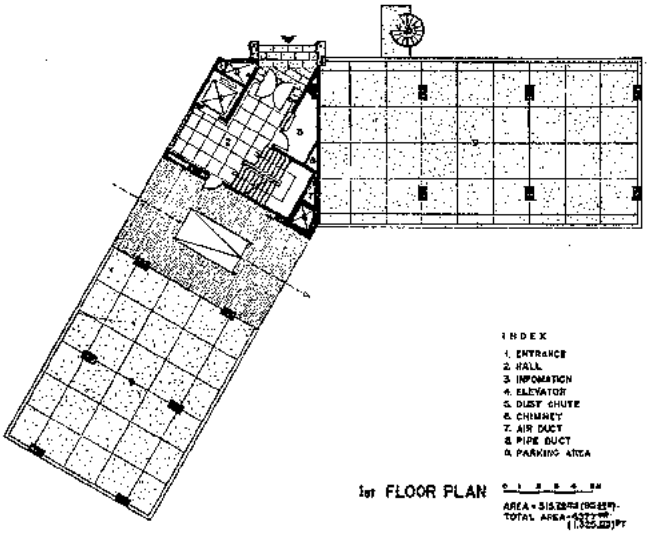






GENERAL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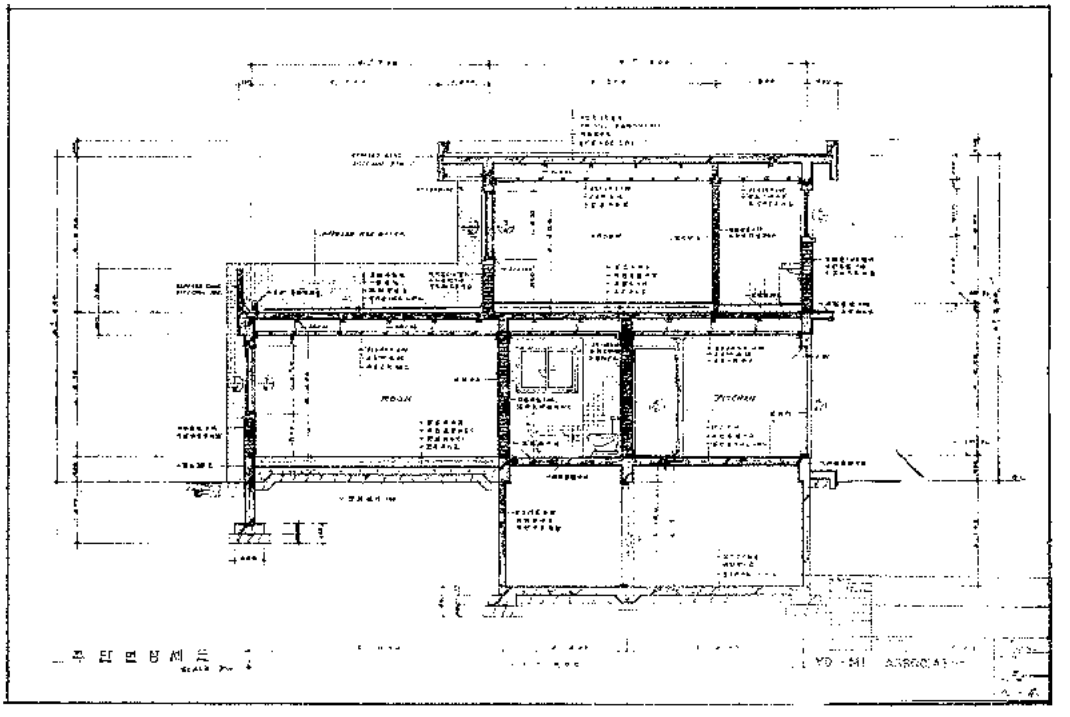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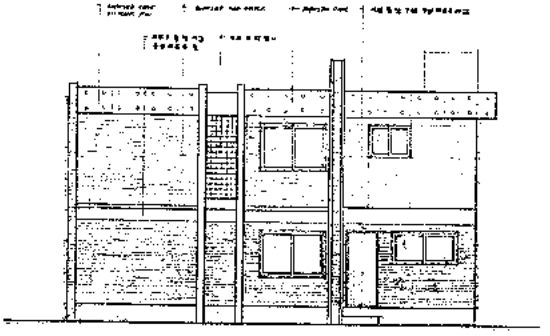


1st FLOOR PLAN

진씨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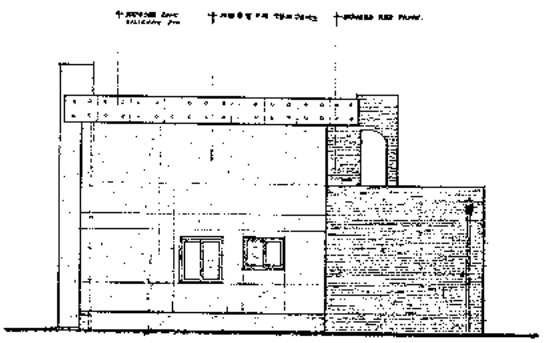
설계 : 여미 도시건축설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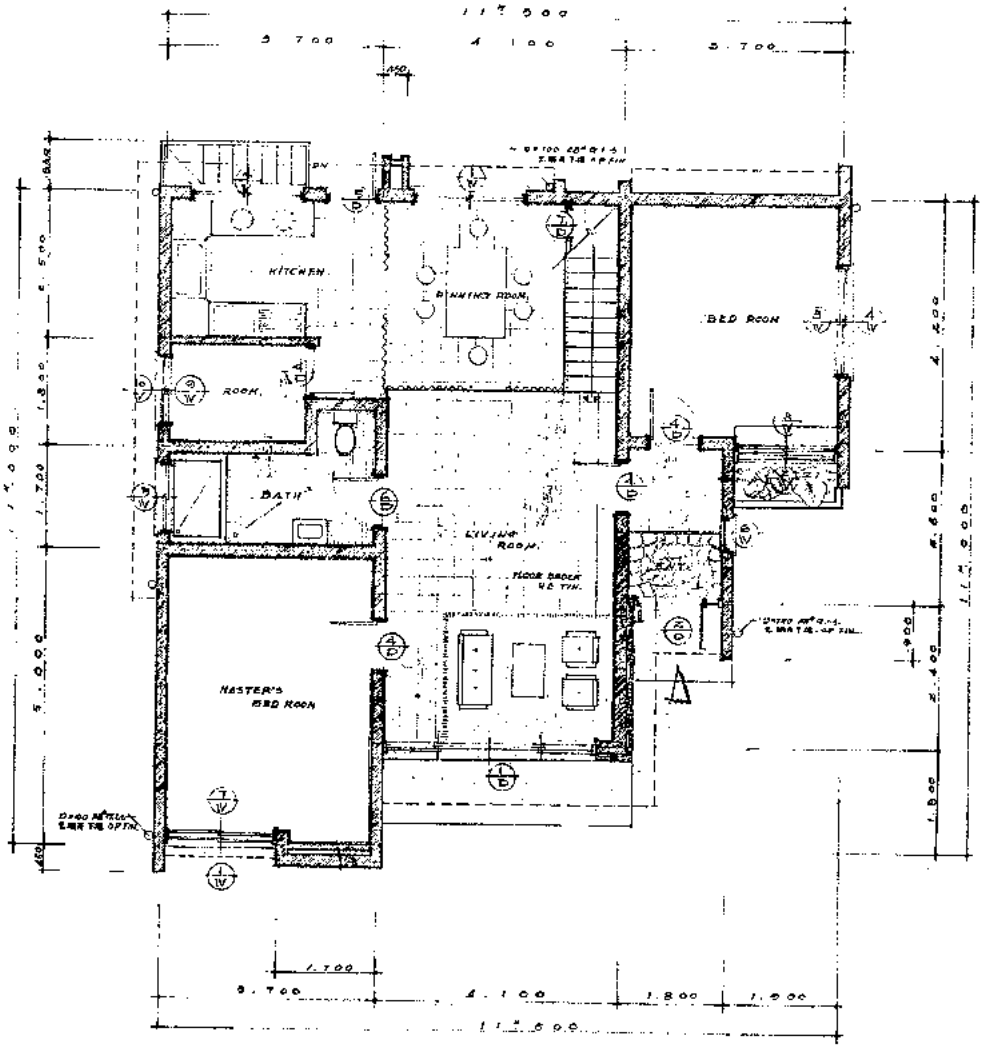
REAR ELEVATION

SCALE : 1/50



WEST SIDE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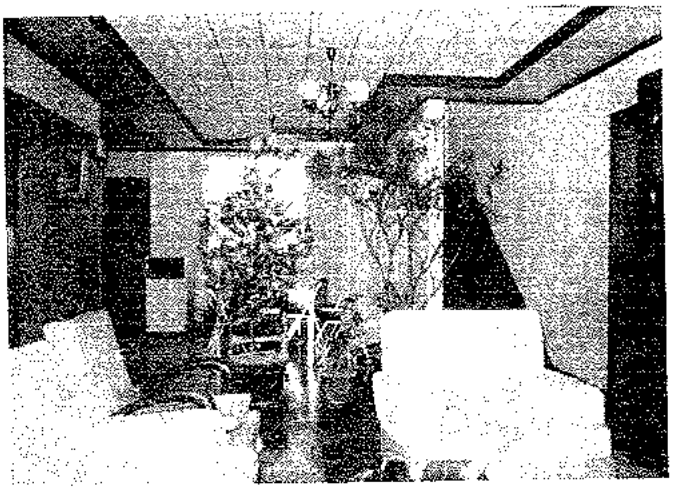
SCALE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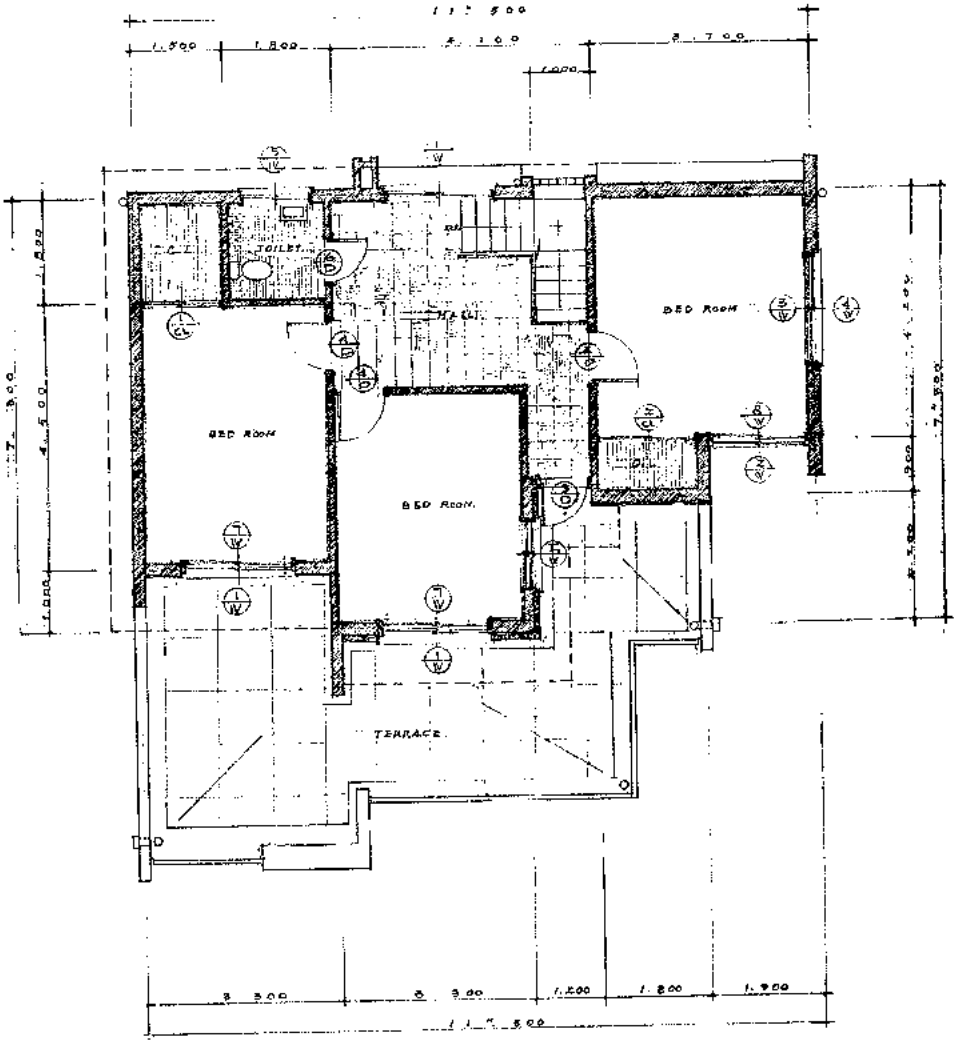
1ST FLOOR PLAN

SCALE : 1/50

AREA : 93.64m² (30.04)



위치 : 사양동
면적 : 지하; 22.00m²
1층; 98.64m²
2층; 67.44m²
연면적; 188.08m²
구조 : 연와조 스라브
온수난방
설계 : 김 창규
난방 · 전기 · 위생 : 황 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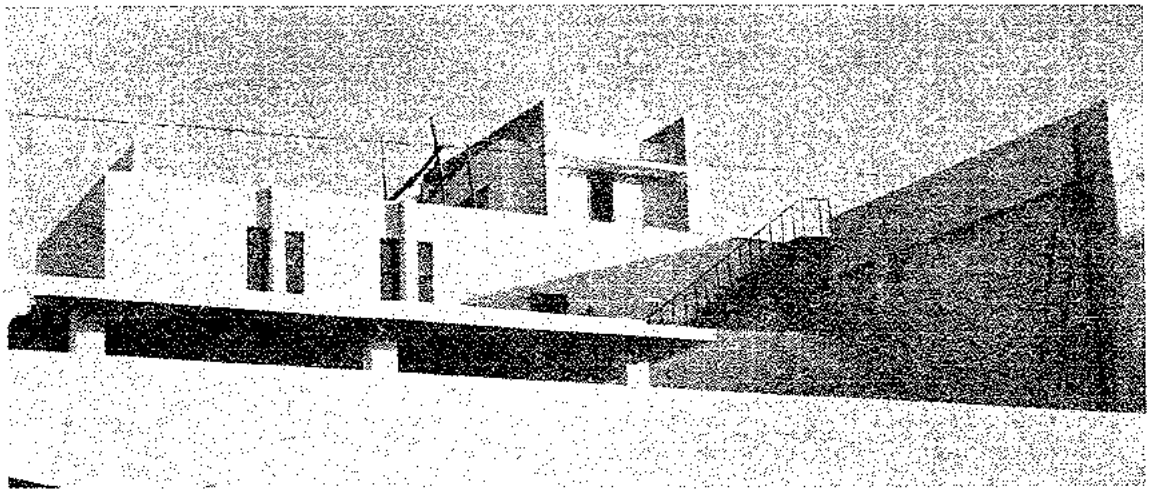


2ND FLOOR PLAN

SCALE : 1/100
AREA : 67.44㎡ (20.4평)

냉동공장 방열자재의 발달사

김 회천(수산청 시설 담당관)



포항종합어시장 냉동공장전경

냉동공장 방열재 시공

옛날부터 얼음을 목조건물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화되어 감에 따라 우수한 방열재를 찾는데 주력하여 왔다. 옛날 시공업자는 톱밥, 대팻밥 콜크가루 및 공간과 분리한 목재의 층을 만들어 시설하여 왔다. 콜크가 보드판으로 성형시켜 발전하여 온 후 이 자재는 광범하게 사용하게 되어 곧 다른 방열재의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 자재가 되었다. 방열 자재로서 콜크판은 가장 가치있는 자재이었다. 전열재의 낮은 전도도를 가졌고 비교적 안전하고 압축력이 좋고 가벼운 편이고 짜르고 마추기 쉽고 항수분력에 좋다. 그러나 유기질 자재는 습기가 있을 때 썩기 쉽고 몇개 공장에서 수년 전부터 쥐가 살고 구멍을 뚫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적당히 방열하여 흡수되지 않게 시공하였을 때 콜크판 자재 방열은 20 내지40년은 견딜 수 있다.

콜크판의 단점은 거의 없다.

콜크는 참나무 껍질로 만든다. 이 참나무는 아주 느리게 자라고 50년이 되어야 수확을 하는데 일년에 100파운드가량 자란 것을 수확할 수 있다. 거의 다시 심지 않고 계속 개발시켰으나 점차 공급량이 감소되어 1940년 초에 값이 최고로 올랐다. 그래서 값이 헐한 대용품 개발에 힘썼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동업이 번창해지자 결과적으로 냉동업이 번창하여 졌으며 방열재의 수요가 급증하여 새로운 방열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많은 기술자들이 광물질 모(Bulk Mineral wool) 프라스틱 분말, 분말삼나무 껍질(Shredded Redwood Bark) 석면등을 개발했다. 당대에 가장 성공적 개발품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방열재는 유리섬유(glass Fiber) 및 포말유리(foamed glass)를 들 수 있다. 전쟁후의 다른 영향은 프라스틱의 개발에 주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열재를 소유할 수 있는 프라스틱 산업이 발전했다. 이 대표적인 방열재로는 포말 포리스타이렌(Foamed Polystyrene) 및 포말 포리우레탄(Foamed Polyurethane)을 들 수 있다. 이 자재는 밀폐형 세포자재들로서 적은 프라스틱 기포의 수백만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증기 등의 흡습이 되지않은 제일 좋은 방열재이다. 이 두 방열재 중 스타이렌 기포(Styrene foams)는 값이 보다 헐하고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레탄 기포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데서나 생산 할 수 있다.

스타이렌 포말도 3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표면이 거치른 조직이 된 필요한 판형으로 엷은 것이다.이방열재의 K획타는 0.24이다. 또하나는 스무스하고 매끈 매끈한 표면을 갖는 판형으로 제작한다. 이 K획타는 0.18이다. 다음 셋째번 종류로는 "거품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스타이렌을 틀에 넣어 거품으로 만들어 판의 형 및 필요로 하는 크기에 맞추어 적은 거품으로 얼음 처리하여 팽창시켜 만든다. 이 방열재의 K치는 약 0.24 정도이다.

그러나 이 방열재의 수증기 통과에 대한 강도 및 저항력은 그 방열재의 농도에 비례해서 다르다. 거품판 방열재를 생산하는데 보다 적은 비용이 들겠으나 특히 관두루기 작전 부분보강 선장등에 시설하기는 힘들다. 농도와 값은 변화시킬 수 있고, 농도를 증가시켜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방열재의 형은 구성비가 보다 일정하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압축력을 가진 사용구조에 대해서 보다 적당히 만들 수 있다. 거치론 표면을 가진 포리스타이렌 판은 거의 어떤 종류의 자재와도 결합시킬 수 있다. 예외로 무거운 압력이 가해지는 바닥에 있어서는 고농도의 거품이 판의 한자당 수천 파운드까지 압축력에 견디게 시공되어야 한다. 스무스(smooth)한 표면이 되게 만든 판은 특히 천정및 바닥과 같은 수평표면에 사용되게 한것이다. 그리고 우레탄과 비슷한 방열재를 사용한다. 프라스틱 기포의 단점은 고온도에 비교적 영향이 약하다. 고온도가 되면 연소가 되지 않은 동안일지라도 열을 가했을 때 기포가 분해되거나 또는 융해된다.

"후레온"이라 불리는 부푸른 "포리 우레탄"기포는 현시대에 상업적으로 가장 유용하고 가장 좋은 방열재로서 열전도 계수가 0.13에서 0.16까지 만들 수 있다. 이 포리 우레탄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레탄은 방습방증기 자재로 쌓인 방열재라는 것과 보다 낮은 온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냉장고 저빙실·금속판 판넬 등에 많이 사용한다. "후레온"까스가 새지 않으면 K획타는 0.15내지 0.16으로 안전하다. 사용도가 늘어나는 것은 값도 보다 헐할 뿐만 아니라 낮은 K획타를 얻을 수 있어서 비교적 방열재로서 포리스타이렌과 경쟁하는 것으로서 우레탄이 많이 생산된다. 또한 장점으로는 보다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어 좋은 방열재이다. 오늘날까지 판형방열재(Board Form)는 임계점까지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우레탄의 가장 주요한 장점은 기포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응용할 수 있어 좋다. 예를 들면 손잡이 기계(Portable Equipment)를 사용하여 건물 외각을 만들 수 있고 조인트(joint) 또는 쌤(seam) 이 없이 빈자리에 맞추어 필요한 방열재의 두께만큼 자유 자재로 집어넣어 만들 수 있다. 시공형태별로 따라 주의해서 시공하는데 따라 다르다. 그리고 기포를 만드는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현행 수직 표면의 방열재의 두께는 3/4° 로 기포를 형성시켜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나 보통 필요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장을 중복해서 시공하여 사용한다.

가공할 때 보다 더 두껍게 가공하여 쓰는 것이 안전하며 균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균일도는 기술자의 숙달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때에 방열재의 시공방식에 따라 크게 다른 성과를 가져온다. 보통 시공하고 있는 한가지 시공 양식으로 조립식 판넬 건물을 들 수 있다. 옛날부터 이 판넬은 금속·프라스틱 또는 금속을 입힌 합판의 두면 사이에 필요한 두께만큼의 방열재를 샌드위치 처럼 집어 넣는다. 여러 가지 많은 물질로 채워넣어서 손을 대지 않고 오래 두었다가 금속 표면이 뚫리지 않게 해서 판넬에 붙은 방열재는 완전한 증기의 장애를 보호한다. 그래서 방열재를 무한정으로 보호하여 성능을 발휘케한다.

조립식 판넬 건물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그런 구조를 세우는데 시공상의 필요한 인원을 감소 시킨다. 오늘날과 같이 높고 또 계속 오르고 있는 노무비로 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내부 빈 칸은 건물의 총 시공비의 큰 일부를 차지하므로 오늘날 판넬을 제작할 때는 구조틀에 잘 마추어 시공한다.

판넬 제조업자는 적은 건물이나 큰 건물이나 간에 방열재를 강한 구조로 시공하고 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유로서 슈퍼마케트의 뒷방에 들어 가는데 냉장실 또는 동결실을 설계할 때 적은 휴대용 상자를 가지고도 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자는 적으나, 가지고 다니기 알맞고 현행 판넬은 꼭 알맞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할 수 있다. 판넬산업은 이들 판넬의 크기에 따라 단순히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첫째번 판넬 제조업자가 이런 방열재 판넬이 이미 시장을 개척한 대신에 조립식 방열재 건물의 구조에 있어 재래식 방식이 줄어져가고 있다.

(1) 벽체 판넬은 천정에 지지되게 설계되어서 바람 등의 부하에 견디어야 한다.

(2) 빛 또는 살포장치의 내부로 강하게 지지되게 20자 가량 천정 판넬에 걸치게 한다.

(3) 냉동장치를 걸칠 수 있게 천정 판넬을 걸치게 한다.

(4) 금속표면 뚜껑에 비싸게 만든 천정에는 지붕

판넬이 필요치 않다.

(5) 미끄러지지 않은 철판 표면으로한 동결실에 대한 마루 판넬 및 전기 움직이 트럭(Lift Trucks)으로 옮길 수 있게 튼튼한 강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공은 비교적 판넬 시공비를 올리게 한다 그리고 건물의 전체 시공비는 실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

조립식 판넬 건물의 증가되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들의 도시에 화재 예방이 되어야 한다. 방열재의 역사 및 개발의 목적은 과거 30년간 하여온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옛날에 사용한 방열재보다 오늘날 값싸고 나은 방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냉동 기계 시설은 3배나 올랐으니 말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계자는 방열재의 두께를 같은 두께로 아직 시설하고 있다 방열재 판매 입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방열재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비교적 적게 사용해도 좋다고 한다. 어떤가는 또 말하기를 우리들의 방열재는 너무 싸서 그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 수년 전에는 기술자가 변화하는 온도차를 이용하여 콜크의 두께를 나타낸 챠트를 만들어서 시공했다. 너무나도 단순히 동결실에 있어서는 6″ 냉장실에는 4″로 시공했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설계자는 이 챠트를 복사하여 시공하고 있다.

오늘날 방열재의 값이 얼마이어야 하는가 값을 정하기에는 방열재의 여러가지 두께에 따라서 소유주의 연간비용 냉동냉장실의 운영 비용을 나타낸 챠트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하기로 는 방열재의 방열 시공비의 똑닥적 추정을 하는 것은 곤불이나 실내 온도의 최대 및 최소 방열재, 냉동기계의 운영비 및 투자 운영비 등에 따라 다른 것이나 실제면에 있어서 분석한다면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계획 추정은 다음과 같다

방열재 시공비—제일층을 시공하는데 또는 내면층을 시공하는데 1 Sq. Ft 당 US$ 1+보드 Ft 당 US$ 0.10

첫째번 시공 후 각층에 대해서 Sq. Ft당 US$ 0.15의 경비가 필요하다. 냉동기계 시설비는 냉장실 톤당 US$ 1,000,동결실에는 톤당 US$ 1,300. 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톤당 냉장실 US$ 1.50 톤당 동결실 US$3.00이 소요된다.

최대온도차—냉장실 60°F (33°C)

동결실 105°F (58°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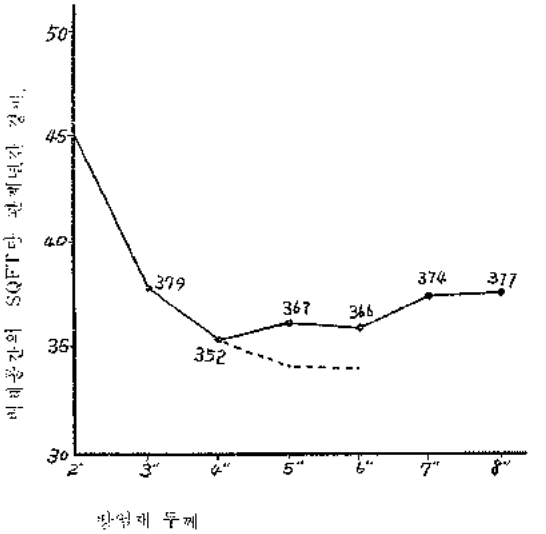
평균온도차—냉장실 30°F (17°C)

동결실 70°F (39°C)

운반비—총 투자비의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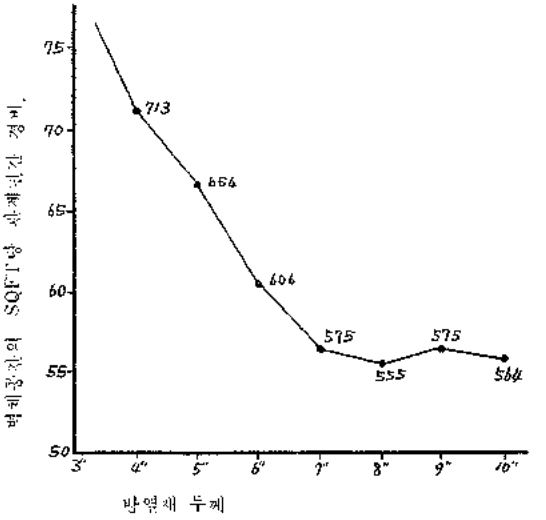
설치장소 및 사업규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이들 계획에 따라 시공된다. 그러나 이러 사업계획을 경영학적으로 분석한 지수 충분하고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6의 도표는 방열재 및 다른 어간에



(그림 1) 34°F 냉장실에 대한 방열재—톤당시설경비 US $ 1,000. (1.11°C)

따른 "열저도율"이 0.24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에서는 34°F(1 . 11°C)의 냉장실 그림으로 입체 그림은 2″내지 8″의 방열 두께에 대한 방열 표면의 Sq. Ft당 관계 년간 경비를 나타낸 것이다. 방열재의 값을 낮추는데는 2″내지 4″두께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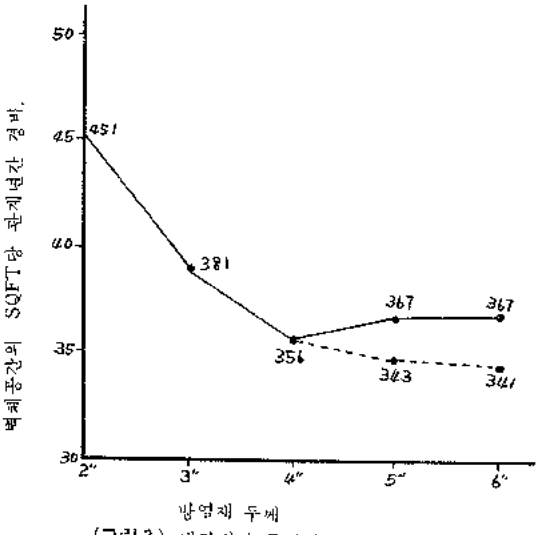


(그림 2) −10°F 동결실에 대한 방열재(−23.33°C)

여 두겹으로 하는 것이 좋다. 4″이상 일때는 점차로 경비가 증가한다. 냉동기계 및 운영비를 충분히 절감하는 데는 두겹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점선은 한겹 두께로 6″방열 시공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많이 시공하고 있기로는 3″두겹 두께로 보통 시공하고 있다. 두겹 두께로 시공할 경우 적어도 4″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그림 2는 −10°F(−23.33°C)의 동결실이 3″내지 10″의 두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동결실의 값을 최소로 시공하는 데는 8″두께는 되어야 한다. 방열재는 3겹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방열재를 8″두께로 시공하면 시공비는 더 오른다. 마치 냉장실과 같은 현상이 된다. 동결실에 있어서는 보통 6″가 아닌 8″를 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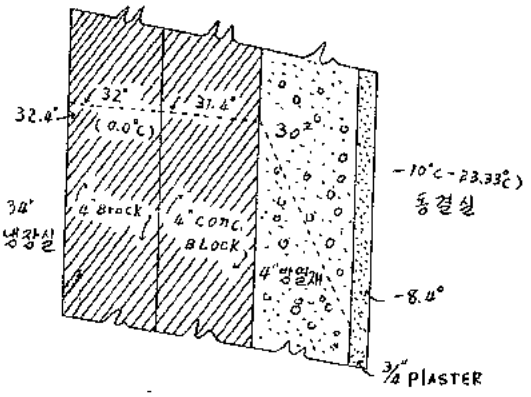
그림 3은 34°F 냉장실과 −10°F의 동결실의 중간



(그림 3) 냉장실과 동결실 사이의 벽체

벽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일반 모형으로 최적 두께로 시공비가 가장 적어야 한다. 이때 적정 두께는 4″이어야지 3″이어서는 안된다. 옛날 콜크는 한겹 두께로 6″를 하였으나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었다. 이 그림 3에서 가장 흥미거리인 것은 최적두께의 최소 경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이 두께보다 더 적게 들게 시공할 수는 없다. 1″두께로 하면 너무 적어서 최적정 두께 이상의 별도 2″의 연간 경비가 증가한다.

아주 적은 별도 방열재로 시공한 예를 든다면 그림 4에서 우리는 다시 그림 3에 벽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나 동결실에서 냉장실과 분리한 보통벽의 마주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벽체에서의 온도의 변화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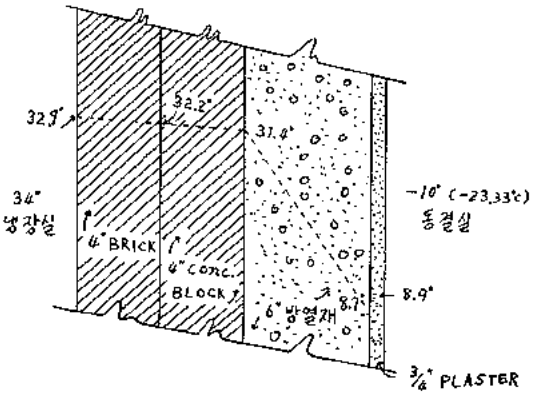
(그림 4) 냉장실과 동결실 사이의 벽체에 온도구성(등감도)

좌측 냉장실 쪽에서 시작해서 먼저 브릭(brick) 또는 타일(tile)을 4″두께로 시공한 다음 4″두께의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하고 다음에 방열재 4″두께를 시공한다. 이것이 가장 경제적인 면에서의 두께이다. 다음은 3/4″의 시멘트 프라스터를 입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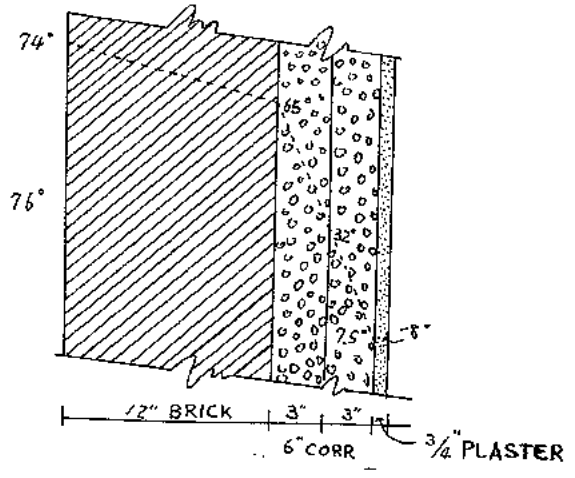
실내 온도에서 본다면 브릭(brick)의 표면은 32.4°F이고 브릭(brick)과 블록(block)의 사이의 접합점은 약 31.4°F가량이 된다. 방열재와 블록 사이의 접합점은 약 30.2°F이다. 냉장실측에 벽돌을 쌓은 표면 가까이에 얼어서 높은 습도가 형성되고 또한 씻어내린 수분이 생긴다. 동결점 이하에서 머무는 온도는 과히 나쁘지 않다. 그러나 종종 냉장실 온도가 설계한 온도 이상 약간 올라가는 수가 있다. 서리가 녹은 후 다시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동결한다. 반복된 동결 및 융해는 벽표면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태가 여러번 일어난다. 한 공장을 예를 들면 표면 브릭 타일 벽체가 한번은 미관상 좋았다 할지라도 1″또는 2″가량 방열재의 블록 시공에 벽 표면이 쪼개진다.

방열재를 4″두께로 할 것을 6″두께로 한다면 그림 5와 같은 온도 변화를 가져 온도는 벽돌조의 전 외면에 동결점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블록과 방열재의 접합부에는 관계습도가 약90% 이고 온도는 약 31.4°F(−0.56°C)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벽체 시공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방열재 또는 벽체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옛날 동결실 빌딩에 있어서 콜크는 벽에 떨어지고 적어도 내면층은 떨어진다. 동결된 벽체는 얼음이 녹자마자 방열재가 파괴된다. 그림 6은 이런 현상을 나타냈다.



(그림 5) 냉장실과 동결실 사이의 벽체의 온도차 구조.



(그림 6) 동결실 벽체의 온도 변화 구조.

3, 40년전의 아주 옛날 벽체의 온도변화 측면도를 설명하면 12″의 브릭벽에 3″콜크판 2장을 겹쳐서 방열 시공하고 3 / 4″시멘트 프라스터로 끝맺음 공사를 했다. 이 그림에서 본다면 −10°F의 동결실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지역에 평균 여름온도가 76°F (24.44°C)의 외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브릭과 콜크 사이의 증기장벽에 의한 온도는 약 65.3°F(18°C)로서 66°F (19°C)의 이슬점이 있어 70% 약간 낮은 습도가 된다. 관계습도가 약70%인 여름에 온화한 기후인 때를 본다면 증기 장해로 브릭공사할 때 응축한 수증기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을에 온도가 떨어 졌을 때 방열재와 벽돌집 사이에 결합부가 얼어서 부수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동결 및 융해는 증기장벽을 결과적으로 파괴한다. 방열재 속에 수분이 통과하게 놔두면 방열재는 증기벽이 잘 형성한다. 첫두께층에까지 동결하고 융해하여 판사이의 결합부를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층이 비틀거려서 여름동안에 동결점 이상 또는 이하로 온도가 변동한 점에서 다른 증기벽을 마주치게 된다. 방열재의 2층 사이에 생긴 얼음층을 만드는데 수십년이 걸린다. 벽돌층과 방열재 사이는 벽체에 방열재에 까지 얼음이 생긴다.

둘 또는 세 두께로 결합시켜서 방열재 시공을 잘 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실제 보급된 방열재보다 더 헐할 뿐아니라 한겹으로 시공한 것을 나타냈다. 한겹에 필요한 두께를 증기벽을 생기지 않게 해서 방열재판 끝 사이에 부착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열재는 무엇이든간에 따뜻한 측에 가장 가능한 증기 장벽을 얻는데 오래 동안 기술상의 비밀로 되어왔다. 그래서 냉장실로 증기가 옮기는 것을 방해하여 약간 관통할 수 있다. 냉장실에 증기는 증발기에서 응축할 수 있다. 벽에는 응축되지 않는다. 동결실에서 일을 한다면 벽 및 천정의 모든 중요한 접합점을 무시하고 벽과 벽 및 벽과 상을 무시한다. 특히 단단히 하여 방열을 잘하여 실내 온도가 저온으로 잘 내려가서 공기가 농축되어 파괴를 막아서 이 점에서 증기벽을 겹치게 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게 금이 가는 것을 막아서 동결실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게 한다. 가능하면 수 주일은 걸릴 것이다.

결론으로 방열실(냉장, 동결 및 저장실) 또는 기타 냉난방 건물을 설계할 때는 우리 자신의 두뇌와 생각을 충분 활용하여 30년간은 견딜 수 있게 완전하고 짜임새있는 시공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우수하고 값싼 자재로 가공하여 조립식 판넬의 경제성을 고려한 방열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포가 고루 형성한 방열재로 가공하여 올바른 시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식 방법으로 콜크를 복합층으로 겹쳐서 시공하여도 좋으나 벽에 증기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방열재의 적정 두께를 결정할 때는 설계하는 특수 직업인의 사명감을 살려나가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방열재가 더 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방열재 콜크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콜크만을 표준 방열재로 생각하는 폐습을 깨끗이 버리어야 한다.

—르네상스와 바록크의 건축 체계—

에밀 카우프만

— 편집자의 말 —

이 글은 카우프만의 『이성시대의 건축』(EMIL KAUFMANN;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195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제 2 部. 이태리편의 첫 章을 번역한 것이다. 『영국, 이태리, 프랑스의 바록크와 후기 바록크』(BAROQUE AND POST-BAROQUE IN ENGLAND, ITALY AND FRANCE) 라는 副題가 붙어있는 바와 같이 이 저서는 이 세 나라의 바록크세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 다루어질 이태리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PART Ⅱ ITALY

Ⅶ. THE ARCHITECTURAL SYSTEM OF THE RENAISSANCE AND THE BAROQUE.

Ⅷ. ITALIAN THEORIES FROM ALBERTI TO LODOLI.

Ⅸ. GIAMBATTISTA PIRANESI THE THRESHOLD OF THE NINETEENTH CENTURY.

이 책을 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무슨 문제가(아니면 화제가) 대두될 때마다 나나 나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모른다. 어떤 막연한, 그럴듯 하고, 그렇고 그런, 너도 잘 보르고 나도 잘 모르는, 『독창적』이라든가 『한국적』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앞주머니 뒷포켓 조끼주머니에서 마구 집어 나오는 어휘들에 우리는 피곤해져 있다.

할래리의 嚴密性을 고집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어나마 성실해질 필요는 있다.

× × × ×

우리는 바록크에 대해 막연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허나 바록크가 19세기에 이르는 도중에 무엇과 부딪쳤으며 어떻게 변질되었나, 소위 변증법적 전개가 어떠했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다이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 글을 싣는다. 중요한 것은 바록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바록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단지 19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 이태리가 거여한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우선 르네상스—바록크 체계(SYSTEM : 이 용어는 앞으로 차차 밝히자겠지만 構造라고 불러야 옳을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STRUCTURE라는 의미의 구조와 혼동될까 봐 체계란 말을 쓰기로 한다. ……역자주)의 역사를 개관해 보기로 하자. 당시 점점 퍼져나가고 있던 不安의 징후가 1750년대에 결정적으로 들어난 것은 그때까지의 과정가 급작스러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世紀에 걸쳐진 過程의 結果가 노출된 것이다. 이런 不安感은 실제의 건축물에서보다는, 실용에 대한 까다로운 비평, 혁신적이고 대담한 건축구성, 그라픽 미술(graphic arts)에 나타난 표현 等— 낡고 닳아 빠진 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건축질서의 추구를 예시해 주는 方向에서 그 출구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

× × × ×

이태리의 르네상스—바록크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나를 다루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체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맨처음에 영국에서의 변화를 먼저 다룬 것은 영국이 1800년대의 건축적 혁명의 첫 걸음을 내디딘 나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제 1부에서 영국을 다루고 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PART Ⅰ ENGLAND

Ⅰ. ENGLISH BAROQUE AND ENGLISH PALLADIANISM

Ⅱ. THE FIRST OPPONENTS OF TRADITION

Ⅲ. BELATED BAROQUE

Ⅳ. THE SECOND CRISIS OF TRADITIONAL COMPOSITION

Ⅴ. ROMANTICISM AND REVIVALISM

VI. THE END OF 'SCHOLASTIC REGULARITY' ……역자주)

이런 順序는 方法論的으로 유리한 점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르네상스 — 바록크 체계의 최종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초기단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 ×

우리는 통상 하나의 건축양식(style)에 대해, 어떤 몇가지 구조적 그리고 장식적 특징이, 다소간 變異(VARIATION)를 겪긴 하지만, 어떤 주어진 시기에 자꾸 반복되어지는 현상으로 생각해 버리고 만다. 이러한 특징이 어떤 특정한 양식의 純純의 結晶이라고 여겨지는 걸작에서 取해 지던가, 또는 몇개의 건물에서 골라낸 특징을 組合시킨 거든간에 우리는 한 時代가 이루어 낸 모든 것을 하나의 정점(climax)을 想定하여 여기에 集約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式의 하나의 정점에서 비롯하는 개념을 전개하는 것은 마치 복삼한 회랍어의 불규칙 동사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이런 假說(fiction)은 착잡한 현상에 어느 정도의 질서를 부여할지 모른다.

즉 무질서한 多樣性을 有用하게 극복할 수 있는 抽象作用으로서 그러나 건축의 성장과 展開의 意義는 우리가 양식(Style)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의 진실한 의미속에 뛰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양식의 정점(a stylistic apex) 이라는 오류를 깨트리기 위하여는 場(field)을 온통, 그리고 그것의 境界에 까지 파헤쳐 들어가야만 한다. 境界에 가서야, 어쩌면 그곳을 넘어선 위치에서 비로소 본래의 場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될 테니까.

境界라는 곳은 제각기 다른 潮流가 서로 얽켜있기 때문에 相互간의 구분이란 存在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史家들도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境界란 地域의 행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境界線上의 상황을 통해 정점의 정체가 처음으로 올바르게 나타나게 된다.

어떤 史家든지 境界의 位置에 서 가지고 고딕과 르네상스 두 특징이 얽켜있는 상황보다도 어떤 純純의 '고딕의' 정점이라는 영상에 (예를 들어 만일 그런게 가능하다면)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단순한 특징에(형태 form) 뿐 아니라 성격까지 포함하여; 後者는 뵐플린(Heinrich Wolfflin) 의한 樣式의 区分이 지니는 약점이다. 더더구나 단순한 형태는 일종의 영속성(persistency)을 지니고 있다. 人間은 그의 성조물이 만들어 낸 형태를 완전히 망각하지는 않는다. 그 형태는 다시 반복된다.

'再現' (REMVAL)은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고딕과 고딕의 재현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어떤 형태의 주기적인 소멸과 再現이와의 뿌리가 박히고 더 깊이 展開되어지는 또 다른 변화가, 더 깊이 다시 말해 부분의 상관관계가(the interrelation of the parts) — 내가 체계라고 부르게 될 — 짜는 변화가 존재하고있다. 그러므로 고딕과 고딕의 再現 또는 로마와 르네상스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바로 이 체계의 변화인 것이다.

× × × ×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자(因子)는 특정이나 형태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因子보다 더 중대하다. 체계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일반적인 정신세계(the general mental attitude)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좀게 말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상황이 부단히 변화를 겪고 있는 이상 건축체계도 마찬가지로 부단한 흐름(flux)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체계의 변화는 몇가지 요소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the whole)에 영향을 준다.

결국 역사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 창조하거나 수정하거나간에 — 바로 이 체계에 의해서다. 또한 특색(사실성(pictoriality)조형성(plasticity) 등등)의 강도를 부여하는 것도 이 체계에 의해서다. 그러나 형태와 체계는, 어떤 학구적 관심에서나 또 다른 예술적 이유에 의해서건, 過去의 체계에 나타난 형태가 다른 체계속에 등장하게 되면 서로 충돌하게 된다. 우리가 再現에 대해 불건전한 것으로, 어떤 때는 狂的인 것으로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형태는 재현된다. 그러나 체계는 그렇지 않다. 몇세기 동안 그리스의 형태는 여러번 나타났지만 어떤 시기에도 그리스식으로 구성된 住居는 없었다. 마치 인류가 아-콘테이트(archontate; 집정관의 임기)나, 콘술레이트(consulate; 집정정치)나, 세니트(senate; 원로

원)등의 옛 정치 제도를 모방하지만 아테네법이나 로마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것과 같이.

× × × ×

형태의 변화가 여하한 곳에서 일어나든 우리는 체계상의 어떤 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借人된 형태는 곧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는 드문 드문 발생하여 얼마간 있다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보통은 새로운 체계내에서 변형(transtormation)을 일으키게 된다. 때때로는 어떤 새로운 형태가 급작스러히 나타나는 것이 発展에 대해 어떤 制動을 거는 것 같은 인상을준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잠복기의 기간이 약간 길어졌을 뿐이고 준비된 결과가 노출되긴 마찬가지다. 厂史的 과정이란 끊임없는 완만한 進展(evolution)이다.

새로운 사상의 개념中 微量의, 따라서 감지할 수 없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갑작스러운 逆行(REVERSAL)이란 있을 수 없다.

× × × ×

가령 1800년 이전의 건축에서의 기하학적 형태처럼, 新奇한 형태가 돌연히 나타날 때 厂史家는 이 墳出을 센세이셔날한 事件으로 다루고 싶은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된다. 마치 마술사가 무대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 주고 싶은 것 처럼 어떤 결작은 장대하고 당당한, 未知의 곳에서 나타난, 전연 다른 성격의 大地에서 튀어나온 移石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나름의 厂史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조상과 후예가 그 자신을 잘 말해 주게 된다.

단순한 시간적인 무대의 나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厂史는 年代記가 아니다. 厂史를 記述하는 것은 제각기 相異한 潮流, 즉 어떤 때는 平行을 달리고, 어떤 때는 하나만이 압도적이긴 하나, 서로간에 항상 각축을 벌이는 潮流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한 分析을 거친 후에라야 여러가지 상황을 하나의 종합적인 모습으로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 × × ×

이 硏究에 사용될 체계의 개념은 完成(accomplishment)의 의미를 內包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경향(a trend)을 지칭할 뿐이다. 부분간의 특유한 상관관계개념을 완전하게 充足시킨 체계란 불가능하다.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와 더불어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적 활동과 유사하다. 각개의 체계는 각자의 自標를 향해 나아가지만 도달하지는 못한다. 조형예술상 어떤 특출한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일체성(unity)은 단순한 형태의 再現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가지 支配的인 內在관념(an immanent idea)에 의한다. 認識에 있어서 향상(Gestalt) 이 先行되는가는 論爭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창조과정에서는 先行된다.

위에 말한 內在관념에 가장 적대적인 요소는 전통(tradition), 현실적인 요구(practical exigencies), 재료의 특성 등이지만 가장 最惡의 것은 체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이다. 이 모든 것들은 끝없는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본래의 자기주장(self assertion)에서 출발하여 강조의 경향(tendency toward intensification)이 끼어 들고 內在律(the underlying principle)은 강열한 자기표현의욕에서 과장(exaggeration)으로 展開되어 드디어는 하나의 모순점으로 등장한다. 그런 과장은 필연적으로 종말을 촉진시킨다.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자면 反要素(adversaries)를 제압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쇠퇴한다. 그리고 드디어는 굴종하거나 내버려지게 된다. 이것이 모든 사회적 체계가 걷는 길이다. 예술체계라고 하등 다를 바 없다.

內部의 違和가 그 체계를 쇠퇴시키고 反要素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면 새로운 체계를 잉태하고 이것은 다시 同一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 × ×

건축체계의 발흥과 몰락의 개념은 19세기 양식의 난숙화, 성숙, 부패하는 과정과 전연 다르다. 후자는 자연발생적이며 또한 어떤 교훈적인 현상이다. 나는 각 시대마다 동등한 비중을 지니고 어떤 한 시기가 탁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예술적 완성(artistic perfection)이라는 빛나는 高地를 志向한다는 생각을 배제한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前世紀의 藝術評家들이 즐겨 신파조로 그려내던 어떤 훌륭한 文化的 생명체의 정체다. 다시 반복하지만 나는 모든 체계가 각자의 完成(fulfillment)을 위해 필사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상은 여러겹의 장애를 이겨 내야 생존할 수 있다.

反要素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되는 체계의 변질, 바로 이것이 예술역사의 주제가 된다.

× × ×

바록크에서 후기 바록크 건축으로의 변질을 論하기 前에 르네쌍스-바록크 체계가 지닌 固有한 弱点과 이 체계에 대한 反要素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藝術의 展開의 영구한 흐름을 어떤 변곡점을 경계로 "하강"(descending)과 "상승"(ascending)체제로 나누거나, 확실한 목표의 보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단계, 최종적인 소멸 등으로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후기 中世의 발전 전부를 훑어보게 된다. 다시 말해 르네쌍스-바록크 체계의 본질적인 특성의 기미가 보이는 한 그 끝까지 파 헤쳐 보아야 한다. 이런 특성은 美術史에서 흔히 転換点이라고 불리우는 시기 즉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서까지 추출될 것이다.

내가 "바록크 체계"라고 이름 붙인 개념은 르네상스에서 부터 바록크 본연의 시기에 걸쳐 깔려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시기를 간단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1900년 대의 美術史家가 남긴 업적은 르네상스와 바록크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혀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르네상스와 바록크 양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共有원칙이 그 前의 "中世체계"와 그 뒤의 19세기 체계를 배경으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르네상스는 구성요소(constituents)의 새로운 조직을 위한 시도의 첫 단계이다. 그리고 바록크는 이 목표에 도달키 위한 시도의 마지막 절망적 단계이다. 결국 르네상스는 바록크의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이상적인 조직을 성취하려는 노력은 바록크 시기가 더 열성적이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쪽 보다 美學的으로 優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단지 兩者의 史的 位値(the historic position)를 밝히려는 것 뿐이다.

나는 政治史에 있어서도 이런 類推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다. 즉 절대君主制는 17세기 말에 가서야 가장 完熟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 × ×

다음에 다루게 될 바록크의 발상지인 **이태리에** 있어서의 바록크체계사를 보게 되면, 위에 나온 일반적인 서술이 구체화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나는 중세 후기의 건축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지엽적인 얘기를 좀 해야만 되겠다. 나는 비투루비우스(Vitruvius)에 의해 集約된 古典的 이론과 르네상스-바록크의 이론간의 근본적 차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로마(Greco-Romen) 건축의 이상적인 구성과 中世 이후의 구성과의 차이점 말이다. 비투루비우스의 美學的 카테고리는, 자신이 명확하게 규정한 개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때문에 모호한 바가 있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즉 그의 카테고리는 모두가 어떤 定量的인 의미(a quantitative signifi-cance)를 內包하고 있다. 比例(proportionality), 또는 部分간의 완전한 數的관계(perfect numerical relations between the parts)는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定量的 美의 理想은 均整 symmetria)과 律動(eurythmia)뿐 아니라 整頓(ordinatio)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에도 균형잡힌 배치감각을 얘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定量的 의미를 지닌다.

대칭으로 놓이거나 주의깊게 算定된 거리(distance)를 지닌 물체는 同一한 가치를 발휘한다; 즉 형태가 同一하던 相異하던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古代건축에 있어서 기둥 하나하나는 同一한 位階를 지닌다; 페디먼트(Pediment; ; 박공벽)는 높은 데 있지만 컬러네이드(Colonnade ; 列柱)보다 優位를 차지하진 않는다.

그리스 신전의 요소들이 対等한 관계(co-ordinated)에 있는 데 反해, 파찌(Pazzi)성당의 前面中 側部(Side compartments)는 더 높고 넓은 中央베이(central bay)에 대해 종속적(sub-ordinated)인 위치에 있다. 또한 로마 판테온(Pan then)의 돔(dome)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성-피터(St. Peter) 사원의 돔은 크기와 형태에 있어 압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 × ×

정량적으로 완전한 理想型은 르네쌍스기를 통해 生氣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대의 사상가들이 〈정확한〉 計量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 넣었던가. 그러나 옛 형태의 再도입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외가 큰 것은 새로운 構成원리의 發芽(the rise of a new compositional principle)였다; 즉 部分은(parts)美학적으로 만족스러운 크기의 관계, 그리고 수학적 交互作用뿐만 아니라 主와 從的인 要素로서 變異된것이다.

이러한 變異(differentiation)가 個的인(individual)

건물內에서 자리를 차지한 다는 것은 고대에는, 어쩌면 '바록크' 단계까지 생소한 현상이었을 게다. 각 부분의 제각기 상이한 가치를 살리려는 中世후기의 구성방법을 세련된 요소들에 의한 하나의 하이어락키(a hierarchy)를 이루었다. 이 목표에 다달으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들이다.

속 연속(concatenation), 종합(integration), 位階(gradation : 질적이나 양적인 변화를 갖게 한다는 의미인데 합당한 용어는 없다)

× × × ×

史家들은 부루넬레쉬(Filippo Brunellesch :) 를 르네쌍스기의 최초의 大건축가로 일컫는다. 그러나 그들은 부루넬레쉬의 작품중의 새로운 요소를 다루기 보다는 그의 수법이 과거 어느 시대에 기원을 갖고 있나를 따지려 든다.

보데(Wilhelm Bode)만 하더라도 15세기의 르네쌍스건축이 진정한 의미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註1)

'르네상스 건축의 진정한 창조자'(註2)인 부루넬레쉬가 보데에겐 古典의 복사자이고 고딕의 한 추종자에 불과하다. (註3)

안델손(William J. Anderson)도 비슷한 견해를주장한다. 그는 파찌(Pazzi) 성당에 비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르넬레쉬가 로마건축을 복사했을 뿐이라는 데 대해 반박치 못하리라' 라고 단언한다. (註4)

그는 더 나아가 부루넬레쉬의 작품을 '비잔틴(Byzantine)전통의 흔적이 뚜렷하다' (註5) 덜가 '중세 技法의 연장'(註6)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윌리히(Hans Willich)도 고전과 중세의 두 영향력(influence)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註7)

쉬마르소우(August Schmarsow)는 부르넬레쉬 작품에 고딕이 再現돼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싼토·스피라토(Santo Spirato)의 콰이어(choir: 성가대석)와 트란셉트(transept : 袖廊 또는 翼部)를 끝내는 베이의 偶數(even number of bays)가 부르넬레쉬의 고딕적 감수성(註8)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루콤스키(G. K. Lukomski;)에게는 부르넬레쉬의 작품이란 古典的 특징이 몇가지 가미된 고딕일 뿐이다. (註9)

바움(Julius Baum)은 부르넬레쉬의 작품이 지니는 고딕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의 구성법(composition)에 대해서는 모호한 어휘로 얼버무리고 있다. (註10)

무어(Charles Herbert Moore; 註11) 와 슈브링(Paul Schubring; 註12) 도 루콤스키의 견해와 비슷하다. 무어의 부르넬레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파찌성당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평할 때 절정을 이룬다.

"이것은 祖惡한 건물이다. 왜냐면 部分들이 각기의 기능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註13)

이들중 게이뮐러(Heinrich Geymuller)만이, 나중에 차차 보게 되겠지만, 부루넬레쉬가 고전형태의 단순한 차용을 넘어서 "하나의 건축양식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푸랑클(Paul Frankl)은 부루넬레쉬가 전통에 대해 염오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註14)

× × ×

이런 見解들의 대부분은 영구한 흐름의 관념과 부합되고 고딕과 르네상스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루넬레쉬가 달성한 업적의 중요한 부분은 제쳐놓고 지엽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 × ×

벤츄리(Adolfo Venturi)는 푸로렌틴(Florentine) 성당 돔의 랜턴(lantern;頂塔)을 얘기하면서 버트레스(buttress:扶壁)와 고딕과의 不可分의 관계를 밝히는 기회로 삼고있다. 그리고 랜턴과 고딕 성골함(reliquaries)을 비교한다. (註15))

그러나 랜턴의 기둥과 버트레스를 잡아매 주는 스크롤(scroll;소용돌이 무늬)은 어떤 고딕형태보다 바로크 스크롤에 더 닮아 있다.

바록크체계의 근본적인 개념이 나타나 있는 例가 부르넬레쉬의 작품中에 몇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그만 한가지 특색 같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르네상스 본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파운들링 호스피탈(the Foundling Hospital of Florence;1421년 설립)은 부루넬레쉬의 첫작품인데도 이미 새로운 체계가 予祖되고 있다. (註17) 게이뮐러는 기다란 필라스터(pilaster;벽기둥)에 의해 이루어진 아케이드(arcade)에서 연속성을 찾고 (the principle of concatenation) 있고(註18) 이 병원에서의 훌륭하게 분화된 평면에 이미 건축전개의 의 앞날에(the further development of architecture) 막대한 영향을 끼칠 양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 (註19)

파브리치(Cornel von Fabriczy)는 팔라쪼·피티(Palazzo Pitti)의 소박한 작품에 意識的인 位階(gradation)가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한다. (註20)

× × ×

바록크체계는 파찌 (Pazz; Chapel; 1430) 성당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中心部에 중점을 둔 다섯부분의 포르티코 (portico; 柱廊현관) 이다.

성당前面은 나중에 팔라디안 모티프(Palladian Motif)로 유명하게 될 패탄(Pattern)의 시초이다. (註21)

構造는 外形뿐 아니라 內的으로도 몸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룬다. (註22)

* * *

혁신家로 부르넬레쉬를 다룸에 있어 우리는 本來에 그가 관여된 바가 무엇인가를 관찰해야 한다. 그의 중요성은 과거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뿐아니라 앞으로의 展開에 있어 그의 作業이 지니는 가능성에 있다.

* * *

초기 르네쌍스의 많은 작품에는 고전적인 外觀이 비교적 종속적인 위치에 속해있다. (註23)

이미 건축가들은 部分간의 연속성을 구체화시키는 技法에 熱中했고 (註24) 재료를 다룬 方法으로 처리 한다든가, 비례에 대해 사려깊게 고찰함으로써 位階(Gradation)를 나타내는 놀라운 技法을 찾아 냈다. 통일성과 종합성(unification and integration)은 수직 필라스터(Vertical pilaster)와 수평의의 간결한 패턴에 의해 확연한 속성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알베르티의 팔라쪼 루첼라이(Alberti's Palazzo Rucellai at Florence; 1446-1451); 로셀리노의 팔라쪼 피코로미니(Rossellino's Palazzo Piccolomini at Pienza; 1462) 그리고 칸첼레리아(Cancelleria in Rome: 약 1468) 등이다. (註25)

位階(gradation)의 좋은 例는, 石材의 처리법이라던가 층고의 변화등에 의해 표현되는 데, 미켈로쪼의 팔라찌 메디치-리카르디(Palazzi Medici-Riccardi by Michelozzo; 1444), 베네데토의 스트로찌(Strozzi by Benedetto da Majano; 1459년 시작), 쥬리아노의 쫀디(Gondi by Giuliano da Sangall : 1490)이다. (註26)

팔라쪼 디 베네치아(Palazzo di Venezia in Rome; 1455)는 銃眼(crenellation)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中世城채로 알려져 있다. (註27) 그러나 中庭의 아케이드만이 구성적 근거보다는 순전히 형태적 근거下에 르네쌍스거로 인정되고 외관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軸의 存在(axiality), 中央베이(central bay)의 강조, 층의 위계(the gradation of the stories)가 그것이다.

북부 이태리에서도 푸로렌스와 로마의 것과는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새로운 구성적 양식(new compositional Pattern)이 나타난다.

그것은 롬바르디의 산타·마리아 교회(註29) (Santa Maria dei Miracoli in Venice by the Lombardi; 1481)의 색채적인 교회뿐 아니라 체르토사(Certosa of Pavia)의 복사된 장식 (註28) 에서도 찾을 수 있다.

* * *

어떤 건물에서는 연속성이 지배적이고 어떤 곳에서는 位階가 지배적이다.

바로크형태의 이상적인 모습에 사로잡힌 건축가는 여러번 이런 고뇌에 빠졌으리라.

즉 이 이상을 구현시키려면 연속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位階(gradation) 에 그럴 것인가? (물론 이런 고뇌는 意識的 과정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일 이 두 속성을 同一하게 취급한다면 그 작품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다. 이러 이러한 兩者擇一性(alternatives)이 이 체계의 곤란성中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한다. 가령 건축가가 연속성을 택했다 하자, 곧 바로 그는 이것을 수평으로 전개할 것이냐? 또는 수직으로 전개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부닥친다.

또한 位階를 택했다 하자. 그는 각개層을 강조할 것인지, 휘사드(facade)의 수직축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적으로 이 양자를 다 택할 것인지. 이런 타협에 의해 우리가 흔히 보게되는 "T"字의 뒤집힌 모양, 즉 지상층이 강조되고 中心部의 上向力(upward surge of the center)과 對比되도록 된, 형태가 나오게 된다.

새로운 체계의 발생으로 이런 종류의 딜렘마가 생겨나고 새로운 이상적인 形象이 건축가들의 머리속에 아른 거리는 限, 그들은 이런 딜렘마와 맞붙어 싸워야만 했다. 라파엘이 빌라 파르네시나(Villa Farnesina by Raphel(or Peruzzi); 1511) 를, 비올라가 카프라롤라(Caprarola by Vignola; 1560) 를 다룰 때 그 새로운 체계가 내 놓은 모순때문에 당황해 한 것은 확실하다. (註30)

이들의 작품들이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는 걸 보면 이들은 문제점에서부터 몸을 도사린 것 같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가 로렌치아나(Laurenziana)의 입구에서 이 문제와 대결했다. (註31)

그는 편파적인 해결책을 시도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位階와 연속성 두가지를 과장시킴으로써 체계의 모순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 벽이라는 속박을 깨트릴 것같은 기둥은 水平要素에 의해 효과적으로 견제되고 있다. 內部의 처참한 분위기는 모순의 해결이 無望함을 고백하는 것같다.

팔라디오(Palladio)는 晩年에 수직적인 統一(Vertical unification)을 강조했다. 팔라쪼 발마라나(Palazzo Valmarana at Vicenza:1566;註32)와 산 죠르지오(San Giorgio;1566년 이후)와 산 프란체스코(San Francesco at Venice:1562)의 전면에 거대한 오더(order)를 도입함으로써 수평요소의 연속성을 깨트렸다.

× × ×

이러한 모순과 부조화를 담고있는 작품中 몇개는 몇몇 史家에 의해 소위 만네리즘(Mannerism)양식의 본보기로 취급되고 있다.

바로크에서 후기 바로크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이 序說에서는 이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고 단지 간단한 의견만을 쓸까 한다.

"만네리즘"의 특색의 의미가 무엇인가—하는 자극적인 문제에 흥미있는 사람은 바로크 체계가 점진적으로 進展된다는 내 관점과, 다른 史家들이 취하는 만네리즘에 대한 解說的인 관점과를 비교해 봄이 좋으리라. (註33)

내 입장으로는 적어도 건축에서만은 만네리즘 스타일을 도입하지 않는 쪽을 취하고 싶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네리즘"의 본질은 불확실성, 딜렘마, 표현에 대한 대담한 노력, 좀 강경하게 말하자면, 자가당착의 경향이다. 한편에서는 약점, 부조화, 假飾, 그리고 "부자연함"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劇的인 분출이 나타난다. 우리는 균형감각의 변화라든가, 主와 從要素 사이의 論理的 관계를 歪曲한다던가, 정통적인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게 된다. 이 모든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陽性的인 특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바로크 체계안에서 그 자신의 方向을 부정하려는 국면(phase)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陰性的 징후만으로는 하나의 스타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미 16세기에 르네상스—바록크 체계는 部分의 共存이라는 약간 새로운 형식의 관념(the idea of some new form of coexistence of the parts)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겪어왔으나 18세기에 와서야만 날카로운 위협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만네리즘의 시대는 건축적 혁명이 이루어질 만큼 무르익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18세기 말의 건축과는 대조적으로 만네리즘시대의 건축은 새로운 구성원리(new compositional principles)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같기 때문이다.

만네리즘의 자세는 매우 消極的(negative)이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는 이 방면의 권위자답게 성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즉 만네리즘의 작품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고…괴롭기만 한 고뇌……단절된 部分들……位階를 대신한 단조로움……어떤 지배적인 악센트의 不在," 기분좋은 比例에 대한 냉소, 더 나아가서는 "르네쌍스의 典型에……그리고 모든 부분의 균형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허나 만네리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르네쌍스—바록크의 관념은 굳건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축가들은 아직도 바록크체계를 완성시키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 * *

스뀨올라 산 로크(Scuola San Rocco; 註 34)의 훼사드는 로렌치아나와 같은 時代의 것이지만 메니스의 모든 경이를 담고 있는 듯한 전연 별개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체계의 內的인 모순은 담겨 있다.

초기 르네쌍스의 靜的인 낙천주의는 사라졌다. 16세기의 건축가들은 해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각 部分으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동시에 몇 부분에다 개성(Power)을 부여한다는 일이.

位階와 연속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도달될 수는 없다. 특히 位階는 본질적으로 종합(integration)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 * *

그러나 건축가들은 굴복치 않았다. 도리어 승리를 위한 투쟁은 더 열을 띠어 갔다. 건축은 르네쌍스의 靜的인 상태에서 바로크 난숙기(the High Baroque)의 흥분상태로 옮아가는 中이었다.

어떤 체계의 클라이맥스는 그 체계가 완성된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체의 反要素를 조화시키

려는 최대의 노력을 集中시키는 때이다.

흔히 어떤 건축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形象의 典型(ideal)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근본적이고 다소 막연한 개념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단지 변화가 있을 뿐.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또는 부분 사이의 관계는 어떤 체계의 지배적인 관념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변이(variation)는 무한하다. 예술가는 항상 새로운 해답을 찾는다. 이것이야 말로 예술이 전개되어 지는 本質(essence)이다.

만일 完成의 가능성이 存在한다면 또는 完成될 수 있는 관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술운동의 停帶를 意味하는 것이다.

*

이제, 사실은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체계의 성숙을 돕는 것 같은 要素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자.

部分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the trend toword intensified self-assertion of the parts)은 수직기둥, 필라스터(pilaster), 피어(pier), 그리고 수평띠(horizontal bands), 코니스(cornice) 등을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뼈대(framework) 안에 채워지는 부분이, 드디어는 全 表面이, 그리고 몸체(body) 자신이 퍼져나가고(expand) 움직거리기(move) 시작했다.

모든 요소가 통일과 分化(unification and differentiation)를 同時的으로 志向하는 과정에서 병렬으로 되었고 이러한 모순은 드디어 劇的인 比例로서 假裝되었다. 自己주장(self-assertion)에서 자기과시(self-exhibition)으로의 進展은 당연한 것 같으나 이런 進展이 자동적인 현상인지, 다시 말해 外的인 精神的 社會的 현상이 영향을 끼치거나 적어도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현상인지도 의심스럽다.

아마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건축의 형이상학(metaphysic)은 이런 문제를 초월한 곳에 있는 것이니까.

*

앞에도 나온 로렌치아나와 스뮤올라 상 로코는 수직과 수평要素의 충돌 뿐 아니라 뼈대(framework)와 함유물(filling) 간의 적대관계도 보여주고 있다. 뼈대가 강조되면 벽의 어떤 限定기능(confiring element)은 감소된다.

거대한 벽으로서는 불가능한 연속과 位階의 관념은 오직 뼈대만이 전달할 수 있는 것같다. 그렇기 때문에 훠사드의 관통(the piercing of the facade)은 바록크가 전개되면서 점점 그 폭을 넓혀간다.

베네치안 전통(venetian tradition)에서 초기에는 뼈대가 우선됐다. 즉 싼소비노의 팔라쪼 코너(sansovino's palazzo corner; 1532 : 註 35)와 그의 도서관(his Library; 1535 : 註 36)이 그러하다.

이런 현상은 베르니니의 팔라쪼 바르베리니(Bernini's Palazzo Barberini; 1630 : 註 37)의 훠사드와 롱게나의 팔라쪼 페사로(Longhena's Palazzo Pesaro in Venice; 1679 : 註 38)에서 極을 달리고 있다.

바로크 교회건축에서도 뼈대는 벽보다 훨씬 優位에 있다. 뼈대와 벽은 델라·포르타에 의한 산·뤼기(San Luigi dei Francesi by Della Porta in Rome; 1589 : 註 39)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졌다. 이 모순성은 베르미니의 산·칼로(San Carlo allo Quattro Fontane (1662-1667) by Borromini ; 註 40)에서 날카롭게 드러났다.

뼈대는 갈리레이의 산·죠반니(San Giovanni in Laterano(1735) by Alessandro Galilei; 註 41) 에서 支配的인 요소이다. 벽면의 관통은 표면의 연속을 위협하는 도중, 우연하게도 공간적인 통일성을 가져왔다. 즉 관통은 표면을 찢게 되나 內部와 外界의 연관성을 가지고 온 것이다.

*　　*　　*

건축가들은 수평과 수직성간의 갈등에 부닥쳐 초조했다. 그리하여 바록크 교회건축의 가장 뚜렷한 특색있는 형태인 볼류트(Volute; 渦形)를 해결책으로 삼았다. 볼류트는 이중효과를 가져 왔다. 하나는 上下層의 접속, 그리고 또 하나는 方向性의 갈등을 제거, 또는 완화시켜 주는 효과다. 이런 볼류트의 사용은 알베르티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Alberti's front of Santa Maria Novella 1448-1470 : 註 42)의 전면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고, 18세기 깊숙이까지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Cathedral of Syracuse, by Pompeo Picherali, about 1730 註 43) 여러분은 수평과 수직성을 조화시키는 노력끝에 나선형 탑이 나오게 되는 것을 생각해도 좋다. (Sant' Ivo by Borromini, 1642-1660 : 註 44, San Gregorio, Messina, by Guarini, 1660 : 註 45) 비꼬여진 기둥도 비록 곧은 기둥보다는 공간속에서 더 완전히 융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꼭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바록크의 모든 문제점은 델타·포르타의 일·게수(Il Gesù in Rome by Della Porta 1575; 註 46)의 훠사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수평과 수직성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전체內에서 각 部分이 우열을 다투고 있다. 입구위의 二重 페디먼트(pediment)와 측면의 스크롤(scroll)은 수직의 中心軸과 지상층의 수평성 사이의 완충지대가 되고 있다. 이것과 백년전의 팔라쪼·피티에서의 평정과 균형의 인상과를 비교해 보라. (註 47)

* * *

홍예 코니스(Crowning Cornice)는 르네쌍스를 사로잡았던 문제점이었다.

主코니스(main Cornice)를 맨 윗 한층만에 조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건물 전체에 맞출 것인가?

미켈란제로(Michelangelo)의 팔라쪼 파르니즈(Palazzo Farnese; 註 48)에서는 後者를 택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완전무결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크 체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체계에서라도 전체와 一個의 부분사이의 상반된 요구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 * *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르네쌍스기의 건축가들은 비례원칙에 하나의 신앙처럼 의존했다. 르네쌍스출판물의 많은 복사판뿐 아니라 바록크후기의 많은 논문을 보면 17, 18세기 건축가들도 이 원칙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초기의 신봉자는 알베르티(Leone Battista Alberti)이다. 그의 저작을 보면 바록크체계 학설의 요체를 찾을 수 있다. 나중에 다시 그의 美學을 다룰 작정이다. (註 49)

산·안드레아(San Andrea of Mantua 1470: 註 50)에서 알베르티는 中心 수직축과 수평부재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시도를 훌륭하게 이룩했다.

3층높이를 뚫고 지나가는 아케이드로 덮힌 포취(arcaded porch)는 다른사람이 흉내 낼 수도 없는 정도였다. 산타·마리아·노벨라는 수많은 교회의 原型이 되었다. 이 중에서 일·게수가 가장 세력이 큰 교회다. (註51)

산·안드레아의 거대한 아취는 수평 수직간의 다툼을 비웃는 것같다. 이것으로 훠사드와 몸체가 통일을 이루게 되지만 불행히도 전 후론트(front)가 찢겨 나갔다. 이것이 이후 300년 동안 건축가들을 사로잡은 不可解의 문제가 된다. 흔히 그들은 교회의 몸체와 전면을 통일시키려 하지 않고 후자를 하나의 독자적인 장식면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알베르티는 비록 성공은 거두지 못했으나, 훠사드의 평면적 패단과 깊이의 요소(element of depth)를 조화시키려 했다.

알베르티의 훠사드를 두개 나란히 놓고 본다면, 그가 바록크체계에 內在하는 갈등과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벌였나 느낄 수 있다.

× × ×

몸체와 훠사드가 서로 어긋나 있는 例로서는 델라·포르타의 산·뤼기(Della Porta's San Luigi dei Francesi; 註52), 마데르나와 소리아의 산타·마리아·델라 빗토리아(Santa Maria della Vittoria in Rome by Carlo Maderna and Giovan Battista Soria(begun 1605; 註53), 란타나의 부레쉬아 성당(Cathedral of Brescia by Gianbattista Lantana; 1604; 註54) 등이다.

갈리레이의 산·죠반니(San Giovanni in Lateranno by Alessandro Galilei; 1735; 註55)의 훠사드는 내부와는 거의 관계없이 遊離되어 있는, 무대장치와 같은 스크린일 뿐이다.

여하간 아취개구부는 어떤 바록크 입구와 비슷하게 깊이를 느끼게 해 준다. 훠사드 문제의 例外的 해결은 로마노(Giulio Romano)에 의해 시도됐다. 산·베네뎃토·포(San Benedetto Po; 1540; 註56)교회에서 그는 후론트의 패단을 측면에 까지계속시켜 통일과 조화의 효과를 이루었으나 돔(dome)의 존재를 흐리게하고 말았다.

뀨폴라(Cupola; 둥근 천장), 네이브(nave; 本堂), 훠사드사이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 측면을 지니고 있다. 바록크건축가는 上向의 돔과 不活性의 몸체를 조화시키고 이 둘을 평면적인 훠사드와 어울리게 해야 했다. 또한 통일성과 位階의 相異한 요구를 조화시켜야 했다. 내부의 처리는 儀式의 절차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것이었다. 聖壇(alter)의 最適의 위치는 확실히 네이브의 끝이다.

그러나 聖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돔이 그래야 될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르네상스中의 얼마간은 완전한 求心平面(the completely centralized plan)이 지배적이었다. 美學的으로 이것은 서로 각축하는 두 요소를 잘 타협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聖事(divine service) 에는

最適이 아니었다.

따라서 17세기에 와서 이 求心平面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얽켜있는 단계가 바록크 체계의 투쟁中 가장 중대한 단계가 되고있다.

브라망테의 산타·마리아·델레 그라치에(Bramante's choir of Santa Maria delle Grazie in Milan ;註57)의 콰이어에서 부터 유바라의 슈페르가(Superga by Juvara near Turin;註58)에 이르기까지 파란곡절의 사연을 전부 얘기할 수는 없다. 성·피터(St. Peter)의 얘기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을 거다.

모든 方向에서 부분을 통일시키고 어떤 형태가 지배적으로 되는 作業은 원형이나 다변형의 평면에서 거의 이루어졌다. 求心平面이 르네상스 초기에 이미 등장했다는 사실은 의미있다.

잠시 부루넬레쉬로 돌아가 산타·마리아·델리·안젤리(Santa Maria degli Avgeli about 1430 by Brunelleschi : 註59)의 평면을 하기 위해서는 악쓰·라·샤펠(the Cathe dral of Aix-la-Chapelle) 같은 머나먼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차라리 쥴리아노(Giuliane da Sangallo's Madonna delle Carceri, Prato, about 1485; 註60)나 부라망테(Bramante)나 미켈란젤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부루넬레쉬작품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될테니까.

산토·스피리토(Santo Spirito at Florence) 내부의 明澄함뒤에 교회건축의 두가지 相反된 원리가 이미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못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부르넬레쉬는 從軸의 네이브와 中心으로 向하는 제단쪽(east end)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야만 될 것으로 여겼다. (후자는 당연히 나머지 세방향에서만 열려있다.) 통일성을 얻기위해 그는 방 전부를 둘러 側廊(aisle)을 두었다.

× × × × ×

타협에 있어 극단적인 두가지 例는 로렌쪼의 산·알레싼드로(San Allessandro at Milan by Lorenzo Binago(about 1602) ; 註61)와 콜라의 산타·마리아·델라·콘솔라치온(Santa Maria della Consolazione at Todi by Cola da Caprarola(begun 1508) : 註62)에서 찾을 수 있다. 후자에서는 통일성을 강조한다. 즉 코니스(cornice)로서 부분들을 강력하게 잡아 매 주고 있다.

로렌쪼·비나고에게는 체계적인 位階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 회사드에서는 中心部의 포르티코(portico)가 頂点을 이루고 上向力은 두개의 副塔(satellite tower)을 거쳐 돔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런식으로 로렌쪼의 교회는 주위와 잘 어울리고 있으나 산타·마리아·델라·콘솔라치온에서만은 고독(solitude) 속에 홀로 우뚝 서 있다.

× × × × ×

바록크체계는 초기에는 內的모순과 외부여건에 별로 거리낌없이 문제들과 부닥쳐 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縱形의 교회형식(longitudinal church type)과 타협된 안이 점점 세력을 넓혀갔다.

페루치(Peruzzi)와 라파엘(Raphael)이 성·피터를 맡았을 때 그들은 求心平面을 버리고 말았다. (註63)

미래는 토디(Todi Type)형식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베네뎃토·포(San Benedetto Po)나 산·알레싼드로(San Allessandro) 형식에 속한, 다시 말해 變形된 그룹에 속하였다. 이것들은 실제적 요구에 더 잘맞았고 주위환경에도 더잘 어울렸다.

그러나 바로 이런 변형에 의해 앞으로의 붕괴는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산타·마리아·델라·살루트(Santa Maria della Salute at Venice by Baldassare Longhena (begun 1631) : 註64)의 경우를 보면 이런 나의 관찰을 확실히 해 준다. 이 교회는 求心形에 속하는 것 같으나 8각형의 主室과 파이어는 거의 서로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低位의 큐폴라(lower cupola)는 거대한 主돔뒤의 外廓에서 보이고 있다.

×

異教의 건축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운다. 쥴리아노의 빌라·레알(The Villa Reale at Poggio a Caiano by Giuliano da Sangalio (1483) ; 註65)은 中央홀이 있는 입방체이다. 팔라디오(Palladio)의 주택대부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길어진(elongated) 주택들이 초기의 密集形보다 더 유행되었다. 교회에서도 주위에서 격리되는 것보다는 화합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리하여 체계의 일반적경향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내는 또다른 모순이 발생한다. 건축가는 주거와 환경을 高密하게 융합시키기 위해 건물자체의 密集性을 깨트려야만 했다.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부분들이 완전한 個体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일체를 이룰 수는 없었다.

×

바록크의 특색이라고 말할만 한 디테일(detail)의 과장은 극적인 자기표현이라는 체계上의 경향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가장 섬세한 부분이라도 鈍해졌고 可塑的(plastic)이 되어갔다.

부분들의 과장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던간에 이의 결과는 調和의 喪失로서 나타났다.

생생하게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 완전히 체계를 좀먹어버린, 울트라-바록크(Ultra-Baroque)의 더테일은 비꼬인 기둥, 쎄미아취로 이루어진 페디먼트, 등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속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때문에 캐피탈(CAPITAL)주변의 코니스는 파괴되 버렸다.

×

팰라디아니즘은 서부유럽쪽에서 살아 남았다. 그 이유는 본래의 관념을 曲解한 울트라-바록크형식보다 바록크체계를 과묵하게 유지했던 점인것 같다.

+ ×

공간적 상호관계에 대한 과잉 강조는 팔라디오의 교회(Palladio's churches of San Giorgio Maggiore and Il Redentore at Venice(1576-1592); 註66)의 내부에, 그리고 主 앱스(Apse; 後陳)를 가리고있는 경쾌한 콜러내이드(Colonnade)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성격의 강조는 부분에 대한 과장 표현보다도 체계에 더 큰 해를 끼쳤다. 르네쌍스 중정의 아케이드가 외계와 내부를 딱딱하게 구분하는 느낌을 중화시키고 로지아(loggia)에 의해 매쓰(mass) 와 공간이 융합되어 어떤 공간적인 통일감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되어왔다. 결국 방들이 전체와 공간적으로 연관을 맺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드디어는 통일성이 가장 커다란 목표로 나타났다.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기계적이라든가 자율적인 현상이라고 말해버릴 수는 없다.

물리적인 변형은 형이상학적인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하는 世界에 녹아드려는 욕구에 의해.

바록크 체계는 유한(finite)에서 무한(infinite) 으로 넘어가게 될 운명이었다. 구멍(Void)이 벽보다 중시되고, 내부를 뚫고 비스타(vista)가 열리고, 벽면들은 거울로 뒤덮히고, 천정과 벽에는 환각적인 그림들이 그려지는 현상들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

건축물의 密集性이 사라지자 각 個의 부분들은 遊離되기 시작한다.

걸릿트(Cornelius Gurlitt)가 관찰한 바와 같이 (註67) 보로미니의 산·칼로(Borrominis San Carlo alle Quattro Fontane)의 소탑(corner furret)은 매쓰와 아무런 유대가 없다; 중앙 窓위의 캐노피도 마찬가지다.

피에트로의 델라 파체(Santa Maria della Pace by Pietro da Cortona(1655)와 베르니니의 상·앙드레아(Sant' Andrea al Quirinale by Bernimi (1678) (註68)의 半圓形의 포취에서 보로미니의 캐노피가 암시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부분의 遊離를.

느슨하게 연결된 포르디코는 1800년 경에는 다반사가 됐다. 그 도중의 작품으로는 베르니니의 델·아순타(Berninis Santa Maria dell' Assunta at Ariccia(1664); 註69)

그리고 유바라의 슈페르가(1718-1731)가 있다. 이것들은 소위 네오클라시시즘(neo-classicism) 의 초기로 여겨지고 있다.

×

내부공간이 하나의, 거의 독립된 個室로 分化되는 것은 살루트(Salute)에서 이미 예시된 대로 과리니의 교회(Guarinis church of the Consolata atturin 1979)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장방형의 홀을(실제로 또 다른 하나의 교회인데) 지나 몇개의 독립적인 다시말해 그 자체로서 展開된 방을 보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즉 다각형의 主 홀과 軸上에 있는 타원형의 祭室, 그리고 양측의 두개의 원형 채플(chapel : 예배당). (註71)

각 방마다 따로 큐폴라(cupola)가 덮힌다. 초기의 산·암브로지오(San Ambrogio at Genoa(finished by Lantana, 1589))에서 첫째, 둘째, 네째 側廊의 베이(bay)가 큐폴라로 끝나나, 一세째 베이는 배럴·볼트(barrel-Vault)의 트란셉트로 된다. 一側廊(aisle)의 연속성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 암브로지오, 살루트, 그리고 콘소라타(Consolata)가 내부의 분해, 부분의 이탈과정의 여러 단계를 표시해 준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일체성의 개념이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자, 부분들은 제각기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

×

자기 표현의 열띤 경향은 체계와 재료(material) 사이의 갈등도 빚어냈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拘束力(binding forces)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으로 石材의 適性(Pro-

priety)을 무시하게 되었다; 石材는 마치 부드럽고 유연한 유기적 質料나 되는 것 같이 취급되었다.

"남성적"도릭(doric) "여성적"이오닉(ionic), "單性的"코린시안(corinthian)의 형태에 안스로포모르픽(anthropomorphic; 神人同形同性說)한 해석을 내리는데서 築造藝術(tectonic arts)속에 인간의 육체나 동물형태를 도입하는 과정은 단 한단계 뿐이었다.

男像柱(atlantes), 女像柱(caryatids), 관절과 足같이 새겨진 가구다리, 분수의 사자머리, 돌고래, 등등 모든 것이 삼중의 근원을 갖고 있다; 즉 휴매니스트적인 골동취미, 당시 사회의 애나미즘(animistic concept), 그리고 바록크의 사상—즉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무생물에 형상화시킴으로써 불어 넣는다는 생각인 유기적 형태의 기능—이 세가지이다.

×

각개 부분이 갖는 조형성, 그리고 築造要素의엔스로포모르픽한 또는 애나미즘적인 변형, 이 두가지가 바록크가 갖는 특색中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르넬레쉬—미켈란젤로— 산소비노(Sansovino)—베르니니의 시기를 조각건축가(architect-sculptor)의 시기로 불러도 괜찮을 것같다.

* *

1. Wilhelm Bode, Die Kunst der Frührenaissance in Italien(Berlin, 1923) p. 42; "Dahen bringt die Renaissance der Architektur im Quattro cento keine wirklich nene kunst."
2. Ibid., p. 43; "der wahre Schöpfer der Renaissancebaukunst."
3. Ibid., p. 43
4. William James Anderson. The Architecture of the Renaissance in Italy (3 rd ed; London, 1901), p. 47; pl.
5. Ibid., p. 18
6. Ibid., p, p. 20·
7. Hans Willich, Die Baukunst der Renaissance in Italien bis zum Tode michelangeo's (Berlin, 1914), p. 17ff.
8. August Schmarsow, Gotik in der Renaissance(Stuttgart, 1921), pp. 10, 30, 32, Julius Baum, Bankanst und dekorative Plastik der Früihrenaissance in Italien (Stuttgart 1920), p. xxv, plan.
9. Georgü k. Lukomski, I maestri della architettura classica da Vitruvio allo Scamozzi (Milan, 1933), p. 15.
10. Baum, Bankunst und dekorative plastik, p. xxiv: "Renaissance... der anthropozentrischen Gestaltung im ganzen... klarheit... Grossartigkeit... Einfachheit."
11. Charles Herbert moore, Character of Renaissance Architecture (New York, 1905), p. 29.
12. Paul Schubring, Die Architektur der italieniscben Fru-hrenaissance(munich, 1923), p. 22.
13. moore, Renaissance Architecture, p. 31.
14. Carl Stegmann and Heinrich Geymuller, The Architecture of the Renaissance in Tuscany. American edition, with a preface by Guy Lowell(New York, n. d.), vol. I, p, vi. paul Frankl, Die Renaissancearchitektur in Italien(Lejpzing, 1912), p. 3 : Im ganzen stand Brunelleschi zur Tradition ablenned, ja Feindich."
15. Adolfo Venturi, Storia dell·arte italiano(milan, 1923), VIII, I, 96. Venturi is interšted chiefly in the single features, tne facades and the architectaral bodies, but illustrates only a very few plans.
16. Cf. part I, pp. 11 – 12, about the principles of the Baroque system.
17. Vo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54. Stegmann and Geymuller, Architecture of the Renaissance, ill. I, 7, plan and elevation.
18. C. Stegmann and H. Geymuller, Die Architektur der Renaissance in Toskana (munich, 1885), I, 8.
19. Ibid., 1, 7.
20. Cornel Fabriczy, Filippo Brunelleschi (Stuttgart, 1892), p. 337: "Schon Brunelleschi weder dort die Rustica ... mit vollem kunstlerischem Bewusstsein an; Schon er stuft ihre Bossagen nach den Renaissance, pl, VI.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98. The preblem of authorship cannot be discussed here.
21. Willich, Bankunst der Renaissance, pl. 11.
22. Ibid., fig. 28 . Baum. Banknst und dekorative plastik, il. p. xxv, section, p. 5, view.
23. Wil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p. 22: Der frühe Stil, der von antiken Formen sich fast unabhangig hielt..."
24. Paul Zuker, Die Bauknust der Renaissance in Italien (Berlin, n. d.), 11, 253, in dealing with crome later works, uses the meaningful term "Verspannung."
25.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s. pp. 72, 73, 74,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s. 111, 345, 712.
26.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s. pp. 66, 68, 69,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s. 183, 281, 307.
27. Wil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p, 95.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p. XXI; ills. p. XVII (exterior), p. 119. (courtyard)

28.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 . 9 . 29. Venturi, Storia delliarte, VIII, 11, fig. 578.

29.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 p. 36.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11, fig. 514.

30. Zucker, Baukunst der Renaissance, fig. 188. Venturi, Storia dellärte, XI, 1, fig, 332. Corrado Ricci, Architecture and Decorative Sculpture of the High and Late Renaissance in Italy(New York, n. d.), fig. 60, Farnesina. Zucker, Bankunst der Renaissance, fig, 227. Ricci Renaissance, fig. 148. Venturi, Storia-dell'arte, XI, II, fig, 664, Caprarola.

31. Ricci, Renaissance, fig, 116, Venturi, Storia dellärte, XI, II, figs, 62, 76.

32. Enciclopedia Italiana, XXVI, pl, XXXVII.

33. Enwin Panofsky, "Zwei Fassaden entwürfe des Dom. Becca fumi und das Problem des Manierismus in der Architektur," Städel Jahrbuch VI(1930), 70, points out the continuity and consistency of the early Baroque. About Mannerism as an architectural style, see Erwin Panofsky, Idea (Leipzig, 1924), pp. 39f. Ernst Michalski, "problem des Manierismus in der italienischen Architektur," Zeitschrift für kunstgeschichte II(1933), 88f., Hans Hoffman, Hochrenaissance, Manierismus, Frühbarock(Zurich, 1938). Nikolaus Pevsner, "Architecture of Mannerism," The Mint I (1946), 116~138, Richard Zürch, Stilprobleme der italienischen Baukunst des Cinquecento (Basel, 1947), Anthomy Blunt, "Mannerism in Architeture," Architects LVI(1949), 195~201. Colin Rowe, "Mannerism and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view CVII(May 1950), 289-299, Here I may add that Vasari's Uffizi Palace at Florence, the most widely, contrins a novel type of staircase with three parallel arms, two ascending to a landing, the central third continuing upwards in the opposite direction. Some authors believe this type to be a Spanish invention.

34.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 p.84. Venturi, Storia dell'arte, XI, 1, fig, 760

35. Ricci, Renaissance, fig, 275. Zucker, Baukunst der Renaissance, fig, 270.

36. Renaissance, fig 277, Zucker, Baukunst der Renaissance, fig 271.

37. Corrado Ricci, Architectura barocca in Italia (Stuttgart, n. d.), ill p. 122. Albert Erich Brinkmann, Die Baukunst des 17. und 18. Jahrhunderts in der romanischen Ländern (Berlin, n. d.), fig 82. Timon Henricus Fokker, Roman Baroque Art(Oxford, 1938). fig 138.

38 Ricci, Archifettura barocca, ill. 90. 140. Brinkmann, 17 und 18. Jahrhundert, fig. 129.

39. Cornelius. Gurlitt, Geschichte des Barockistiles in Italien (Stattgant, 1887). fig. 31.
Ricci, Renaissance, fig. 166.

40. Ricci, Architettura barocca, , ill. p. 14.
Brinckmann, 17. und 18. Jahrhundert, fig. 144. Fokker, Roman Barogue Aat, fig. 215.

41. Ricci, ibid, ill. p. 33.
Brinckmann, 17. und 18. Jahrhundert, fig. 148. Fokker, Roman Baroque Art, fig. 226.

42.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 p. 23.

43. Ricci, Architeffara barocca, ill, p. 30.

44. Brinckmann, 17. und 18. Jahrhundert, fig 120. Garlitt, Barockstil in Italien, fig 150.

45. Garliff, Barockstil in Italien, fig. 182. werner weisbach, De kunst des Barock (Berlin, 1924), ill. p. 146 . c f. wolfgang Born, "Spiral Towers in Europe," Cazette des Beaux- Arts, Ser. 6, vol. 24, pp. 233-248.

46. Ricci, Renaissance, fig. 164. Venturi, Storia dell'arte, XI. II, fig. 724.

47.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lc, ill p. 65. wi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pl. VI.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98.

48. Garlitt, Barockstil in Italien, p. 82. Brinckmann, 17. und 18. Jahrhundert p. 33; fig. 8. Ricci, Renaissance, fig. 84.

49. See Chapter VIII, below.

50. Baum, Baukunst und dekorative plastik ill. p. 19. Wil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p. 161, rightly emarks that the front of Santa Maria Nuova, Abbiate Grasso (fig. 177), has, basicaly, nothing in common with San Andrea at Mantua (fig. 92)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149.

51. Wil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fig. 88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135.

52. See note 39, above

53. Ricci, Architettura barocca, ill. p. 6 .

54. Ibid., ill. p. p. 9 .

55. Ibid., p. 33. Fokker, Roman Baroque Art, fig. 226.

56. Ricci, Renaissance, fig. 54. Venturi, Storia dell'arte, XI, I, fig 286.

57. Wil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fig. 169.

58. Garlitt, Barockstil in Italien, figs. 208, plan, 209. Ricci, Architettura barocca, ill. p. 26. Brinckmann, 17. und 18. Jahrhundert, figs. 125, 126.

59. Willich, Baukunst der Renaissance, p. 29; fig. 29. Bode, Kunst der Frührenaissance, p. 45,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106; fig 60.

60. Zucker, Baukunst der Renaissance, fig. 200 plan, pl, XII, perspective View.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299.

61. Garlitt, Barockstil in Italien, fig. 64. Ricci, Architettura barocca, ill. p. 8 .

62. Zucker, Baukunst der Renaissance, pp. 194 ff.; figs. 208, 209, Baum, Baaukunst und Renaissance, fig. 37. Venturi, Storia dell'arte, XI, I, fig. 800

63. Zucker, Ibid., p. 178.

64. Garlitt, Barockstil in Italien, p. 309; fig 124. Ricci, Architettura barocca, ills, pp. 11, 39. (interior)

65. Zucker, Baukunst der Renaissance, figs. 203, 204, (plan). Baum, Baukunst and dekorative plastik, ill, p. 106. Venturi, Storia dell'arte, VIII, I, fig. 316.

66. Enciclopedia Italiana, XXVI (1935), pl. XXXVIII.

建築學會 洪鵬義 會長

自宅을 訪問하겠다는 編輯者의 전화에 洪선생님은 저의들의 바쁜 시간에 그럴필요 없이 '내가 직접 가까운 곳으로 나가겠어요' 하신다. 그래서 12月 20日 日曜日 午后 3時 本部 근처의 H茶室에서 洪先生任과 人事를 나누었다.

編:「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洪:「오히려 이쪽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겠어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말에요」

編:「저의 건축사협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요」

洪:「네, 제가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協會의 代表者들이 1주일에 한번씩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세 단체가 보다 화목하고 친밀해 질 수 있고 건설적이며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編:「혹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洪:네, 우리 세協會가 共同主催가 되어서 高層建物 建立을 위한 종합적인 建築講演會를 한번 웅장하게 갖여 봤으면 해요. 강사로서는 세계적인 大家들을 國內에 초빙해서 말씀에요. 얼마전에 서울에서 개최한 世界 PEN 大會 처럼 말입니다」

編:「정말 말씀만 들어도 흐뭇한 느낌입니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이제부터 視野를 넓힐 수 있는 始点에 서 있는게 아니겠읍니까?」

洪:「그렇죠! 이젠 우리 세 기관 단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게 아니겠어요. 學會는 연구기관인 만큼 더욱 연구를 토대로해서 나가야 할 것이며 家協은 家協대로의 作家的인 개성미가 있겠고, 특히 「건축사」誌는 一線 業務에 종사하는 것인 만큼 會員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선 알아야 할게 아니겠어요? 또한 편집자는 一線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하는 点도 연구해서 그 方法을 잘 연구하고 취사선택해서 나간다면 훌륭히 발전될 줄 믿습니다. P. R에 치우치지 말고 '디테일'이나 기능적인 제시를 해야 하겠죠」

編:「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洪:「저의 學會誌는 연구를 70%로 하고 '데이타'를 30%로 하고 있는데 비해 「건축사」誌는 실질적인 內容을 70%로 하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編:「저의 잡지에 게재되는 「會員作品」에 対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요」

洪:「역시 會員作品이라면 各己 그 作品마다 特異性이 있어야 겠어요. 구조라든가 '디테일'한 点이며 材料 또는 施工法 等等 그 作家의 남다른 個性的인 것을 바라고 싶어요. 그리고 亦是 「건축사」誌는 會員 서로간의 対話의 廣場을 마련해서 마음의 궁금증을 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믿음을 주어야 하겠죠.」

編:「이밖에 참고로 해 주실 말씀이라도…….」

洪:「역시 建築家도 藝術家가 아니겠어요. 自己가 설계한 作品이 준공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장본인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준공도 하기 前에 사람들이 建物을 짓밟고 손을 대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 봅니다. 文學家나, 藝術家들은 自己의 作品은 自己의 分身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오히려 建築家야말로 自己의 설계에 의해서 세워진 그 건물은 마치 내 자식 같은 애착이 가는 것이니 말에요. 建物의 大小를 막론하고말입니다」

編:「끝으로 士法 22조에 対해 말씀 해 주십시요」

洪:「一部 學会에서 삭제의 지지를 하는 듯한 인상으로 士協에서는 오해를 한듯 합니다만 士協의 姜奉辰会長任과 더불어 세協会는 더욱 우의와 合心協力해서 나간다면 建築界에는 큰 發進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編:「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계 소식

네美觀地區마련

(서울市 建築條例 公布)

서울市는 11月10日 서울特別市 美觀地區內 建築條例를 公布했는데 그 美觀地區는 다음과 같다.

一種地區; 都心, 主要거리에 位置한곳. 길이 18m, 폭 9 m, 5 層以上.

二種地區; 副都心, 空港 等 연결도로변 길이 12m, 폭 6 m, 3 層以上.

三種地區; 主要觀光道路 주변일대. 길이 12m. 폭 6 m 2 層以上.

四種地區; 古有, 民俗정서, 유지한곳. 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市는 이 地域안에는 都市美觀을 해칠 우려가 있는 工場, 창고, 고물 및 철물취급점포, 저탄장, 교도서, 정신병원, 마약환자진료소, 장의사等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밖에

①전면도로면에 2層이하의 부분에 배기시설을 할 수 없고,

②조명은 주위환경에 맞도록 하고.

③광고물및 전광판은 벽면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④세탁물진열대, 철조망, 장독대等을 外部에 노출시키지 못하게 되여있다.

서울市가 이 條例에 따라 확정시킨 각종 美觀地區는 다음과 같다.

◆1種 集團美觀地區

南大門地區(小公洞~南大門路)~乙支路 入口안. 3만9천8백坪.

◆1種路線 美觀地區

ㄱ) 中央廳앞~서울驛앞 2천m.

ㄴ) 市廳앞~義州路네거리 8백50m.

ㄷ) 南大門~韓銀앞~乙支路入口~和信앞 1천2백91m.

ㄹ) 世宗路廣場~和信앞 4백7m.

ㅁ) 積善洞~靑瓦臺~中央廳앞광장 2천2백50m.

◆二種路線 美觀地區

ㄱ) 서울驛廣場~永登浦區廳앞~金浦街道起点 8천7백25m.

ㄴ) 義州路2가 네거리西쪽~제2漢江橋南쪽 5천28m.

ㄷ) 漢江人道橋~銅雀洞국립묘지 2천6백m.

ㄹ) 往十里로터리～廣津橋 7천5백m.

ㅁ) 南大門～南山어린이놀이터 3백70m.

ㅂ) 第一漢江橋～江辺一路～金浦空港 1만5천6백m.

◆三種路線 美觀地區

ㄱ) 南山洞一街～漢南洞삼거리 4천2백m.

◆四種路線 美觀地區

※ 추후 결정

(海外消息)

建物主에 賠償要求
(天然色 TV 볼수 없다고)

미국 '시카고'市에 있는 100층 높이의 '존·행코크' 빌딩의 아파트 63층(월세520달러)에 세들어 있는 '요르단·카루치'라는 사람은 建物位置의 不合理性 때문에 그의 아파트에 있는 천연색 TV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아파트 주인을 걸어 5만 달러(약 1.5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니……

汝矣島에 50萬名 收容 各種모범 施設 着工

서울市는 汝矣島에 50萬市民이 모일수 있는 大廣場을 마련 各種行事및 競技大會를 할 수 있는 示範廣場을 마련키 위해 71년初에 着工 上半期內에 完工할 予定이라한다. 그런데 將來에는國會 議事堂에 市廳까지도 移轉할 것을 구상하고 設計한 이 汝矣島大廣場은 美國 워싱턴의 記念塔및 링컨 記念館. 로호메크 廣場등을 模倣한 T型의 大廣場으로써 總坪數 8萬4千坪에 坪當 6人씩 잡아 總收容 50萬名以上을 目標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對한 工事費는 汝矣島 開發費에서 5억원을 充当키로 했다한다.

漢江民榮아파트 22個棟 建築

大韓住宅公社는 總工事費 10억3천만원 規模의 「漢江 民榮아파트建築工事」 22個棟이 10개 工區로 分離 建設業界에 發注했다.

그런데 明 71年8月31日까지 完工하려는 이 10個工區工事는 鐵筋콘크리트造 地區 6層規模 10個棟과 5層規模 12個等 都合 22個棟을 新築하는데 世帶当 建坪은 約 20坪으로 7백60地帶를 收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組立式 建築資材工場 明年初에 建設

建設部는 庶民住宅用 建築資材 生產을 위한 韓日合作 건축자재工場(가칭. 韓成프리헤브 株.) 建設을 承認. 住宅公社에서 늦어도 71年初에는 工場建設에 着手할 計劃이라하는데, 主生產은 庶民住宅 건설을 위한 P.C콘크리트 벽돌을 비롯하여 規格화된 建築資材等이라고 한다.

한편 建設部와 住公은 韓日合作建設工場에서 建築資材가 生產되면 一次的으로 一千2百家口에서 一千8百家口가 入住할 수 있는 庶民用 아파트(13坪 규모)建設에 着手할 方針이라고 한다.

建築技術者 講習會 案內

건축기술자의 자질향상과 1971년도 4월경에 있을 예정인 건축사 시험과 건설기술자 면허시험에 의하여 사계 권위자를 초빙코 아래와 같이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기간: 1971. 1. 12～1. 26. 까지
접수기간: 1970. 12. 15～1971. 1. 5까지
내 용: 전과목. 시간은 매일 오후5시50분～9시20분까지
강 사: 건축택스트북 집필위원. 건축사. 건설기술자. 면허시험위원.
교 재: 건축택스트북.
수 강 료: 1인당 6,000원 (학회회원은5,000원)
장 소: 電氣會館강당 (中區水標洞11～4)
연 락 처: 대한건축학회 (22)5866 (23) 4809

建築設計 事務所 整備 指針 마련

서울市는 建築士의 自質向上을 위해 이들의 업무취급요령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정비지침을 마련 대한건축사협회 서울市支部長에게 通告하고 12月15日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指針에 따르면 건축설계사무소는 대서소, 복덕방 청사진等 다른 업무를 함께 영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건축설계사무소는 사무소를 25m²(7평) 이상 확보하고 제도 및 설계에 필요한 시설은 3대 이상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는 12月15日 까지 이같은 조건을 이행토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규모가 적은 건축설계사무소는 合同 사무소를 차리도록 했다. 이 기간내에 이행치 않을 때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그뒤 1개월 안에도 이행치 않을 때는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한다.

"나의 提言"

白金龍会員 (慶南支部)

問：本部의 各種指示事項等이 地方会員에 까지 잘 傳達되지 않고 있는데…….

答：各支部에 指示하고 있아오니 해당支部長 에게 建議하여 주십시요.

問：會員名簿에 사진을 싣었으면 합니다.

答：회원명부는 각회원의 업무연락과 관계기관관서에 제공되며 간혹 설계지명요청서에 첨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진게재는 부적하며 앞으로 귀하의 제안을 존중하여 전국건축사 앨범 제작 추진을 연구토록 하겠읍니다.

高錫圭会員 (慶南支部)

問：官公署 및 自治団体에서 登録없이 工事監理等을 하고 있는데 이에 対한 是正策을 문의합니다.

答：理事会에 正式案件으로 採擇하여 愼重히 檢討하여 强求策을 論議토록 하겠읍니다.

朴正郁会員 (慶南支部)

問：代議員은 2年任期로 하여야 予算審議等의 実情을 파악하고 處理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니 그 任期를 2年으로 하여 주셨으면…….

答：貴下의 질의는 總会決議事項임으로 比期 總会時에 案件으로서 提案할 것을 연구하겠읍니다.

李正燮会員 (慶南支部)

問：各会員들의 建議事項等을 会誌에 記載하여 주셨으면…….

答：貴下의 建議事項은 既 11月號부터 계속 記載하고 있읍니다.

조태화会員 (慶南河東分所)

問：本部의 過去질의 事項等을 初回부터 현재까지 프린트해서 配付하여 주셨으면…….

答：過去会誌에 記載되여있고 앞으로의 질의사항等은 本誌를 通하여 계속 記載하겠읍니다.

강대기会員 (慶南三千浦分所)

問：표준품셈표의 配付를 해줬으면…….

答：표준품셈표의 가격은 1,800원입니다. 본부에 우송하여 주시면 구입해서 발송해 드리겠읍니다.

張起仁会員 (서울支部)

問：회지건에 대해서 한말씀 건의합니다. 외국서적의 번역물로서 회지의 많은 지면을 메꾼다는 것은 회지로서의 사명이 아닌것인만큼 회원을 보다 위한 다양한 기사를 게재해 주었으면 합니다.

答：11월호에 앞으로 회지의 편집계획을 발표하였읍니다. 회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김팽남会員 (제주도支部)

問：本部에서 印刷所를 經營하여 全國 各支部의 大小用紙 印刷의 편의를 주었으면…….

答：貴下의 질의는 理事会議의 案件으로서 理事会에 反映하여 연구토록 하겠읍니다.

康堯俊会員 (제주지부)

問：大韓建築士協会 会員의 앨범을 製作했으면 합니다만…….

答：製作추진을 적극연구하겠읍니다.

이수근会員 (慶南鎭海)

問：新規資材의 時勢와 用途 紹介 및 会社의 価格을 会誌에 記載하여 주십시요.

答：12月號부터 資材時勢表를 記載하고 있아오니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창규, 유경철会員 (서울支部)

問：未加入者 建築士에 対한 協会로서의 건축사誌 配付 特惠는 없는지요?

答：예산 관계상 다음 年度까지 보류해 주십시요.

建築許可統計 및 그 동향

1. 建築許可 對象은 都市計劃法, 建築法에 依據 建築許可 對象地域, 市級 32個, 邑級 87個, 面級 15個 모두 134個 地域에 該當한다.

2. 建築許可 對象建築物은 建築法 第五條에 該當하는 建築物.

가. 特殊 建築物用에 供하는 延面積 100m² 以上인 것.

나. 延面積이 300m² 以上이거나 3層以上인 木造 建築物.

다. 延面積이 200m² 以上이거나 2層以上인 木造以外의 建築物.

라. 其他 都市計劃 地域內 및 1, 2級 國道中心線으로 부터 500m 以內 地域建物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

3. 10月의 建築動向

全國都市計劃 用都市 134個 地域에 對한 建築 許可 統計를 中心으로 分析해 보기로 하겠다.

가. **市道別 許可現況**

延面積＝M²

市道別	年度別	10月 '69	10月 '70	10月 對比(%)	1～10月 '69	1～10月 '70	1～10月 對比(%)
서울	棟數	3,555	4,267	20.0	26,737	33,143	23.9
	延面積	409,631	358,873	−12.4	3,679,938	4,378,738	− 8.9
釜山	棟數	1,030	1,326	28.7	7,122	10,517	47.7
	延面積	133,382	136,266	2.2	1,086,566	1,176,354	8.3
京畿	棟數	649	995	53.3	4,908	7,620	55.3
	延面積	72,989	165,002	126.1	678,552	1,169,790	72.4
江原	棟數	160	327	104.4	1,311	2,410	83.8
	延面積	14,957	23,204	57.0	133,911	159,538	83.8
忠北	棟數	157	234	49.0	1,391	2,121	52.5
	延面積	15,607	15,434	− 9.8	143,207	182,811	27.6
忠南	棟數	351	503	43.3	3,058	4,939	61.5
	延面積	37,255	37,198	− 9.9	271,213	373,497	37.7
全北	棟數	254	332	30.7	1,795	3,197	78.1
	延面積	21,307	38,373	20.1	191,787	308,571	60.8
全南	棟數	2,795	574	−79.5	6,186	4,896	−20.9
	延面積	221,558	34,939	−84.1	552,722	340,271	−38.5
慶北	棟數	1,025	1,039	1.4	7,528	9,398	24.8
	延面積	87,204	88,648	1.6	720,019	881,142	22.4
慶南	棟數	339	460	35.7	3,022	3,122	3.3
	延面積	38,100	38,652	1.4	411,608	393,011	− 4.5
濟州	棟數	102	125	22.5	829	1,049	26.5
	延面積	9,227	3,764	−59.2	196,361	78,340	−60.1
合計	棟數	10,417	10,182	− 2.6	63,887	82,412	28.9
	延面積	1,061,017	940,353	−11.4	8,065,884	9,442,063	17.0

나. 用途別 建築現況

延面積－M²

用途別	年度別 / 種別	10月 '69	10月 '70	10月 對比(%)	1～10月 '69	1～10月 '70	1～10月 對比(%)
住居用	棟數	8,910	9,033	1.3	53,699	72,120	34.3
	延面積	548,438	581,386	5.9	4,075,562	5,240,614	28.5
産業用	棟數	982	772	-21.4	6,514	6,383	-2.1
	延面積	254,974	148,908	-41.8	1,670,852	1,772,456	6.1
工業用	棟數	239	147	-38.5	1,731	1,708	-1.4
	延面積	137,687	112,311	-18.4	1,214,789	1,274,343	4.6
文教社會用	棟數	148	90	-39.2	768	1,029	33.8
	延面積	91,936	48,811	-47.9	588,041	657,997	11.9
其他	棟數	138	140	1.4	1,175	1,172	-0.3
	延面積	27,932	48,937	75.1	516,640	496,655	-3.9
合計	棟數	10,417	10,132	-2.6	63,887	82,412	28.9
	延面積	1,061,017	940,353	-11.4	8,065,884	9,442,063	17.0

註

住居用建築物：住宅, 共同住宅, 住宅併用事務室店舗

産業用建築物：店舗, 車庫, 旅館宿泊所, 倉庫, 市場, 料理飲食店, 浴湯, 銀行事務所, 劇場, 危險物貯藏庫

工業用建築物：工場

文教社會用建築物：學校, 病院, 敎會, 官公署

其他：以外 모든 建築物

다. 構造別 建築現況

延面積：M²

構造物	年度別 / 種別	10月 '69	10月 '70	10月 對比(%)	1－10月 '69	1－10月 '70	1－10月 對比(%)
鐵骨및鐵筋造	棟數	882	839	-5.1	7,046	7,806	10.8
	延面積	4 08113	330,656	-19.1	3,846,019	4,195,196	9.1
組積造	棟數	6,043	6,971	15.5	38,110	54,484	42.9
	延面積	452,452	441,107	-2.6	3,083,094	3,961,372	28.5
木造	棟數	1,450	965	-33.4	6,689	8,930	33.5
	延面積	78,748	56,874	-27.8	412,068	530,748	28.7
其他	棟數	20,420	1,407	-31.2	12,042	11,192	-7.2
	延面積	121,704	111,716	-8.3	724,703	754,747	4.1
合計	棟數	10,417	10,182	-2.6	63,887	82,412	28.9
	延面積	1,061,017	940,353	-11.4	8,065,884	9,442,063	17.0

건축상담

건축법에 관한 질의

(대 전남 광주시 계림동 505~129
박 영 희
법무 810-1931(70. 2. 9)

1 질 의

본인은 금번 광주시 계림동 478번지의 7호에 건축물을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공 완료하고, 건축 준공신고를 하였던 바. 시공착오로 인하여 건축법 제39조 제1항(공지비 관계)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광주시청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2.000원의 과료처분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신

건축법 제55조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았다하여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는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에 맞추든지, 아니면 대지를 더 확보하여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를 맞도록 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한 후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관계법령 질의

(대 경기도 수원시 교동 90번지
개풍 건축설계사무소 2급건축사
박 용 외
법무 810-2444(70. 2. 19)

1 질 의

표기건 다음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유권적인 해석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도시계획구역내의(지구결정이 없는) 상업지역내에서 건물(사무소)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당해 대지가 행정관청의 청사확장계획에 저촉될 예정이라하여 청사확장계획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확정시일은 미정임) 허가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가, 청사부지 용지매수가 토지소유자와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대지에 건축을 못하게 함은 소유권의 침해가 되므로 건축하게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의 교지를 바랍니다.

나, 토지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의 교시를 바랍니다.

다, 예비조치로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면 그 법적근거는 어떠한지 교시를 바랍니다.

마, 청사확장사업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은 어떠한지요.

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치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 법적근거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신

가, 질의 '가' 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청사부지확장내부계획에 저촉된다 하여 토지사용권이 당해 관청에 없는 사유대지에 건축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나, 질의 '나' '다' '라' 항에 대하여

토지주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 질의 "마", "바", "사" 항에 대하여

청사확장사업은 도시계획사업과는 별도의 것이나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의 소정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부칙 해석에 관한 질의

(대 부산시 중구 충무동 2가 3번지 남도 설계사무소 1급건축사 박 윤제

법무 210-8621 (70. 5. 30)

[1] 질 의

별지 (생략) 배치도와 여히 학교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1, 2호에 의거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래 참고 사항을 참작 교시하여 주십시요.

"참고"

가. 기존 건물은 전부 1960. 6. 16자로 허가를 얻어 건축하였음.

나. 기존 건물 건축시는 용도지역 지정이 없었음.

다. 건축주 및 대지소유자는 문교부 인가를 득한 학교법인임.

라. 건축장소는 기설 운동장 일부임.

바. 현재 시(市) 부지증명은 공원예정지역임.

[2] 회 신

건축법 제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경역 안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으나 동법 부칙 제4항은 본법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부칙 제2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물의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일정한 제한하에 당해 건축물이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있어서 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법령부칙의 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기득권이 도시계획이라는 공익성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점차적으로 용도지역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끄려 가려는 즉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제한범위 내에서는 용도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증축(학교증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영주택법시행규칙해석에 관한 질의

(대 내무부장관

법무 810-6284 (70. 4. 29)

[1]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일반회계 소속 토지상에 공영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고 그 건물과 부지를 무 주택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영주택법시행규칙 제3조(건설실비) 제1호(대지조성비)는 토지 자체의 종전 가치를 제외하고 대지로 조성한 단순한 조성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토지가격과 단순한 조성비를 포함한 현재 대지로서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나. 일반회계 소속 토지상에 공영주택을 건설하고 주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당해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할 경우, 토지 대금수납 방법을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하는지?

[2] 회 신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공영주택법시행규칙 제3조(건설실비) 제1호의 대지조성비라함은 공영주택의 건설에 공여된 토지를 공영주택건설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공영주택건설에 공여된 국·공유지의 토지대금 수납방법에 대하여는 공영주택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각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

(대 충청남도지사

법무810-9104 (70. 6. 11)

[1] 질 의

대전시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단지내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게 되는 바, 대전시가 조성한 공업단지 부지의 소재지가 대전시 관할구역 이

외의 대덕군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이 다르므로 동일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자라도 건축허가는 관할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덕군 회덕면 읍내리는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승인에 의거(건설부 고시 제1903호(651013)) 대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대전시 공업단지조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할 행정구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업단지 조성 사업상 행정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일괄 건축허가를 취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신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동 공업단지의 건축허가는 관할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국유지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

(대 전라남도지사

법무 810-1651(70. 7. 23)

1 질 의

개인소유인 토지가 1969. 6. 30(소유권 말소) 국유지로 이전(귀속) 되었으나 시청에 비치된 토지대장이 정리되지 아니 하였음을 안 전 소유자(국유로 되기전 소유자)가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70. 3. 6)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중, 시장이 공사중지를 명하였으나 현재공정 90% 완공되여 곧 입주케 되어 있는 실정인 바, 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 법무관 의견"

적법하게 국유화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상에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동 토지가 국유화된 정을 알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처럼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행정 관청으로 하여금 하자있는 행정처분(국유지에 건축허가)을 하도록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의 책임은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취소와 철거명령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회 신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시공중인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민법 및 형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3 이 유

건축법에는 허가관청을 기만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민법 및 형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허가시 업자선정에 관한 질의

(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50-9

화성산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김 용 수

법무 810 -12759(70. 8. 3)

1 질 의

가. 현행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신청서에다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때 건축허가 신청 당시 선정된 업자가 허가받은 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임의로 무면허 건축업자가 공사를 시공하였을 시 선정된 건설업자는 관계 관청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하지 아니 하여도 사후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나. 준공후 위의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선정된 건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한 무면허 건축시공자에게 있는 것인지?

2 회 신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건설업자의 변동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신청시에 선정된 건설업자는 동 변경을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준공후의 사고는 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도급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업법 제3조의 3에 해당하는 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는 시공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한다면 이는 건설업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토록 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7 회건축사자격시험문제

2 급 건축법규

고르기 문제

1. 방화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연면적 33m²의 단층 부속건물
   나.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것.
   다. 높이 3m의 대문 또는 담이 불연재료일때
   라. 높이 1.8m의 담장
2. 다음 건축법상 높이의 한도에 대하여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용적율로 맞는것은 어느 것인가?
   가. 350% 이내　　나. 400% 이내
   다. 450% 이내　　라. 500% 이내
3. 개인주택의 계단의 단 높이와 디딤바닥 나비로서 맞는것은 어느 것인가?
   가. 단 높이 25cm이하, 디딤바닥 나비 21cm 이상.
   나. 단 높이 24cm이하, 디딤바닥 나비 18cm 이상.
   다. 단 높이 23cm 이하 디딤바닥 나비 15cm 이상.
   라. 단 높이 22cm 이하 디딤바닥 나비 12cm 이상.
4.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의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 연면적이 300m²인 주택에 규정된 최소한도의 지하층을 두고자 하는데 맞는것은 어느 것인가?
   가. 24m²　　나. 30m²
   다. 36m²　　라. 45m²
5. 건축사의 면허에 있어서 다음 기술중 맞는 것은?
   가.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과 동시에 면허를 준다.
   나.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되어도 면허를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사의 명칭은 쓸 수 없다.
   다. 건축사의 면허를 받기만 하면 건축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신청하여 면허를 얻으면 절대로 취소되는 일은 없다.
6. 居室의 窓 其他의 開口部로서 採光을 위한 面積의 바닥面積에 대한 比率中 틀린것은?
   가. 國民學校, 中學校 敎室 1/5 이상
   나. 病院 또는 診療所의 病室 1/7 이상
   다. 寄宿舍의 寢室, 旅館宿泊室 1/10 이상
   라. 學校, 病院, 診療所 其他의 居室 1/10 이상
7. 組積造에 관한 다음 記述中에서 建築法에 適合치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組積造에 使用하는 시멘트몰탈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 容積比는 1 : 3인 것을 사용한다.
   나. 石灰가 혼합된 시멘트몰탈은 그 시멘트와 石灰 모래의 배합, 용적비는 1 : 2 : 5의 것을 사용한다.
   다. 통줄눈은 原則的으로 금지되나 막힌줄눈과 同等以上의 耐力을 가진것으로 確認되면 허용된다.
   라. 組積造의 기초의 후우팅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무근 콘크리트는 금지된다.
8. 建築士免許資格缺格事由中 틀린것은 다음 어느 것인가?
   가. 未成年者
   나. 禁治産者,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않은 者
   다.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않은 者
   라. 建築士免許를 取消를 받고 3年이 경과되지 않은 者
9. 建築物의 外壁은 垈地境界線으로부터 50c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 法律中 어

느 것인가?

가. 建築法　　나. 都市計劃法

다. 消防法　　라. 民　法

10. 다음 記述中에서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都市計劃區域內에서의 學校配置計劃

나. 都市計劃區域內에서의 地域·地區의 設定

다. 都市計劃區域外에서의 鐵道施設計劃

라. 大都市人口分散策上 필요한 高速 交通路計劃

1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 아닌것은 어느 것인가?

가. 기　초　　나. 기　둥

다. 지붕틀　　라. 반자틀

12. 표준설계도서에 관한 기사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연면적이 60M² 이내의 주택설계 도서이다.

나. 건설부장관이 표준설계도서를 작성 공고한다.

다. 시장, 군수가 표준설계도서를 관리한다.

라. 표준설계도서에는 도면 시방서가 포함된다.

13.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후에 그 토지에서는 허가를 받지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느 것인가?

가. 토지의 형태나 토질의 변경행위

나. 공작물의 축조행위

다. 토석의 채취행위

라. 식목행위

14. 도시계획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구중에서 불가한것은 어느 것인가?

가. 풍치지구　　나. 미관지구

다. 교육지구　　라. 농경지구

15. 건축사 사무소에 관한 기술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건축사사무소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다.

나. 사무소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

다. 사무소등록이 없는자는 보수를 받고 건축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라. 건축사협회원의 설계도서는 협회에 등록하여야 행사한다.

주관식 문제

1. 건축법상 다음을 해설하라

① 바닥면적

② 건축면적

③ 연 면 적

2. 벽돌조 건축물에서 개구부의 설치 규정을 설명하라.

2　급　건축시공

고르기 문제

1. 보의 鐵筋의 定着길이는 引張인 경우 鐵筋經의 몇倍가 標準인가?

가. 15배　　나. 20배

다. 30배　　라. 40배

2. 「콘크리트」에 直接 埋設할 경우 보호 처리를 해야하는 배관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가. 鉛　管　　나. 鐵　管(白)

다. 鐵　管(黑)　　라. 주　철　관

3. 8TON트럭 1台当의 建築材料 積載量中 현저하게 틀리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자　갈　4 M³

나. 시멘트　180袋

다. 木　材　22M³

라. 亞鉛渡 鐵板(#31 0.8M×1.8M) 1,800枚

4. 緊張器라 함은 다음중 어느 것이냐?

가. 「콘크리트」를 混合 하는것

나. 거푸집을 조이는것

다. 볼트를 조이는 것

라. 鐵筋을 定位置에 고정하는 것

5. 상수면하(常水面下)에 박은 나무말뚝이 부식하지 않는 이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가. 지하수 중에는, 목재를 부식시키는 균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부식균의 발육을 방지한다.

다. 말목(杭)의 온도를 항상 저온을 유지할 수 있다.

라. 말목(杭)의 함수율(含水率)이 일정하다.

6.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여도 되는 최소철근 지름으로서 옳은것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가. φ 28 mm　　나. φ 25 mm

다. φ 22 mm　　라. φ 19 mm

7.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앞서서, 거푸집내부를 습윤하게 하는 이유로서 맞는 것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가. 형틀의 휘임을 적게하기 위하여

나. 형틀이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형틀 내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라. 콘크리트를 친 후의 마감을 곱게 하기 위하여

8. 목공사에 있어서, 못의 길이로서 적당한 것은 다음중 어느 것인가?

가. 목재의 두께의 1.5배

나. 〃 2.0배

다. 〃 2.5배

라. 〃 3.5배

9. 콘크리트의 강도를 변동함이 없이, 시공연도를 조절할려면, 다음중 어느 것에 의함이 옳은가?

가. "물"의 증감

나. "시멘트"의 증감

다. 모래와 "시멘트" 쌍방의 증감

라. "골재량"의 증감

10. 다음 콘크리트 슈트의 傾斜를 表示한것 中 맞는 것은 어느 것이냐?

가. 10 : 1 ~ 10 : 2 나. 10 : 2 ~ 10 : 4

다. 10 : 4 ~ 10 : 7 라. 10 : 7 ~ 10 : 8

11. 콘크리트의 保養에 關한 기술中 適当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가. 콘크리트 시공 完了後 3日間은 振動과 衝擊을 避한다.

나. 乾燥하지 않도록 물을 준다.

다. 溫度를 높이기 위하여 日光에 쪼인다.

라. 콘크리트의 경화에는 充分한 水分과 溫度가 必要하다.

12. 콘크리트 거푸집에 關한 기술中 틀린것은 어느 것인가?

가. 荷重과 圧力에 견디도록 한다.

나. 치수 正確하고 所要形態를 確保한다.

다. 水密性이 維持되어야 한다.

라. 解体時는 水平틀을 먼저, 垂直틀을 나중에 해체한다.

13. 鐵筋의 이음에 關한 記述中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인장철근의 鐵筋經의 50倍가 原則이다.

나. 圧縮筋의 이음은 철근 지름의 25倍가 原則이다.

다. 引張筋의 이음은 응력이 큰곳에 두는것이 原則이다.

라. 이음 位置는 한곳에 集中시켜 주어야 한다

14. 벽돌 쌓기에 關한 記述中 틀린것은 어느 것인가?

가. 벽돌은 막힌 줄눈으로 쌓는것이 보통이다.

나. 1日 쌓는 높이는 1.8m 以內로 쌓아야 한다.

다. 中途에서 쌓기를 中斷할 때는 段形으로 만든다.

라. 벽돌은 경화前에 衝擊을 줘서는 안된다.

15. 콘크리트 1M³의 중량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1.0 ton 나. 2.0 ton

다. 2.3 to n 라. 2.5 ton

주관식 문제

1. 벽돌바탕 회반죽바름벽의 시공상의 균열방지 처리방법을 열거하고 간단히 설명하라.

2. 목재의 이음과 맞춤을 간단히 설명하고 가공요령을 열거하라.

2 급 건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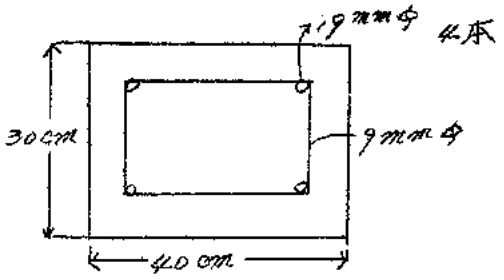
고르기 문제

1. 構造用 鋼材의 單位重量은 다음中 어느 것이냐?

가 6300kg/m³ 나. 9200kg/m³

다. 7850kg/m³ 라. 1,0500kg/m³

2.



그림의 鐵筋콘크리트 기둥에서 帶筋(hoop)의 適

切한 間隔은 다음中 어느 것이냐?

가. 28.5cm　　나. 30cm

다. 40cm　　라. 20cm

3. 鐵筋콘크리트 部材에서 鐵筋間의 純間隔은 鐵筋直經 d에 대하여 다음中 어느것을 最小限으로 하느냐?

가. 1.2d　　나. 1.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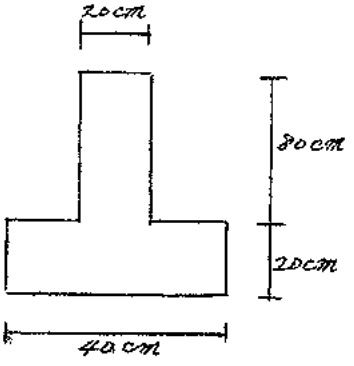
다. 2d　　라. 1.5d

4. 鐵筋콘크리트에 대한 被覆의 最小値는 다음中 어느 것이냐?

가. 1cm　　나. 1.5cm

다. 2cm　　라. 2.5cm

5.



위의 그림과 같은 無筋콘크리트 줄 基礎의 1m当 重量은 얼마인가?

가. 528kg　　나. 552kg

다. 576kg　　라. 600kg

6. 포트란트 시멘트 强度試驗에 있어서 試驗体의 材令區分으로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이냐?

가. 1日－3日－7日－28日

나. 1日－7日－14日－28日

다. 3日－7日－14日－28日

라. 7日－14日－21日－28日

7. 시멘트는 粉末度가 높을수록 다음과 같은 性質이 있다.

이중 틀리는 것을 찾아라.

가. 水和作用이 빠르다.

나. 初期强度가 높으다.

다. 收縮性 龜裂이 안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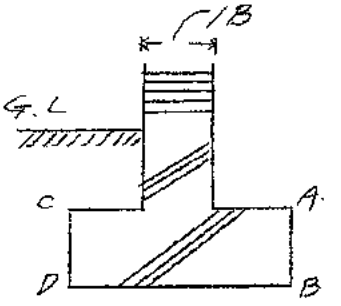
라. 風化하기 쉽다.

8. 木構造에서 接合用 볼트의 間隔은 볼트 直經의 몇倍가 맞는가?

가. 3倍　　나. 4倍

다. 5倍　　라. 6倍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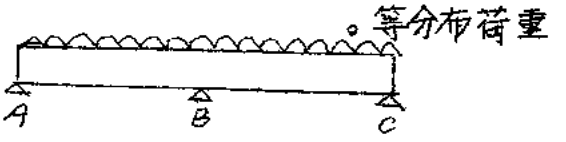
基礎 콘크리트후팅의 두께 AB는 어느 程度가 適当한가?

但 壁体는 1B

가. 20cm　　나.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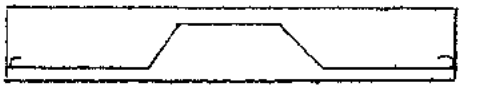
다. 10cm　　라. 5cm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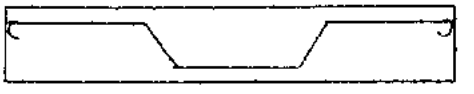


보 ABC의 配筋圖로서 適合한 것은 어느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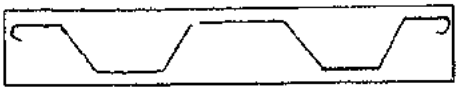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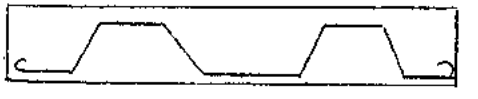
나.



다.



라.



11. 다음 중에서 목재 접착제로 쓰이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카세인　　나. 아 교

다. 메라인 수지풀　　라. 해초풀

12. 블록조 벽체에 와이어 멧슈를 2단 또는 3단 걸름으로 줄눈에 묻어 쌓는데 관한 기술로서 틀린것은 어느 것인가?

가. 블록벽의 횡력에 대한 보강이 된다.

나. 교차부의 균열을 방지 하는데 유리하다.

다. 블록벽의 수직하중을 분산하는데 유리하다.

라. 블록쌓기의 몰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13. 30cm×40cm 되는 돌면을 손다듬기로 잔다듬할 때의 돌 두께로서 심히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10cm　　나. 15cm

다. 18cm　　라. 21cm

14. 건축공사에 있어서 허용압축강도가 70kg/cm² 일 때의 콘크리트의 최대 강도로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 150 kg/cm²　　나. 180 kg/cm²

다. 210 kg/cm²　　라. 240 kg/cm²

15.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근의 간격을 결정하는 기준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가. 주철근 간격은 주근지름의 1.5배 이상

나. 주철근 간격은 2.5cm 이상

다. 최대 크기의 자갈지름의 1.25배 이상

라. 거푸집과 주철근의 간격의 2배 이상

주관식 문제

1. 시멘트 벽돌의 K.S 규격중 다음사항을 기하라.

① 골재의 종류 최대크기

② 원료의 혼합방법 및 성형방법

③ 성형후의 보양처리

④ 품질, 압축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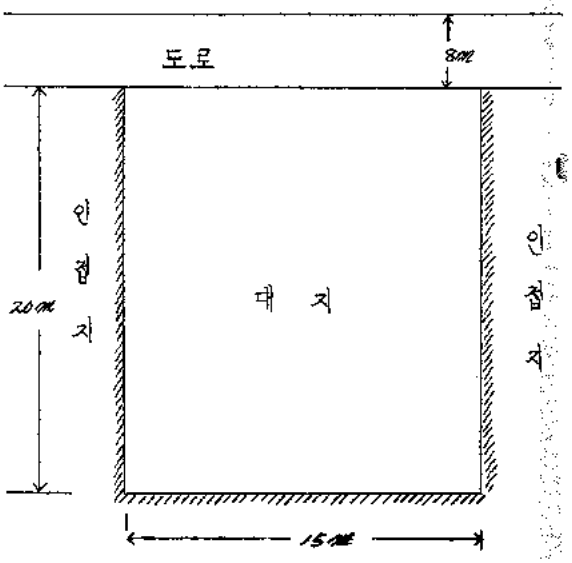
2. 철근콘크리트 스라브(slab) 밑에 목조 반자틀을 달아매는 구조방식을 도시(圖示)하고 설명하라.

2 급 설계제도

설계과제 : 단층주택

설계조건 :

1) 대　지; 주거지역안의 다음과 같은 평탄한 대지



2) 구　조; 붉은 벽돌조 지붕틀은 목조로 구성하고, 시멘트기와 이음.

3) 건축면적; 50~66m²

4) 가족구성;

부부 (봉급생활자)

노모 1인

유아 1인

아동 2인(공용)

5) 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는 연탄

요구도면;

평면도 축척 $\frac{1}{50}$

입면도 (2면) 축척 $\frac{1}{50}$

배치도 $\frac{1}{500}$

주요단면상세도 $\frac{1}{30}$

약시방서(구조개요, 실내마무리표)

(11월호, 12월호의 문제 해답은 1971년 1월호에 게재합니다.)

회원동정

사무실 이전

■ 서울시지부

노환균 (동아건축사무소)
마포구노고산동49~46 32－4838

이철재 (한국 건축공단)
중구북창동 2 (새한빌딩 705호) 28－6158

한태희 (효성 건축사)
중구무교동20(영일빌딩 301호) 28－6166

김성태 (국전 건축종합연구소)
종로구종로 6가246－1 (선유빌딩402호) 73－9448

이형재 (시민종합건축연구소)
서대문구홍제동 299－3 75－8671～5交 2

김원모 (동진건축연구소)
중구화현동 2가 6 (서울빌딩 604호) 22－1468

이규재 (현대건축 공영사)
용산구원효로 1가 1－3 43－2370

홍대현 (주식회사 도진종합설계)
종로구필운동 261 72－5425

박춘상 (박춘상 건축설계연구소)
종로구인사동 165 74－8518

최인현 (현대주택 건설공사)
동대문구신설동 101－8 93－2414

강대웅 (세기 건축사)
서대문구의주로 1가64 72－1621

노영진 (노영진 건축연구소)
종로구신문로 1가 171－6 72－8460

김영경 (건양건축 기술연구소)
종로구관철동45－2 72－4374

이문복 (남일 건축연구소)
중구저동47－1 26－7366

김혜진 (진일 건축연구소)
중구충무로 4가 126

이회태 회원은 서울市中區 忠武路 2가60의 4 영미빌딩 701호실로 이전하였읍니다. (전화 : 23－8545)

회원동정

상호변경

김영경(건양건축기술연구소)前 삼강건축연구소

신입회원

최희원 (공영 건축)
서대문구응암동15－5 38－2438

홍광철 (광명 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구로동 806－79 62－4191

임해창 (아뤼건축설계 그룹)
중구충무로 2가66－10

편기봉 (F. A 건축연구소)
중구무교동33－1 23－8438

■ 신양우 회원(전남지부)은 〈삼양건축설계사무소〉를 光州市忠壯路 4가51로 이전하였읍니다. (전화 : 3－7689)

■ 박종대 회원(전남지부)은 〈박종대 건축설계사무소〉를 〈光州市계림동 2구 485－3〉으로 이전하였읍니다. (전화 : 2－3274)

■ 박정옥 회원(부산시지부)은 〈미도설계 사무소〉를 부산시동구범일동 925로 이전하였읍니다(전화 : 6－5651)

■ 이상권 회원(부산시지부)은 〈미진건축 설계사〉를 부산시서구괴정동1101로 이전하였읍니다. (전화 : 4－3067)

■ 박 관 회원(부산시지부)은 〈신부산건축 설계사〉를 부산시부산진구매법동 835으로 이전하였읍니다.

■ 한응숙 회원(부산지부)은 〈삼화건축설계사〉를 부산시중구동광동 3가47로 이전하였읍니다. (전화 : 23－1315)

■ 정환호 회원(부산시지부)은 〈미래 건축연구소〉를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257～25로 이전하였읍니다.

자 격 갱 신

1. 윤 동수 회원(부산지부)(금성건축설계사무소)
2. 박 성길 회원(〃)(성진건축설계사무소)
3. 강 행생 회원(〃)(동림건축연구소)
4. 김 영수 회원(〃)(청건사)
5. 김 인철 회원(〃)(성림건축설계사)

이상 회원들은 2급 건축사에서 1급 건축사로 자격갱신 하였읍니다.

신 입 회 원

◉ 김팔호 (시도설계사 1급)
부산시중구남포동 2가 1 (22) 1174

◉ 정문규 (반도건축설계사 2급)
부산시부산진구양정동 360－1(3) 9277

◉ 이태호 (남부산건축사무소)
부산시동래구광안동 678－4

◉ 박기조 (백양건축설계사)
부산시동래구복천동 342 (5) 4524

경 조

■ 姜奉辰 회장 님의 장남 毅豪군과 鄭鍾烈 씨의 三女 明惠양과의 결혼식이 12월 19일 12시 타워호텔 해피홀에서 朴寬洙박사님의 주례로 거행했읍니다.

■ 이학로(李鶴魯) 회원(서울시지부)차녀 영규(英圭)양의 결혼식을 1970년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동대문구신설동 소재〈대원예식장〉에서 거행했읍니다.

■ 김정호 (서울지부) 회원의 맏아들 세경군 12월 14일 〈종로예식장〉에서 박영희양과 화촉을 밝혔읍니다.

■ 朴 鍾 회원 (경남지부)의 長男 基復군과 安基中氏의 次女 英子양과의 화촉이 12월 26일 울산시 옥교동 〈홍일예식장〉에서 거행

■ 廉景植会員(全北支部)의 長男 貴煥君과 趙貞植女史의 長女 姜文順嬢과의 화촉을 12월 21일 서울시 시흥 삼성예식장에서 거행했읍니다.

■ 주명환(朱明煥) 회원(서울지부)은 급환으로 12월 6일 오전 9시 자택에서 별세를 하였읍니다. 발인은 12월 8일 장지는 경기도 고양군 용미리 묘지.

상 호 변 경

■ 김호순 회원 (충남지부)은 前 〈삼정건축설계사무소〉를 〈김호순 건축설계사무소〉로 변경. 위치 : 忠南大田市 大興洞 487～3

협회소식

제 5 회 이사회

(1970년 11월 18일 본회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봉진, 이사 이동환, 서정달, 송기덕, 신형범.

결석 : 이사 김진천

참석 : 서울지부장 송관식

보고 사항

1. 총무이사 김진천 부인상('70. 11. 16. 15 : 30 작고)
2. 주택작품 전시 추진위원회 개최통보
3. 건설공무원 교육원 수료생 시상.
4. 고층건물 억제 방안 해제 건의

부의사항

1. 본부 임원 각지부 총회 참석 건
4. 12월호 회지 편찬
5. 신 · 구 임원 간담회

결의사항

1. 각지부 정기총회에 본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참석키로 결의.

   회장 강봉진…전북지부

   이사 김진천…부산지부, 경북지부

   이사 서정달…경남지부, 제주지부

   이사 이동환…충북지부, 충남지부

   이사 송기덕…경기지부

   이사 신형범…강원지부, 전북지부
4. 회지는 서정달 출판담당이사 계획서대로 발간키로 결의(12월호)
5. 총무이사 김진천 총무담당이사 신형범이사가 계획을 수집키로 일임.

제 6 회 이사회

(1970. 11. 25. 본회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봉진, 이사 김진천, 서정달, 이동환, 송기덕, 신형범.

참석 : 감사 이봉로, 서울지부장 송관식

보고사항

1. 고층건물 억제 해제 건의에 대한 회신(경제기획원, 서울특별시장)
2. 지상물 이전비 감정의뢰(중앙토지 수용위원회)
3. 주택작품 심사위원회 간담회(11. 24)

부의사항

1. 윤리 위원장 개선
2. 충남지부 공제회 승인신청
3. 주택문제 쎄미나 개최(서울공대)

결의사항

1. 윤리 위원장에 손완민 변호사를 위촉키로 함.
2. 각 지부 개별적인 공제회는 본부승인사항이 아니나 공제회가 전국적으로 설립될 경우 총할적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3. 서울공대 주택문제 쎄미나 개최에 협회로서 금일봉 찬조키로 함.

제 7 회 이사회

(1970. 12. 12. 본회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봉진, 이사 김진천, 서정달, 이동환, 송기덕, 신형범.

참석 : 감사 이봉로, 서울지부장 송관식

부의안건

1. 주택작품 현상모집
2. 국회의사당 공사감리에 따른 조치
3. 역대 임원 간담회
4. 71년도 표준설계도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5. 고령회원 추대

결의사항

1. 특선 2점, 입선 19점, 계 21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대로 시행할 것과 전시회는 장소관계로 신년도로 이월키로 함
2.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처리키로 함
3. 총무이사 김진천, 총무담당이사 신형범과 사무처장이 상의하여 계획 수립키로 함
4. 전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좋은 설계도를 작성 건설부에 협조키로 함
5. 전 회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 회원을 차기 총회 결의를 얻어 추대회원으로 추대키로 함.

(원) (고) (모) (집)

한국 건축계의 유일한 건축관계 전문지를 애호육성하는 마음에서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원고를 모집하며 기술용어나 혼동되기 쉬운 문구 외는 한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며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오며 수집된 원고는 반환치 않읍니다.

1. 각종 건축에 관한 논문(200자 원고지 30~40매)
2. 건축 수기, 건축관계 제안(200자 원고지 9매 내)
3. 작품화보(회원 설계로 준공된 작품 1점), 건경 및 내부사진 1매, 설명서(간단요약하게), 평면, 입면, 투시도, 상세도, 배치도(각 1매)는 캔트지 및 트레싱 페파에 4.6배판 정도에 먹물로 그릴 것.
4. 건축자재 규격, 가격 및 기술에 대한 질의
5. 건축법규 및 도서등록에 관한 질의
6. 접수는 수시로 본협회 출판부에서 함.

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질의나 독자께서 원하시는 기술상의 의문된 점을 우송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에 참작하겠읍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서 본지를 보고 느낀 소감이나 취재원을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편 집 후 기

◆달마다 치루는 산고는 그때마다 다를줄 안다. 12월호 부터는 일정한 편집계획에 따라 달마다 풍성한 결실을 위해 성과 열을 더 하리라.

우리 똑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마시는 공기처럼 회원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날로 흐뭇하리니….

◆바쁘신 중에서도 저의 회지를 위해 옥고를 집필하여 주신 **임동권**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지상좌담회에 해답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하나이다.

특히 건설부 건축과장 **박우하** 선생님의 계속되는 집필에 더욱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오며…

기쁜 성탄과 희망의 새해를 맞어 더욱 건성하시옵소서. **(편집자 일동)**

……본지는 한국잡지윤리위원회……
……세규정을 준수한다……

=공 고=

본협회 기관지 『**건축사**』를 그동안 애호하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제현께 그 동안의 후의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본협회 회원 외 구독자 제위의 건두를 빌며 본지 발전을 위한 기술 원고 및 질의의 투고를 환영하오며 계속 구독을 원하시는 분과 1970년도 **건축사 회원명부**를 구입코자 하시는 분은 본 협회 출판부나 시도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협회 출판부 전화 ㉘ 9802 ㉒ 2617

건 축 사

1970년 12월 25일 인쇄
1970년 12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제라—1251
등록일자 1967. 3. 23
등록변경 1970. 1. 8

발행소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25
(정양빌딩 6층) ㉘ 9802 ㉒ 2617

발행인겸 편집인 강 명 구
인쇄처 대 한 공 론 사

建築資材時勢

대한건설협회 제공

木 材 類 △上昇 ▲下落 1970. 11. 30현재

品 名	品 品	規 格	單位	價 格
製 材 木				
陸松製材木	角木(正味)	180~270cm	才	65
〃	〃	360cm	〃	70
〃	板材(正味)	9㎜	〃	70
〃	〃	18~21㎜	〃	70
美松製材木	角材(正味)	180~360cm	〃	85
〃	〃	390cm以上	〃	90
〃	板材(正味)	15~18㎜	〃	90
뉴질랜드松製材木	角木(正味)	270~360cm	〃	75
〃	〃	390cm以上	〃	85
〃	板材(正味)	15㎜	〃	85
羅王製材木	〃	9~12㎜	〃	125
〃	〃	15~21㎜	〃	120
〃	〃	24~45㎜	〃	115
〃	〃	48~60㎜	〃	110
〃	小割材	360cm以上	〃	105
〃	후로링	定尺	〃	115
〃	〃	不定尺	〃	110
羅王蒸氣乾燥木	板材(東洋)	9~60㎜ (含水率 15%)	〃	165
〃	마장후로링	定尺(〃 13%)	〃	195
〃	후로링(KS)	〃 (13%素材)	〃	185
合 板				
合 板		3㎜ 91×182cm	枚	▼ 220
〃		4㎜ 〃	〃	290
〃		4.5㎜ 〃	〃	▼ 330
〃		6㎜ 〃	〃	440
〃	耐水性	9㎜ 〃	〃	▼ 690
〃	〃	12㎜ 〃	〃	890
〃	〃	15㎜ 〃	〃	1,070
〃	〃	18㎜ 〃	〃	1,300
〃	〃	4.5㎜ 91×210cm	〃	400
〃	〃	6㎜ 〃	〃	500
〃	〃	4㎜ 121×242cm	〃	440
〃	〃	4.5㎜ 〃	〃	480
〃		6㎜ 〃	〃	670
〃		9㎜ 〃	〃	1,170
〃	耐水性	12㎜ 〃	〃	1,450
〃	〃	15㎜ 〃		1,850
〃	〃	18㎜ 〃		2,150

美工材料類

化粧合板

品 名	品 品	規 格	單位	價 格
라미나合板		4.2㎜ 121×242cm	枚	1,100
프린트 〃	單色	4.5㎜ 91×182cm	〃	680
〃	〃	4.5 121×242cm	〃	1,100
다 - 콘		6㎜ 121×242cm	〃	2,450
답 크		〃	〃	24.50
코 라 본	各色	4.2㎜ 121×242cm	〃	1,900
메라민화장판		6㎜ 121×242cm	〃	2,750
하 이 톤 板		1.2㎜ 120×242cm	〃	2,900
메코라이트	各色	4.5㎜ 91×182cm	〃	1,700
메코라이트	各色	4.5㎜ 120×242cm	枚	2,700
메라민바루판		12㎜ 30×182cm	〃	5,300

시멘트·石灰

品 名	品 品	規 格	單位	價 格
시 멘 트	레 - 루 渡	42kg	袋	285
白色시멘트		40kg	〃	935
〃		20kg	〃	480
칼라시멘트	靑 色	〃	〃	620
〃	黃 色	〃	〃	540
〃	靑綠色	〃	〃	620
〃	綠 色	〃	〃	620
〃	褐 色	〃	〃	540
石 灰	特品(驛渡)	15kg	〃	110
〃	上品(〃)	〃	〃	100
마그네사石灰	上品(驛渡)	〃	〃	100
〃	中品(〃)	〃	〃	85
生 石 灰	坡州産	40kg	叭	180

레미콘

品 名	品 品	規 格	單位	價 格
레 미 콘	#57-370kg	1:1.5:3(10kg以內 공사현장도)	M³	5,740
〃	#467-370kg	〃 〃	〃	5,470
〃	#57-320kg	1:2:4 〃	〃	5,400
〃	#467-300kg	〃 〃	〃	5,140
〃	#467-284kg	〃 〃	〃	4,900
〃	#57-313kg	〃 〃	〃	5,360
〃	#467-313kg	〃 〃	〃	5,090
〃	#57-284kg	〃 〃	〃	5,160
〃	#467-270kg	1:2.5:5 〃	〃	4,810
〃	#57-270kg	〃 〃	〃	5,080
〃	#467-220kg	1:3:6 〃	〃	4,490
〃	#467-170kg	1:4:8 〃	〃	4,150

赤煉瓦·耐火벽돌

品 名	品 品	規 格	單位	價 格
赤 煉 瓦	燒 1 級 (工場上車渡)	6×10×21cm	個	8
〃	燒 2 級(〃)	〃	〃	7
〃	特 並(〃)	〃	〃	7
〃	並上品(〃)	〃	〃	5.50
〃	特變品(〃)	〃	〃	15
〃	變 色(〃)	〃	〃	9
〃	特見出上〃	〃	〃	15
〃	特見出中〃	〃	〃	13
化粧벽돌	燒 1 級	〃	〃	25
〃	燒 2 級	〃	〃	20
〃	燒 3 級	〃	〃	15
耐火벽돌	並 型	#32 65×105×215cm	〃	38
〃	〃	#34 〃	〃	45
耐火粘土		#32 40kg	袋	360
〃		#34 〃	〃	400

土 管

品 名	品 品	規 格	單位	價 格
土 管	燒(工場渡)	9cm×60cm	個	80
〃	〃	12×60	〃	95
〃	〃	15×60	〃	135
〃	〃	18×60	〃	220
〃	〃	21×60	〃	320

土管	磁(仁馬渡)	24×60	〃	400
〃	〃	30×60	〃	650

타 이 루

內張 3.6角	陶器白色特	110×110㎜(坪當260枚)	坪	2,100
〃	〃 有色特	〃	〃	2,400
〃	〃 黑色特	〃	〃	2,800
內張 2.5角	〃 白色特	75×75㎜(坪當500枚)	〃	1,400
〃 〃 白色特	有色特	〃	〃	1,500
대쪽 및 가쪽	〃 白色	30×110㎜	枚	9
〃	〃 有色	〃	〃	15
바닥모자이크	磁器(無有)	30.3×30.3㎜(坪當36枚)	片	1,300
〃	(〃特殊燒)	〃	〃	1,800
〃	〃 (施釉	〃	〃	2,400
壁모자이크	磁器(施釉光澤)	30.3×30.3㎜(坪當36枚)	〃	2,400
〃	〃〃半光澤	〃	〃	2,400
요면스톤모자이크	外張用	〃	〃	3,200
外裝小口	磁器	60×108㎜(坪當420枚)	〃	1,700
〃	陶器	60×108㎜(〃400)	〃	1,300
〃	〃(有色)	〃 (〃400)	〃	1,400
요면內外張	磁器	55×82	〃	4,000
新小口特殊外張	〃	〃	〃	3,400
二丁波모다	〃	33×200㎜(坪當460枚)	〃	2,400
二丁테라코타	타 〃			
三丁테라코타	〃	60×200(坪當210枚)	〃	2,800
二丁크링카外張	半磁器赤色	60×210(坪當200枚)	〃	2,200
바닥크링카	〃	190×220(坪當 70枚)	〃	2,000
〃	〃	150×150(坪當150枚)	〃 〃	2,000
外張모서리타일	磁器	55×82×20	枚	20
바타타일	〃	115×115	〃	50
아스타일	大陸	2㎜×225.300㎜	坪	2,000
〃	〃	2.5㎜ 〃	〃	2,400
〃	〃	3㎜ 〃	〃	2,700
비닐 石綿 타일	골든벨·럭키	2㎜×228.304㎜	〃	2,200
〃	〃	2.5㎜ 〃	〃	2,600
〃	〃	3㎜ 〃	〃	3,000
비나타일	럭키	3㎜ 30×30cm	〃	3,000
〃	〃	2.5㎜ 〃	〃	2,800
〃	〃	2 ㎜	㎡	2,500
굴두리		100㎜	尺	60
〃		125㎜	〃	70
〃	P. V. C	100㎜	m	240

텍 스

에코스텍스	國產	9㎜ 30×30cm 30×60cm	坪	1,500
〃	〃	9㎜ 45×45	〃	1,750
〃	〃	12㎜ 30×30 30×60 45×45	〃	1,810
케이텍스	〃	9㎜ 30×30	〃	1,600
〃	〃	9㎜ 30×60	〃	1,600
岩綿텍스	〃	12㎜ 30×30 30×60	〃	2,700
〃	〃	10.5×30×30 30×60	〃	2,200
파이텍스	各色	5㎜ 182×182cm	〃	7,500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콜크天井板	國產(黑色)	18㎜ 30×30cm	〃	3,180
〃	〃	15㎜ 〃	〃	2,880
콜크炭化板		25cm 60×60cm	〃	2,760
〃		50㎜ 〃	〃	4,380
〃		75㎜ 〃	〃	6,560

보 오 드

넥스보오드	國產	9㎜×120×270cm	枚	1,640
〃	〃	12×120×270	〃	1,940
〃	〃	12×90×180	〃	970
〃	〃	12×90×242	〃	1,200
〃	〃	9×90×180	〃	800
세미보오드	〃	6×90×180	〃	650
하아드보오드	〃	3㎜×120×270cm	〃	830
〃	〃	3×90×180	〃	420
〃	〃	6×120×270	〃	1,680
무니보오드	〃	4.5×90×180	〃	470
〃	〃	6×90×180	〃	650
석고보오드		7㎜45×45cm	坪	2,000
합보오드		6㎜ 121×242cm	枚	530
〃		9㎜ 〃	〃	840
〃		12㎜ 〃	〃	1,040
〃		15㎜ 〃	〃	1,320

美 粧 材

아크릴板		1.7㎜×132×108cm	平方尺	138
〃		3㎜ 〃	〃	207
루미나시링	아크릴製	1.7㎜606×606㎜	〃	880
〃	〃	1.7×606×300	〃	450
아크릴製出入門板	附屬除外	20㎜×90×200cm	枚	35,000
P.V.C 엔라이트		0.7㎜ 66×182	〃	300
〃		〃 66×272	〃	450
〃		0.5㎜ 66×182	〃	240
〃		〃 66×272	〃	360
스치로폴	國產(冷暖房材)	25㎜×90×180cm	〃	700
골든벨라보	P. V. C	121×272cm	坪	2,200
골든벨골판	〃	655×1,820㎜	枚	280
〃	〃 (K.S)	670×1,820	〃	350
인슐레이숀	日製(글래스울)	25㎜×102cm	坪	1,100
글래스화이바	國產	〃	〃	750
岩綿(〃)	탑요式保溫帶	25㎜ 1m×10m	〃	1,000
〃	散物	5kg	包	400
벤스코렌카펜	色物(수형식)		平方尺	350
에니산카펜	色物	30cm	坪	150
粉末유텍스	무늬色	18kg(10坪施工)	袋	6,840
〃	單色	〃	〃	6,120
美粧壁	色物(上品)	1坪	봄지	300
〃	금관, 선하, 은성	〃	〃	600
蜂石骨材	斷熱保溫吸音	立方尺	袋	180
色素(顔料)	시멘트着色劑		kg	250
유신본드			〃	260
세루울롤	유텍스接着劑	120坪施工	드럼	12,000
接着劑	日製(木材用)		kg	450
〃	〃(鐵材用)		〃	800
〃	國產(木材用)		〃	250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石綿	給水用	50kg	叺	300
石고		(13級)	〃	500
白綿		25kg	〃	200
白藁土		50kg	袋	150
海草	原草(上品)	15kg	〃	6,000
〃	〃 (中品)	60kg	〃	4,000

유리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板유리	(箱子除外) (箱子除外)	3㎜ 60×90 cm	100平 箱子	2,850
〃	〃	3㎜ 120×180	〃	9,000
〃	〃	〃 90×180	〃	8,400
〃	〃	〃 90×150	〃	7,400
板유리	國産 (箱子除外)	3㎜ 90×90 〃 60×	100平 箱子	6,600
〃	〃	〃 60×90	〃	5,800
〃	〃	5㎜ 120×180	〃	18,000
〃	〃	〃 90×180	〃	17,000
〃	〃	〃 90×150	〃	15,700
〃	〃	〃 60×150	〃	15,000
〃	〃	〃 60×90	〃	13,000
銅入유리	〃	6㎜ 90×180cm	〃	30,000
型유리、모루、사라사、줄입	〃	3㎜ 90×180	〃	8,000
〃	〃	2㎜ 90×120	〃	3,800
페어그레스	二重유리	12㎜	平方尺	400
〃	〃	16㎜ 120×180cm	〃	700
〃	〃	〃 120×240	〃	1,000
유리불럭	國産	145×145×95㎜	個	260
〃	〃	193×193×95	〃	355
〃	〃	200×200×95	〃	370

시멘트加工製品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시멘트○瓦	黑色	色 8×388㎜ 288×270	個	16
〃	赤色	〃 〃	〃	18
시멘트土管	上品	9 ×60cm	〃	45
〃	〃	12×60	〃	55
〃	〃	15×60	〃	70
〃	〃	18×60	〃	80
〃	〃	24×60	〃	150
〃	〃	30×60	〃	180
시멘트土管	上品	60×90cm	個	700
〃	〃	75×90	〃	900
〃	〃	90×90	〃	1,380
시멘트벽돌	〃	6 ×10×21cm	〃	4,30

불럭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콘크리트불리	B－3	7.5cm×19cm×39cm	個	27
〃 B－4(KS)		10×19×39	〃	30
〃	B－6	15×19×39	〃	38
〃	B－8	19×19×39	〃	46
〃	BH－10	25×19×39	〃	55
〃	BH－4	10×19×19	〃	18
〃	HB－6	15×19×19	〃	23
〃	HB－8	19×19×19	〃	29
〃	HB－10	24×19×19	〃	37
콘크리트불럭	SB－8	19×19×39	〃	56
〃	SB－10	24×19×39	〃	68
〃	SSB－8	19×19×39	〃	49
〃	SSB－10	24×19×39	〃	63
〃	LB－6	15×19×19	〃	25
〃	LB－8	19×19×19	〃	36
〃	LB－10	24×19×19	〃	43
〃	LB－16	19×19×39	〃	70
〃	UB－16	19×19×39	〃	80
〃	SCB－6	15×19×36	〃	46
輝石불럭	B－4	10×20×40cm	個	49
〃	B－6	15×20×40	〃	60
〃	B－8	20×20×40	〃	69
步道불럭		30cm×30cm	〃	43
〃		三角半	〃	23
P.V.C步道불리	色物	30×30cm	〃	200
L型測溝불럭		3號	〃	350
〃		2號	〃	280
步車道境界불럭		20×25×100cm	〃	500
道路境界불럭		15×12×100	〃	290
鐵條網柱	大	12×12×240	〃	790
〃	小	10×10×240	〃	580
뷔몰반이	中		〃	880
〃	小		〃	680
〃	平		〃	980
F불럭측대돌	A－1	25×25×65	〃	130
〃	FB－2	30×30×75	〃	200
〃	A－2	30×30×75	〃	220
〃	CH－3	50×50×20	〃	300
〃	B－1	25×25×65	〃	110
〃	FB－3	45×45×90	〃	540
〃	B－2	30×30×75	〃	200
〃	FB－4	60×60×100	〃	1,100
불럭파일	X형(토목용)	350×350×307㎜	〃	185

電線管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電線管	一孔管	100cm×15cm×15cm (29kg)	個	200
〃	二 〃	100×26.5×1548)	〃	310
〃	三 〃	100×38×15 (67)	〃	400
〃	四 〃	60×27.5×27.5(65)	〃	500
〃	六 〃	60×27.5×39 (82)	〃	600
〃	八 〃	60×27.5×50.5(105)	〃	690
〃	十 〃	60×27.5×62 (125)	〃	800

콘크리트管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콘크리트管	下水道用	240㎜(口徑)×1,000㎜(長)	個	280
〃	〃	300×1,000	〃	400
〃	〃	350×1,000	〃	690
〃	〃	450×1,000	〃	960
〃	〃	600×1,000	〃	1,490
〃	〃	750×1,000	〃	1,750
〃	〃	900×1,000	〃	2,650
〃	〃	1,000×1,000	〃	3,230
〃	〃	1,100×1,000	〃	3,660
〃	〃	1,200×1,000	〃	4,660
〃	〃	1,500×1,000	〃	6,550
高壓콘크리트管 (AP管)	〃	300(徑) 36(厚) 1,000㎜(長)	〃	930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高壓콘크리트管 (AP管)	下水道用	150×45×1,000	個	1,710
〃	〃	450×45×1,000	〃	2,380
〃	〃	750×79×1,000	〃	3,300
〃	〃	900×82×1,000	〃	4,500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K.S 規格 立个每束26束	3m(長)250㎜(徑) 50㎜(厚)	個	3,300
〃	27	4×250×50	〃	4,900
〃	38	4×300×60	〃	6,800
〃	28	5×250×50	〃	6,500
〃	39	5×300×60	〃	8,500
〃	28	6×250×50	〃	7,600
〃	40	6×300×60	〃	10,100
〃	37	7×250×50	〃	9,000
〃	40	7×300×60	〃	12,400
〃	38	8×250×50	〃	10,800
〃	42	8×300×60	〃	14,000
〃	43	9×300×60	〃	16,100
〃	51	9×350×60	〃	19,100
〃	45	10×300×60	〃	20,300
〃	54	10×350×60	〃	23,500
〃	48	11×300×60	〃	24,700
〃	56	11×350×60	〃	27,500
〃	50	12×300×60	〃	27,500
〃	57	12×350×80	〃	31,300
〃	57	13×350×60	〃	36,000
〃	74	13×400×70	〃	43,500
〃	60×	14×350×60	〃	39,200
〃	77	14×400×70	〃	48,900
〃	63	15×350×60	〃	48,600
〃	79	15×400×70	〃	56,400
〃	94	16×450×70	〃	67,000
〃	113	16×500×80	〃	96,500
〃	97	17×450×70	〃	76,500
〃	116	17×500×80	〃	98,600
〃	100	18×450×70	〃	85,100
〃	119	18×150×80	〃	106,700

P C 管

P. CC 管	低壓 8 kg/	500㎜(內徑) ×4 m(長)	m	6,200
〃	〃	600×4	〃	7,500
〃	〃	700×4	〃	9,400
〃	〃	800×4	〃	11,700
〃	〃	900×1	〃	14,000
〃	〃	1,000×1	〃	16,700
〃	中壓12kg/cm²	500×4	〃	6,400
〃	〃	600×4	〃	7,900
〃	〃	700×1	〃	9,300
〃	〃	800×1	〃	12,200
〃	〃	900×4	〃	14,800
〃	〃	1,000×4	〃	17,700
〃	14kg/cm²	600×4	〃	8,000
〃	〃	800×4	〃	12,700
〃	〃	1,000×4	〃	18,800
〃	高壓21kg/cm²	500×4	〃	6,600
〃	〃	600×4	〃	8,500
〃	〃	700×4	〃	11,300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P. C 管	高壓21kg/cm²	800㎜(內徑) ×4m(長)	m	14,100
〃	〃	900×4	〃	16,900
〃	〃	1,000×3	〃	20,500
〃	高壓23kg/cm²	500×4	〃	7,300
〃	〃	600×4	〃	9,000
〃	〃	700×1	〃	11,700
〃	〃	800×4	〃	14,500
〃	〃	900×4	〃	17,600
〃	〃	1,000×4	〃	21,300

흄 管

〃	C. R	(呼)2m(長)		
〃	〃	100×25×2	〃	850
〃	〃	200×27×2	〃	1,030
〃	〃	300×30×2	〃	1,390
〃	〃	400×35×2.43	〃	1,900
〃	〃	500×42×2.43	〃	2,490
〃	〃	600×50×2.43	〃	3,100
〃	〃	700×58×2.43	〃	3,710
〃	〃	800×66×2.43	〃	4,430
〃	〃	900×75×2.43	〃	5,440
〃	〃	1,000×82×2.43	〃	7,190
〃	壓力管 (2kg/cm²)	300㎜×30㎜×3m	〃	1,550
〃			〃	
〃	〃	400×35×4.5	〃	2,280
〃	〃	500×42×4.5	〃	2,770
〃	〃	600×50×4.5		3,670
	〃	700×58×4.5	〃	4,130
〃	〃	800×66×4.5	〃	4,930
〃	〃	900×75×4	〃	6,030
〃	〃	1,000×82×4	〃	7,630
〃	(4kg/cm²)	300×30×3	〃	1,930
〃	〃	400×35×4.5	〃	2,890
〃	〃	500×42×4.5	〃	3,830
〃	〃	600×50×4.5	〃	4,920
〃	〃	700×58×4.5	〃	6,120
〃	〃	800×66×4.5	〃	6,930
〃	〃	900×75×4	〃	8,620
〃	〃	1,000×82×4	〃	11,340

콘크리트電柱

콘크리트電柱	街路·農村用 荷中120kg	6m(長)120㎜(徑) 口200kg口重	個	5,000
〃	150	7×120 230	〃	6,400
〃	200	7×140 360	〃	7,800
〃	250	9×140 510	〃	11,400
〃	配電用 200kg	8×170 500	〃	10,100
〃	300	9×170 600	〃	13,600
〃	300	10×170 700	〃	15,100
〃	350	11×190 870	〃	20,000
〃	500	14×190 1,360	〃	33,500
〃	送電用 350kg	10×190 760	〃	16,600
〃	400	10×190 810	〃	18,400
〃	450	10×190 820	〃	19,300
支柱根枷	口重 55kg	0.7m	〃	600
〃	60	0.8m	〃	700
根枷	75	1.0m	〃	700
〃	90	1.2m	〃	800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支柳	自重 120kg	1.5m		1,000
	150	1.8m		1,200
	180	2.0m		1,400
T型改良杭木	荷重 750kg	1350×120×100㎜		700
〃 받침	〃	277×250×200		350

스레트·煙筒

大골슬레이트	自然色	96cm×182cm	枚	490
〃	〃	96×212	〃	600
〃	〃	96×242	〃	720
小골슬레이트	〃	72×182	〃	360
〃	〃	72×212	〃	440
〃	〃	72×242	〃	530
平슬레이트	〃	6×91×182	〃	440
〃	〃	6×121×242	〃	870
제비型슬레이트	〃	40cm×40cm	〃	43
〃	色彩	〃	〃	60
다이야몬드슬레트	自然色	〃	〃	43
〃	色彩	〃	〃	60
鐵型슬레이트	白色	〃	〃	43
헷사곤	色彩	〃	〃	60
골감새	自然色	15×182cm	〃	250
外壁板	〃	〃	〃	250
용마루	〃	#3	個	150
슬레이트고무맛킹	小골用	50×693㎜	〃	70
〃	大골用	〃	〃	100
스레이트못	마킹付木造用	小골용	組	3
〃 〃	〃	大 〃	〃	4
북붓트	J. L 型	255㎜	〃	15
크림프		1㎜	個	2

防水材

防水材

防水液	시멘트混合	京城 SP 1號	드람	15,000
〃	外壁吸付	〃 SP 2號	〃	20,000
〃	急結液	〃	〃	10,000
구무힝	防腐劑	60%	〃	8,000
규산소다	2級品		〃	5,500
아스팔트	레루渡	AP-3 200kg	〃	3,174.20
〃	〃	MC-3 200ℓ		3,746.20
〃	〃	RC-3 〃	〃	4,899.20
豊韓防水劑		25-30坪施工	G/A	3,500
콜탈	防水用		드람	6,500
파라이트물탈	〃	2㎜	坪	600
〃	〃	5㎜	〃	1,500
부룽아스팔트		40kg	袋	850
로터스		15kg	〃	250
아스팔트펠트		12坪 20kg	卷	800
〃		〃 26	〃	900
〃		〃 30	〃	1,000
루우핑		6坪 18kg	〃	730
〃		〃 20	〃	780
〃		〃 25	〃	880
〃		〃 30	〃	1,000

石材類

石材·碎石·모래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長台石	石山渡		切當	350
柱礎石	〃	30cm	個	280
〃	〃	45cm	〃	400
建築石	〃	9×30×45cm	〃	130
〃	〃	9×45×30	〃	230
大溫突石	〃	51×83cm	枚	450
溫突石	〃	30×45	〃	60
大齒石	〃	30×30×35	個	65
閼石	〃		〃	35
雜石	〃		立方米	500
碎石	一般用	5cm	〃	750
〃	〃	3cm	〃	800
〃	舗裝用	骨材3號 50㎜~25㎜	〃	900
〃	〃	4 40~20	〃	980
〃	〃	467 40~5	〃	980
〃	〃	357 50~5	〃	900
〃	〃	57 25~5	〃	1,300
〃	〃	67 20~5	〃	1,600
〃	〃	78 1~#8	〃	1,730
〃	〃	89 10~#16	〃	1,850
〃	〃	9 5㎜~#16	〃	1,350
混合混骨合材料	A 材級	40~#200	〃	1,000
石粉	〃	10 5㎜~#200	〃	450
自然자갈	漢江嚴藏渡	57 25㎜~5㎜	〃	1,300
〃	〃	467 40㎜~5	〃	980
漢江모래	〃		〃	220
왕모래	現代上車渡		〃	300
漢江모래	G. M. C.	3.6m³ (6K以內 運搬費包含)	車當	2,500

大理石

大理石	瑞雲, 黃龍	24㎜(厚)시멘트川砂除外한施工費包含	平方米	25,000
〃	孔雀, 長水	〃	〃	14,150
〃	灰雲, 青蛙	〃	〃	17,400
〃	白雲, 全州石	〃	〃	15,200
〃	本紋, 朱雀	〃	〃	18,500
〃	淸平石	〃	〃	16,800
〃	文義石	〃	〃	9,800
花崗石(水磨)	서울產	〃	〃	21,800
〃	黃登產	〃	〃	20,700
〃	溫陽石	〃	〃	20,700
〃	馬川石	〃	〃	20,700
테라조(불럭)	平物	24㎜	〃	4,400
〃	甲板	36㎜	〃	4,900
〃	花崗石테라조	30㎜	〃	8,000
테라조(現場造)	床		〃	1,900
〃	階段		〃	2,100

人造石

人造石	玉溪產白色	約16kg	袋	70
〃	〃 연綠色	〃	〃	120
〃	〃 진綠色	〃	〃	140
〃	〃 黑色	〃	〃	90
〃 〃	桃花色	〃	〃	120
〃	〃 薄雲色	〃	〃	120
〃	〃 茶色	〃	〃	90

鐵材類 丸鋼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鐵筋	釜山工場渡	9㎜~25㎜(조달청 구매)	屯	42,239
〃		〃 (稅金別途)	〃	▼47,000
〃	釜山工場渡	〃 (〃)	〃	▼45,000
〃	仁川工場渡	〃 (〃)	〃	▼46,000
〃	0.222kg/m	6㎜	〃	65,000
〃	0.499	9	〃	58,000
〃	1.04	13	〃	58,000
〃	1.58	16	〃	58,000
〃	2.98	22	〃	58,000
〃	3.85	25	〃	58,000
〃	4.83	28	〃	58,000
〃	6.31	32	〃	58,000
〃	7.99	36	〃	58,000
〃	8.90	38	〃	28,000
〃	10.9	40	〃	60,000
〃	11.9	44	〃	60,000
〃	14.2	48	〃	60,000
中型丸鋼	15.4	50	〃	62,000
〃	18.7	55	〃	62,000
〃	26.0	65	〃	63,000
〃	34.7	75	〃	63,000
〃	39.5	80	〃	63,000
大型丸鋼	49.9	90	〃	65,000
〃	61.7	100	〃	65,000

鐵板

鐵板		4.5㎜×120cm ×242cm	屯	75,000
〃		6㎜ 〃	〃	75,000
〃		9㎜ 〃	〃	75,000
〃		12㎜ 〃	〃	75,000
〃		1.6㎜ 〃	枚	2,650
〃		3.2㎜ 〃	〃	4,800
黑鐵板		1.6㎜×91cm ×182cm	〃	1,300
〃		1.2㎜ 〃	〃	1,160
磨鐵板		3.2㎜ 120×242cm	〃	4,820
〃		2.3 〃	〃	3,520
〃		1.6 〃	〃	2,530
〃		3.2㎜ 91×182cm	〃	2,340
〃		2.3㎜ 91×182cm	〃	1,760
〃		2.0 〃	〃	1,550
〃		1.8 〃	〃	1,410
〃		1.6 〃	〃	1,280
〃		1.5 〃	〃	1,220
〃		1.2 〃	〃	1,160
〃		1.0 〃	〃	980
〃		0.9 〃	〃	880
〃		0.8 〃	〃	800
〃		0.7 〃	〃	700
〃		0.6 〃	〃	630
〃		0.55 〃	〃	560
〃		0.45 〃	〃	470
〃		0.4 〃	〃	425
〃		0.35 〃	〃	380
〃		0.32 〃	〃	360
〃		0.25 〃	〃	320

亞鉛鍍鐵板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亞鉛鍍鐵板		1.2㎜×91cm ×182cm	枚	1,600
〃		0.9 〃	〃	1,200
〃		0.7 〃	〃	1,000
〃		0.6 〃	〃	800
〃		0.5 〃	〃	630
〃		0.4 〃	〃	510
〃		0.27 〃	〃	350
P.C鋼線				
P.C鋼線	工場渡	7㎜	屯	103,000
〃	〃	3.05㎜×7撚線	〃	107,000
〃	〃	2.9㎜×2撚線	〃	107,000
가드케이블線	〃	3×7×18㎜~	m	270

鐵線

亞鉛鍍鐵線	SWG規格	4.0㎜	kg	▼ 80
〃	〃	3.2〃	〃	▼ 82
〃	〃	2.6〃	〃	▼ 84
〃	〃	2.0〃	〃	▼ 90
〃	〃	1.6〃	〃	▼ 94
〃	〃	1.2〃	〃	▼ 99
〃	〃	0.9〃	〃	▼ 107
鐵線	〃	4.0㎜	〃	77
〃	〃	3.2〃	〃	79
〃	〃	2.6〃	〃	81
〃	〃	2.0〃	〃	85
〃	〃	1.6〃	〃	88
〃	〃	1.2〃	〃	91
〃	〃	0.9〃	〃	96
燒鐵線	〃	4.0〃	〃	▼ 80
〃	〃	3.2〃	〃	▼ 82
〃	〃	0.9〃	〃	▼ 99

建具鐵物類 建具鐵物

鐵레일	中節	180cm	個	40
〃	〃	270〃	〃	60
眞鍮레일	押出	180〃	〃	160
〃	〃	270〃	〃	240
창바퀴(戶車)	玉入	30㎜	〃	13
〃	〃	36〃	〃	15
〃	〃	45〃	〃	30
〃	無玉	30〃	〃	11
義星정첩	國防色	75〃	〃	30
〃	〃	100〃	〃	45
〃	亞鉛渡	50〃	〃	20
〃	〃	65〃	〃	25
〃	〃	75〃	〃	35
〃	〃	90〃	〃	50
〃	〃	100〃	〃	60
〃	〃	125〃	〃	100
〃		150〃	〃	150
自由정첩		75〃	〃	190
〃		100〃	〃	250
〃		125〃	〃	300
鐵정첩	上品	50㎜	個	5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	〃	65㎜	個	7
〃	〃	80〃	〃	10
〃		90〃	〃	12
〃		100〃	〃	15
鐵정첩	上品	125〃	〃	25
〃	〃	150〃	〃	30
眞鍮정첩接尾		75〃	〃	150
〃		90〃	〃	170
〃		100〃	〃	200
〃		125〃	〃	350
〃		150〃	〃	500
알미늄정첩	랑구入	90〃	組	320
〃		100〃	〃	350
〃		110〃	〃	400
〃	배어링入	110〃	〃	450
軍金정첩		100〃	〃	660
〃		110〃	〃	800
〃		125〃	〃	1,000
도아핸들	스텐레스	29~42㎜	組	1,900
도아섹크	上品	72號	個	3,300
플로아힌지	〃	620號	〃	8,500
眞鍮差込	〃		〃	30
〃	中	40㎜	〃	15
眞鍮논스립	押出(엥커付)	40㎜	米	429
〃	〃		〃	594
眞鍮目地棒	押出	4,5×10×900㎜	個	55
〃	〃 〃	4,5×15×900	〃	90
〃	押出	4,5×10×1,800	〃	230
〃	〃	4,5×12×1,800	〃	240
〃	〃	4,5×15×1,800	〃	260

工具鐵物類

곡괭이	新品		個	350
홉퍼	上品		〃	80
〃	中品		〃	40
곡괭이자루	上品(機械品)		〃	80
둥근삽	上品(木柄)		〃	270
〃	〃 (鐵柄)		〃	280
〃	下品(木柄)		〃	250
中角삽	上品(〃)		〃	280
石炭삽	〃 (鐵柄)		〃	300
〃	〃 (木柄)		〃	290
비빔밥	上品		〃	220
〃	中品		〃	200
木手망치	上品(大)		〃	150
〃	〃 (中)		〃	100
〃	〃 (小)		〃	70
빠르망치	上品		〃	220
〃	中		〃	120
兩이刀	國産(A)	30cm	〃	550
〃〃	〃 (B)	〃	〃	350
〃〃	〃 (C)	〃	〃	250
흑손손		21㎜	〃	200
〃		24	〃	230
〃		27	〃	250
줄		200㎜	〃	100
〃		250	〃	150
대패	上品	長台	〃	1,300
〃	〃	短台	〃	1,200
스파이크		12L/B	本	3
〃		18〃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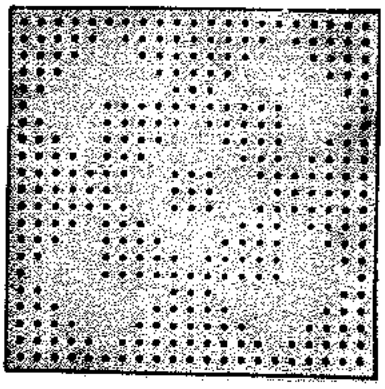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스파이크		30L/B	本	12
모울		12〃	〃	7
〃		18〃	〃	12
〃		30〃	〃	30
페이시		12〃(3㎜두께)	枚	17
〃		18〃	〃	35
〃		30〃	〃	150
레일		12〃	屯	——
징글		12〃	個	7,500
〃		18〃	〃	9,000
〃		30〃	〃	28,000
八分八角鋼			屯	60,000
土運車帆	鎖物附屬付	85kg 型	組	10,000
眞鍮매달		45㎜	1台分	300
칸델라	國産		個	650
스웨덴빗트		800㎜	〃	8,500
〃		1.600	〃	8,500
어렝이		2,0㎜	〃	130
돌로리	單車	18㎜	〃	500
〃	二車	〃	〃	700
〃	三車	〃	〃	1,000
터언벅클	外産	12×300㎜	〃	350
〃	〃	18×300	〃	400
사꾸마		25㎜	〃	250
물림프		18㎜	〃	50
〃		12㎜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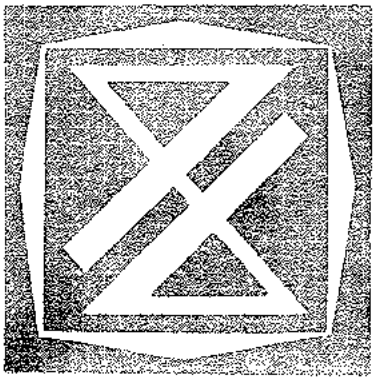
塗裝類

아교	上品	3.75kg	貫	1,000
카세인	仁川産	20kg	袋	250
왁스	國産(中品)		18ℓ	6,500
아카시코우드	特殊水性		〃	2,500
비닐랙스	〃 (A)		〃	4,800
〃	〃 (B)		〃	3,500
〃	外部用		〃	6,650
T R 솔트	鐵材用(特許品	철도－730	〃	16,000
T R 溶劑	稀釋用		〃	4,500
道路標識用塗料	各色(特許品)	철도—830	〃	9,600
〃 溶劑	稀釋用		〃	4,500
라인활트	日製(道路標識用)	20kg	袋	3,700
〃 프라이머	〃 接着劑		kg	680
그레스피－드	日製		〃	480
調合페인트(外部用)	特級 白色	KC-P-060	18ℓ	8,500
〃	A級白·赤·黃	KC-P-160.110,120	〃	7,400
〃	〃 綠	〃 140	〃	6,600
〃	〃 紺灰	〃 120.165	〃	6,200
〃	〃 靑 170	〃 170	〃	6,300
〃	〃 黃	〃 150	〃	6,400
알키드에나멜(外部用)	A 級 白	KC-E-160	〃	6,800
〃	〃 紺	〃 130	〃	6,900
〃	〃 黑	〃 150	〃	6,850
〃	〃 黃	〃 120	〃	8,000
〃	〃 赤	〃 110	〃	7,900
〃	〃 綠	〃 140	〃	7,950
〃	〃 마룬색	〃 115	〃	11,000
溫突에나멜	A 級 黃	KC-E-325	〃	6,000
無光에나멜	〃 白	〃 460	〃	5,800
〃	〃 白	KC-P-460	〃	5,500
〃	B 級 白	〃 560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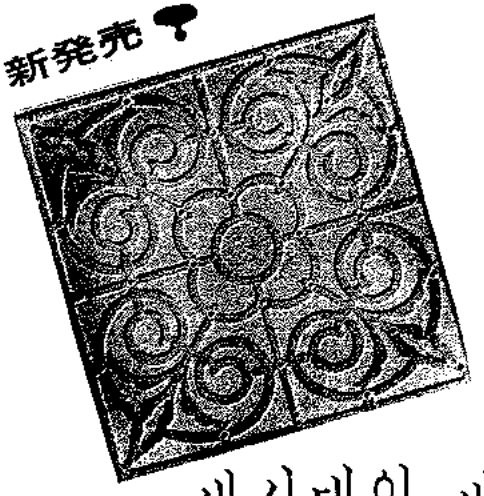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락카	白色	KC-L-160	18ℓ	8,200
〃	銀色	〃 109	〃	9,800
〃	赤色	〃 110	〃	8,900
〃	綠色	〃 140	〃	8,800
〃 (家具用)	透明	〃 200	〃	6,900
〃 (金屬用)	〃	〃 100	〃	6,800
〃 (無光)	〃	〃 300	〃	6,850
신나	페인트用	KC-T-210	〃	1,300
〃	에나멜用	KC-T 220	〃	1,500
〃	락카用	KC-T-120	〃	3,500
스카바니스	特級 透明	KC-V-180	〃	8,000
〃	A 級 〃	〃 240	〃	5,600
〃	R 級 〃	〃 100	〃	5,500
溫美바니스	特 級 〃	〃 210	〃	5,000
速乾니스	A 級 〃	〃 130	〃	3,000
光明丹페인트	特 級	KC-A-390	〃	21,000
〃	A 級	〃 380	〃	9,200
〃	特 A 級	〃 330	〃	13,000
메라스톤	防錆 A級	〃 500	〃	8,500
웻서푸라이머	防 錆 用	〃 220	〃	9,800
징크푸라이머	〃	〃 420	〃	6,600
리마데	30kg 入	KC-K-400	〃	2,200
푸라이나	A 級	〃 580	〃	8,400
보일류	特 級	KC-V-500	〃	6,800
〃	A 級	〃 533	〃	4,900
모리마렉스(수성)	外部 白色	KC-W-160	〃	6,000
〃	內部 白色	〃 360	〃	5,000
〃	特級 白色	〃 860	〃	6,500
말티코트	多色 塗料	KC-ML-100	〃	9,000
세마코트	耐酸 塗料	KC-C-160	〃	9,800
내열도료	700° C	KC-X-300	〃	37,000
리무바	A 級	KC-Y-100	〃	9,200
코깅콤파운드	灰 色	KC-K-260	〃	5,600
調合페인트	外部用白色	DP-A	3.6ℓ	1,500
〃	內·外部用白·淡	DP-300 1.A	〃	1,900
〃	〃	DP-300 1.B	〃	1,740
〃	〃	DP-300 Ⅱ	〃	1,700
木部下塗用	푸라이마	DP-720	〃	1,240
〃	휠라스테인	DO-336 R	〃	930
水性페인트	外部用特級	DA-3,300	〃	1,990
〃	〃 A 級	DA-OS	〃	1,460
〃	內部用特級	DA-3,330	〃	1,610
〃	〃 A 級	AD-1S	〃	1,080
무니코트	特 級	DMP-	〃	1,900
〃	水性푸라이머	DMP-Ⅰ	〃	1,130
〃	防錆푸라이머	DMP-Ⅱ	〃	1,480
〃	整面푸라이머	DMP-4	〃	1,360
〃	上塗透明	DMP-C	〃	2,240
바니스	特 級	DV-2,000	〃	1,400
보일油	A 級	DV-91	〃	1,340
신나	페인트用	DT-700-93704	〃	290
〃	에나멜用	DT-704-94	〃	340
〃	락카用	DT-704-97	〃	830
木材用透明락카	光 澤 A	DL-100	〃	1,790
〃	無光澤 A	DL-110	〃	1,790
락카下地用	우드씰라	DL-130	〃	1,480
〃	샌딩씰라	DL-150	〃	1,780
防錆페인트	메타론 Ⅰ	DR-6.400 Ⅰ (特)	〃	1,800
〃	〃 Ⅱ	DR-6,400 Ⅱ (〃)	〃	2,240
〃	〃 Ⅲ	DR-6,400 Ⅲ (〃)	〃	1,920
〃	光明丹 A	DR-80	〃	3,020
銀粉페인트	실바론	DR-400	〃	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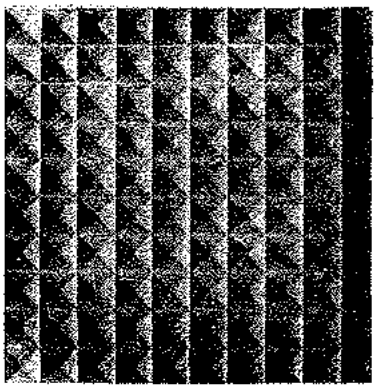
品名	品位	規格	單位	價格
아크릴페인트	透 明	DAP-	3.6ℓ	2,240
〃	白色. 淡色	DAP-X	〃	2,240
〃	셀라민신나		〃	540
우레탄페인트	透 明	DV-5000	〃	4,040
〃	白色. 淡色	DV-5000	〃	4,040
〃	휠 라	DV-5300	〃	3,240
아크릴에말콘페인트	外部用白色	KSM-5310	4ℓ	1,920
〃	外部用淡色	KSM-5310	〃	2,190
조합광명단페인트	1 종	KSM-5311	〃	5,320
〃	2 종	KSM-5311	〃	3,190
〃	3 종	KSM-5311	〃	3,990
〃	4 종	KSM-5311	〃	4,830
調合페인트	오렌지 色	KSM-5312	〃	7,190
〃	黑 色	KSM-5314	〃	1,700
〃	크롬綠色	KSM-5316	〃	2,150
〃	白色 1 종	KSM-5317	〃	2,590
바니스	알킷트	KSM-5601	〃	1,100
〃	스 파	KSM-5603	〃	1,840
非水洗式大便器		C-1	個	800
〃 小便器		U-21	〃	800
洋便器	國產附屬付	C-150-E C-152	組	20,000
水洗式洋便器	附屬除外	CC-201	個	14,500
〃	〃	CC-30	〃	13,000
水洗式大便器	〃	C-8	〃	2,700
〃	〃	CC-12	〃	2,800
水洗式小便器	附 屬 付	U-25	組	2,300
〃	〃	U-36	〃	18,000
〃	〃	U-51	〃	22,000
〃	附屬除外	CU-101	個	3,900
〃	〃	CU-201	〃	3,600
〃	〃	CU-301	〃	20,000
〃	〃	CU-302	〃	18,000
飲水器	附屬付	F-45	組	8,500
二層用大便器	附屬除外	C-5	個	1,600
小型洗面器	〃	L-105	〃	1,700
中型 〃	〃	L-106	〃	2,000
大型 〃	〃	L-110	〃	2,500
特大型 〃	〃	L-112	〃	3,500
〃	〃	L-117 L-115	〃	3,800
水洗式洗面器	〃	CL-202	〃	2,900
〃	〃	CL-203	〃	3,300
〃	〃	CL-301	〃	3,800
〃	〃	CL-501	〃	7,000
아크릴욕조	에푸론付(A型)	1.650×780×410㎜	個	43,000
싱크	에푸론付	1.000×575	〃	4,800
세면대	〃	540×440	〃	3,500
S 트랩	洗面用		〃	800
P 트랩	〃		〃	800
씨스탱크	鑄物	4가룡	〃	1,600
하이탱크洗淨管	黃銅管鍍金	32×1,800㎜	〃	1,700
化粧鏡	面取	5㎜×600×450㎜	〃	1,300
化粧台	高級品	5㎜125×450㎜	〃	300
타올거리	眞鍮	12㎜×450㎜	〃	300
洋便器	日製伊奈	C54-T150 (東洋C-150)	組	70,000
小便器스톨	〃	U-103 (〃U-53)	〃	35,000
〃	〃	U-104 (〃U-37)	〃	60,000
掃除싱크	〃	S-202 (〃SK-22)	〃	60,000
浴槽	西獨製	#211 S (附屬付)	〃	80,000
銅短橫水栓	ROYAL製	15㎜	個	600
銅長橫水栓	〃	〃	〃	800
〃	〃	20㎜	〃	850





新発売





새시대의 새로운 내장재!

실크보드및 실크텍스란 뽕나무 가지를 원료로 배합한 섬유판으로써 방음, 방습, 보온을 완전 해결한 국제규격의 **새로운내장재로** 시감이 부드러우며 색감이 밝고 아름다운것이 특징 입니다.

벽재, 후로링, 상자재, 가구재및 일반 내장재

실크보드

음악실 응접실 극장, 각종홀의 보온을 위한 건축 내장재

실크무늬보드

빌딩, 사무실, 일반거실, 다방, 각종홀의 천정및 벽의 장식을 위한 최고급 내장재.

실크텍스

韓逸실크보드株式会社

本社 : 서울特別市中区乙支路4街310 三盛빌딩901号室, ☎ 26-3601~3

——* 건 축 사(1급, 2급)

——* 건설기술자(토목, 건축)을, 병

唯一한 면허시험 준비학원(수시입학가능)

70年度

合格者数

건축사(46명응시자中39명)

건설기술자 49명

合 格

現代建設技術学院

서울特別市 中区 太平路1街62의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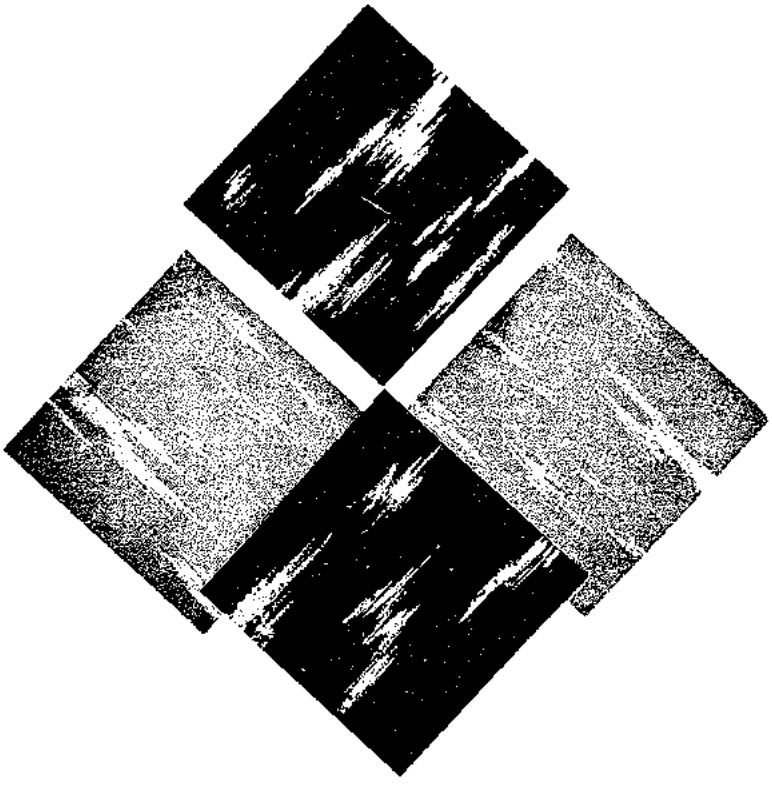
TEL. 72～3166

(光化門 朝鮮日報 옆 오리엔탈양재빌딩301号)

Trade Mark
Tae Lyuk
등록상표

大陸아스타일

TAE LYUK ASPHALT FLOOR TILE



12大受賞의建築材

大法院長賞(最優秀賞)
經濟企劃院長官賞(優秀賞)
商工部長官賞(優秀賞)
建設部長官(優良賞)
서울特別市長賞(優良賞)
六九年度서울特別市優良工産品(優秀賞)
鳳凰大賞 (第一回消費者投票賞)
釜山産業博覽會(優秀賞)
遞信部長官賞(優秀賞)
서울特別市優良工産品(優秀賞)
大韓建築士協會長賞(優秀賞)
大韓建設協會長賞(優秀賞)

美聯邦規格의 美 8 軍納品

전통과 신용을 보장하는

아스타일 전문 메이커

大陸特殊고무工業社

서울特別市西大門区中林洞155 Tel. 23-7375 · 23-9860

Tae Lyuk Asphalt Tile Manufacturing Ind., Co.

155 Choong Nim-Dong, Sudaemoon-Ku

SEOUL, KOREA

防水專門

都市互業株式會社

TOSI INDUSTRIAL CO., L T D.

代表理事 崔 昶 壽

事業內容

◎都市式(A A G TRADE MARK)防水(発特 P A T. No2968)工事
◎特殊床工事 (스파라이트(TRADE MARK) 아트리움(TRADE MARK))
◎一般液体防水工事
◎一般아스팔트防水工事
◎防水材(剤) 製造販売및 施工
◎特殊耐酸工事(아스팔트 耐酸 P V C 〃)
◎諸般防水工事設計施工監理

◎ A A G防水施工法
建設部長官 優秀賞 受賞

◎ 防 水
文敎部長官 優秀賞 受賞

◎ 防 水 剤
大韓建築士協会長 優秀賞 受賞

都市式(A A G)防水의 特徵 (発明特許2968号)

過去 数拾年間에 걸쳐 弊社에서는 各種 防水工事 만을 專門施工하여온바 其間 오랜 經驗을 通하여 防水資材및 施工課程에 있어 諸般欠陷을 除去하고 防水効果의 優秀性을 最大限으로 살려 半永久化하는데 成功하였읍니다.

本 防水層은 弊社製品인 防水剤(A A G)와 発明特許品인 耐熱性防水紙(特製)로 構成된 것 으로서 冷熱에 対하여 Insulation 作用을 잘함으로서 Asp. 係列 防水層 構成方法中 가장 優秀한 것으로서 그 寿命을 長期間(半永久的) 保存하게 되는데 特徵이 있는 것입니다.

※ A A G는 弊社 製品인 防水剤로서 特許局에 登録된 Trade Mark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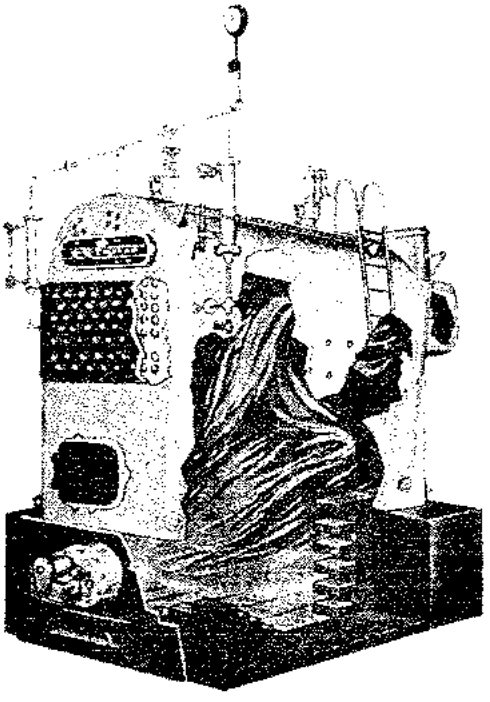
※ 防水 関係 問議는 本社 ☎ 22—5204 · 28—0011로 하여 주시면 항상 응하여 드립니다.

本 社 : 서울特別市 中区 太平路 2街 68番地
TEL 22—5204 · 28—0011 · 夜間直通 54—6807

出張所 : 釜 山 TEL 3—8243
大 邱 TEL 4—0193
光 州 TEL 2—0468
大 田 TEL 2—6036

便利하고 合理的인！ —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東光 DW型 水管式 보일러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 1967年度優良工産品生産奬勵會에서 優秀賞
-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國會議長의最優秀賞
-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大法院長의最優秀賞
-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産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国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三岡産業 Co.	大韓染織 Co.	호 수 호 텔	京畿農産 Co.
시온제과 Co.	仁川園藝組合	同和藥品 Co.	韓獨商社 Co.	廣 日 빌 딩
自由센 타	國防部建設本部	柳韓洋行 Co.	聖바오루病院	韓 國 洋 灰
産 業 銀 行	春川聖心大學	韓國유리 Co.	大興섬유 Co.	麗水觀光호텔
大田皮革 Co.	美八軍洗濯所	韓國나일론 Co.	聖心綜合病院	第 一 病 院
서울여자 學院	大韓體育會	大韓콜크 Co.	大韓生命保險	自動車保險
韓一染色 Co.	大韓重石 Co.	清溪商街아파트	公務院訓練院	새 한 빌 딩
世 宗 호 텔	宇盛化學 Co.	大韓造船公社	林業試驗場	江 原 道 庁
中央産業 Co.	東洋紡織 Co.	올림포스호텔	南大門警察署	韓 獨 産 業
釜山鐵道廳	首都醫附屬病院	용 당 산 호 텔	大 韓 産 業	韓国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会社會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 ㊷ 1673 ㊷ 97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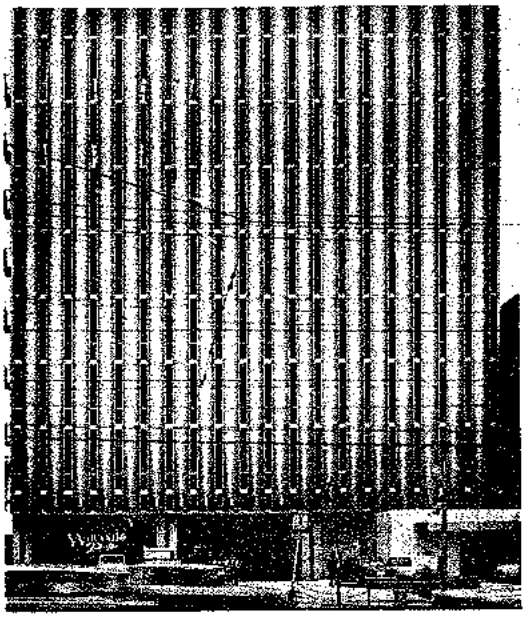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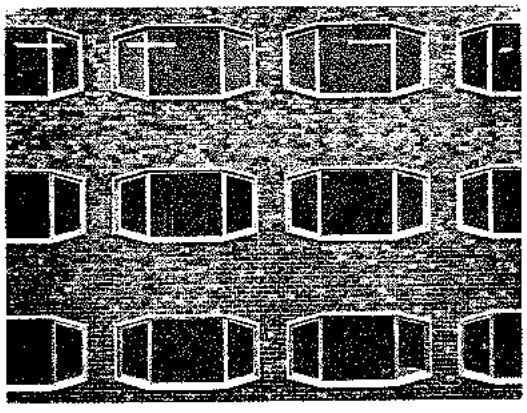
《메탈워커의 톱 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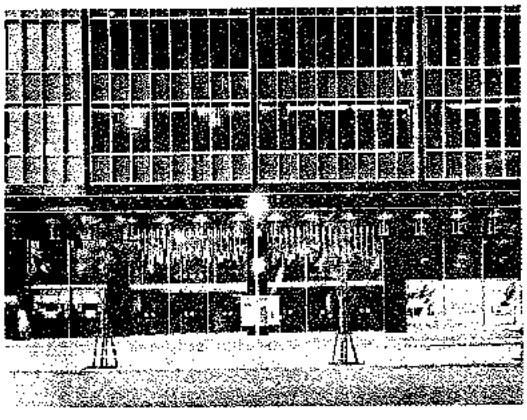
Tajima

.네임 푸레이트부터 커텐월 까지 메탈워크의 일은 맡겨주십시요.

機械生産的인것과 手工芸的인것, 그리고 鋳造品등 現代建築의 要求에 即応할수있으며 폭넓은 生産体制가 素材를 살린 最高의 建築을 이루어 드립니다.







株式会社 田島順三製作所

營業品目：스텐레스, 부렌즈, 아루미늄 도아, 샤시, 커텐월, 구릴, 커럼카바, 鋳造品, 美術工芸品, 其他

本　社・東京都板橋区前野町6-2☎(960)5131大代
營業部・東京都千代田区霞ケ関3－4（霞山빌딩）☎(581) 6651 代
營業所・大阪・名古屋・札幌・仙台・新潟・横浜・宇都宮・富山・静岡・高松・広島・福岡

問意事項은 大然閣호텔内(電話 22－7185) 駐在員에게 連絡바람.